

뜸들이기:

수능 개념 (언어&매체)

조은우 지음



이 책을 집필하신 선생님

조은우 선생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도와주신 분들

김동환 가천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백주연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상현 공군사관학교

표지 그림 : 정채은



블로그 QR 코드



한방국어 블로그에서
본 교재의 교재 정오표와
학습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QR 코드



한방국어 유튜브에서 본 교재의
해설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머리말



제 수업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가장 실전에 적합한 수업”

저는 국어교육과 출신도 아니고 국어국문학과 출신도 아닙니다.
아마도 제 전문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국어라는 과목을 ‘학문’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시험’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방국어로 한방에 대학 갑시다!

“가장 재미있는 수업”

저는 국어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사용합니다.
제 수업은 화려한 아이돌보다, 혹은 유튜버들보다 재미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국어 선생님들 중에서는 가장 재미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수업 듣는 내내 몰입감 높은 강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수업”

제가 말한 ‘인간적’이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DNA에 깊이 내장된 인간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학습의 중추인 뇌에 대해서 다른 강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학습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1 강의 목표

학생들이 강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만약 강의 전, 후에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시간 낭비한 것이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반드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그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2 강의 수강 시 유의사항

1) 한번에 끝낸다는 마음으로 '감상'이 아닌 '공부'를 하도록 한다.

2) '예습'과 '복습'은 필수!

예습은 한번 내용을 훑어보는 정도로 충분하다. 이상적인 소요시간은 10분~20분 사이이다.

복습은 '5단계 복습'을 하고, 단원 끝마다 '백지 복습'을 하도록 한다.

3 워크북과 병행한다

1) 약속한 기한에 약속한 양만큼 해낸다.

2) 문제는 두 번 푼다.

2-1. 첫번째에는 반드시 검은펜으로 풀어오고, 두번째에는 반드시 파란펜으로 필기한다.

2-2. 문제풀 때마다 반드시 시간을 재서 적어둔다.

2-3. 채점 후에는 반드시 개념책을 참고하여 오답노트를 쓴다.

3) 오답노트를 쓰면서 모르는 내용은 반드시 질문한다.

4 올바른 복습 방법

복습은 '5단계 복습'을 하고, 단원 끝마다 '백지 복습'을 하도록 한다.

5단계 복습이란?

누적 복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 5번 복습하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 날에는 당일 배운 것을 복습하고, 두 번째 날에는 첫째 날 배운 것과 당일 배운 것을 복습하고, 세 번째 날에는 첫째 날 배운 것, 둘째 날 배운 것, 당일 배운 것을 복습하고, 네 번째 날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당일 날 배운 것을 복습하고, 다섯 번째 날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배운 것을 복습하고, 여섯 번째 날에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배운 것 복습하고 …….



백지 복습이란?

〈스스로 정리하기〉에서 단원이 끝날 때 마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떠올려보면서 본인만의 언어로 정리하면서 복습해보자.

생각해볼 거리

1

IQ에 관하여 '웍슬러 지능검사'에 대해 검색

- 1) IQ과 성적간의 상관관계
- 2) IQ의 평균과 표준편차

2

1등급과 9등급의 차이점

3

1등급은 가능한 성적인가?

▶ 목표

원하는 목표를 적어보자.



Monthly Plann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이 책의 차례

Part 1. 언어

Chapter 1.

형태론

01 품사와 문장 성분 비교	16
02 품사의 성격	21
03 형태소와 단어의 구조	30
04 사전 찾기	36
05 단원의 마무리	39
06 적용 문제	47

Chapter 2.

문장론

01 문장론의 문법 단위	71
02 높임법	75
03 피동&사동	78
04 시간 표현	81
05 부정 표현	83
06 단원의 마무리	85
07 적용 문제	91

Chapter 3.

음운론

01 음운과 음절	109
02 음운의 변동	113
03 단원의 마무리	118
04 적용 문제	122

Chapter 4.

국어사

01 한글(훈민정음)의 첫 등장	135
02 중세 국어 VS 현대 국어	137
03 근대 국어 VS 현대 국어	139
04 단원의 마무리	141
05 적용 문제	142

Part 2. 매체

Chapter 5.

그 외

- 01 한글맞춤법153
- 02 정확한 문장 표현156
- 03 외래어 표기법159
- 04 로마자 표기법161
- 05 단원의 마무리164
- 06 적용 문제168

Chapter 1.

꼭 필요한 개념 정리

- 01 매체의 유형과 매체 언어 ..181
- 02 매체를 바라보는 태도182

Chapter 2.

평가원의 출제 법칙

- 01 유형 분석184
- 02 적용 연습185



Part 1.

언어

Chapter 1.

형태론

- 01 품사와 문장 성분 비교
- 02 품사의 성격
- 03 형태소와 단어의 구조
- 04 사전 찾기
- 05 단원의 마무리
- 06 적용 문제



1 품사와 문장 성분 비교

Step 1. 개념 강의

개념 ① 품사(형태론) vs 문장 성분(문장론)

• 품사

1. 단어에 대해서 말한다. = 사전을 찾아봐야 한다.
2. 국어는 9품사.
3. '-사'로 끝난다. 예)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4. 단위: 띄어쓰기(어절) + 조사

• 문장성분

1. 서술어 기준으로,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한다.
2. 7종류로 분류한다.
3. '-어'로 끝난다. 예)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4. 단위: 띄어쓰기(어절)

개념 ② '품사'의 분류



애들이 아래 분류 표는 포스트잇에 적어!

2	5	9
형태	의미	기능
불변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관계언	조사
	독립언	감탄사
가변어	용언	동사, 형용사

• 체언 :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1. **명사**: 대상의 이름 예) 발, 머리, 축구공, 손흥민, 대한민국
2.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부르는 말 예) 나, 우리 / 너, 당신, 그대 / 그녀, 그
3. **수사**: 숫자의 이름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백, 천, 만

• 용언 : (활)용언 = 기본형이 '-다'로 끝난다

= 어간과 어미로 나뉜다 = 절대 관형사나 부사가 아니다.

4. **동사**: 동작이나 과정을 이르는 말
예) 먹다, 달리다, 물다, 읽다
5. **형용사**: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이르는 말
예) 예쁘다, 크다, 작다, 밝다



연습 문제

- 1) 용언을 한번 찾아보자 (하늘, 예쁘다, 달력, 책, 옷다, 서울, 휴지통, 찡그리다)

• **수식언** : 꾸며주는 말 = 두 단어들을 따로 떼어냈을 때 확인 할 수 있다.

6. 관형사: 체언을 수식하는 말 예) 이, 그, 저, 새, 헌

7. 부사: 체언 빼고 다 수식하는 말 예) 빨리, 깊이, 높이



조사는 뒤에 가서 다시 제대로 배울 테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있자.

• **관계언** : 조사

8. 조사: 체언과 결합하여 ①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격조사), ②뜻을 더해주는 말(보조사), ③체언 둘을 연결 지어 주는 말(접속조사)

- 격조사: ‘문장 성분’과 연계해서 이름 지어 짐. 주격조사(이/가), 목적격조사(을/를), 보격조사(되다, 아니다 앞의 이/가), 서술격조사(-이다), 부사격조사(안 외움), 관형격조사(의) 호격조사(야)
- 보조사: 은/는/도/만/부터/까지/마저/요
- 접속조사: 와(과), 이랑, 하고



연습 문제 | 조사를 한번 찾아보자

- ㄱ. 내가 병원에 갑니다.
- ㄴ. 동생이 만화책을 가져왔어요.
- ㄷ. 민우는 배와 사과만 먹었다.
- ㄹ. 나도 이 학교의 학생이다.
- ㅁ. 은우와 하윤이는 선생님을 찾아 뵈었다.
- ㅂ. 은우는 하윤이와 선생님을 찾아 뵈었다.

• **독립언** : 감탄사

9. 감탄사: 화자의 느낌이나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 예) 앗!

개념 3 '문장성분'의 분류

1. 주어 : '무엇이 어찌한다/어떠하다'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 (Cf.주체)

주어가 되는 방법은 격조사(이/가), 보조사, 조사 생략이 있다.

예) 달이 뜬다.

은우는 밥을 먹었다.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2. 목적어 : '무엇을 어찌한다/어떠하다'에서 '무엇'에 해당 하는 것. (Cf. 객체)

목적어가 되는 방법은 격조사(을/를), 보조사, 조사 생략이 있다.

예) 나는 곡식은 싫어하지만, 채소, 과일은 좋아한다.

은우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3. 보어 :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가'가 붙은 것만 인정된다. (cf.홀문장, 겹문장의 서술절)

보어가 되는 방법은 격조사(이/가), 보조사, 조사 생략이 있다.

예) 물이 얼음이 되다.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Cf. 물이 얼음으로 되다.

4.서술어 : '무엇이 어찌한다/어떠하다'에서 '어찌한다/어떠하다'에 해당하는 것.

주로 동사와 형용사, 드물게 서술격 조사 '-이다'

서술어가 되는 방법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 이다

예) 철수가 집에 간다

학생이 글을 읽는다

산이 높다.

5. 관형어 : 체언 수식

관형사, 용언(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되는 방법은 관형사, 명사+관형사격 조사, 용언(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관형사절

예) 저 아이를 유심히 관찰해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이다.

붉은 노을을 닮아 난 너를 사랑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

6. 부사어 : 체언 빼고 다 수식

부사어가 되는 방법은 부사, 명사+부사격조사, 부사절

예) 로켓이 매우 빨리 날아간다.

로켓이 매우 빠르게 날아간다.

나에게 모자가 어울리지 않는다.

도로가 비가 와서 미끄럽다.

7. 독립어 : 다른 문장 성분과 관련 없이 혼자 쓰이는 성분

예) 아! 단풍이 곱게 물들었구나.
아서라, 그런 말 하면 못쓴다.

개념 4 품사와 문장 성분 분석하기

1. 문장에서 '어절'까지만 쪼개면 문장 성분을 구별하는 것이다.
2. '어절'을 쪼개 다음에 '조사'까지 쪼개주면 품사를 구별하는 것이다.



연습 문제 | 문장성분 쪼개기 vs 품사 쪼개기

- ㄱ.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
- ㄴ. 나만 숙제를 안 했구나.
- ㄷ. 그가 철수에게 작은 컵을 주었다.
- ㄹ.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



연습 문제 | 다음 단어들의 문장성분과 품사는?

	문장성분	품사
ㄱ. 불
ㄴ. 어서
ㄷ. 그대
ㄹ. 아이고
ㅁ. 숙제
ㅂ. 웃으니까
ㅅ. 제발
ㅇ. 유일한
ㅈ. 많다
ㅊ. 외딴



뒤에 문제 풀고 가자!

48~49 페이지에 있어!



Step 2. 스스로 정리하기



2 품사의 성격

Step 1. 개념 강의



선생님 저 앞에 내용 꼭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1. 형태 2 기능 5 의미 9

2. 불변어 ()

체언 () -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 - 관형사 부사

관계언 () - 조사

독립언 () - 감탄사

가변어 ()

용언 ()

*

시험문제 빈출 되는 유형

- 용언과 수식언 비교하기
- 동사와 형용사 비교하기
- 관형사와 부사 구분하기
- 수사와 관형사 구분하기



단어에 대해서 말한다. = 사전을 찾아봐야 한다.

개념 1 명사

자립성 여부에 따라

- 자립명사 :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
- 의존명사 :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명사. 반드시 관형어가 필요하다.

• 형식성 의존 명사: 것/따름/지/채/만큼

예)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 안본 지도 꽤 오래 되었다. 신발을 신은 채로 자면 안 돼. 먹을 만큼만 먹어라.

• 단위성 의존 명사 : 명/사람/마리/그루/개/대/병/잔/시/분/초

예) 세 명의 형사/ 다섯 사람/ 여섯 마리/ 일곱 그루/ 다섯 개/ 포르쉐 세 대/ 와인 두 병/ 소주 세 잔/ 아홉 시/ 오십 팔 분 / 삼십 이 초

Cf.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해.

추수가 끝난 논에는 벼의 그루만이 남아 있었다.



의존 명사와 조사 구별하기



1. 의존 명사와 조사 구별
2. 의존 명사와 어미 구별

개념 2 대명사

1인칭	하대칭	저, 소인, 소자, 과인, 저희
	평대칭	나, 짐, 본인 ; 우리
2인칭	평대칭	너, 너희, 당신
	존대칭	그대, 여러분, 댁, 귀형, 귀하
	극존대칭	어른, 어르신, 선생님
3인칭	평대칭	그, 저, 이들, 그들, 저들 ; 누구, 아무, 자기, 자신, 저, 제, 저희
	존대칭	이이, 그이, 그분
	극존대칭	이분, 그분, 저분, 당신
미지칭		누구
부정칭		누구, 아무
재귀대명사		(앞에 대명사가 나오고 또 나올 때) 평대칭: 자기, 자신, 제 ; 저희

1인칭 : '나', '우리' / 2인칭: 내 말을 듣고 있는 '너' / 3인칭: 나머지

*미지칭과 부정칭 구별 기준

- 1) 미지칭: (알고 싶어! <영어로 치면 의문사>)
- 2) 부정칭: (알고 싶지 않아! <영어로 치면 every, any, whoever>)

*인칭대명사는 상대 높임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상대높임은 뒤에 배울 거니까 넘어가

*동일한 형태의 대명사가 둘이상의 인칭을 가리킬 수 있다.

예) 그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vs 애들이 어려서 저희밖에 모른다.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책을 소중히 다루셨다. Vs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는 것이오?



선생님 저 앞에 내용 꼭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 **격조사** : ‘문장 성분’과 연계해서 이름 지어 짐. 주격조사(이/가), 목적격조사(을/를), 보격조사(되다, 아니다 앞의 이/가), 서술격조사(-이다), 부사격조사(안 외움), 관형격조사(의) 호격조사(아)
- **보조사** : 은/는/도/만/부터/까지/마저/요
- **접속조사** : 와/과, (이)랑, 하고

개념 3 관계언

격조사 :

1. 체언의 문장성분을 확정 지어주는 조사.
참고) 문장성분이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관형어, 독립어로서의 자격을 의미한다.
2. 보조사와는 철저하게 구분해야 한다.
Cf. 보조사란 체언 및 체언 외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덧붙여 주는 조사
3. 보격조사는 ‘되다/아니다’ 앞의 ‘이/가’만 인정된다.
(1)부사격조사와 구분하기. (2)겹문장의 서술절과 헛갈릴 수 있음.)
예)물이 얼음이 되다. vs 물이 얼음으로 되다.
4.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에 붙은 ‘에서’ 는 주격조사이다.
예)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vs 오늘은 학교에서 공을 쳤다.



연습 문제 | 격조사를 찾아보세요.

- ㄱ. 그가 집으로 갔다.
- ㄴ. 은우가 문명중학교의 학생회장이 되었다.
- ㄷ. 은우가 서울로 떠난 지 이틀이 지났다.
- ㄹ. 엄마의 얼굴이 제일 예뻐다.
- ㅁ. 은우야. 너는 이런 자리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학생이다

보조사 :

체언 및 체언 외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덧붙여 주는 조사.
 은/는/도/만/부터/까지/마저/요 는 반드시 외우고 있다.

성분 보조사 : 문장 성분 뒤에 음.

은/는(대조) / 가(목적 '을/를' 대신) / 도(역시, 강조, 극단, 양보와 허용) 만, 뿐(단독) / 마저, 까지, 조차(극단)
 / 부터(시작, 먼저) / 마다(균일)

예) 이곳에서는 수영을 하면 안 됩니다. (대조)
 우리만 극장에 가서 미안하다. (단독)
 그 집도 역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역시)

종결 보조사 : 문장 끝에 붙음.

예) 그가 갔다마는.
 그가 갔네그려.
 그가 갔구만그래.

통용 보조사 : 문장 성분, 문장 끝에 모두 붙음.

예) 내가요 지금요 집에를요 가야만요 하거든요.

접속조사 : 체언과 체언을 엮어주는 조사 와/과, (이)랑, 하고

1. 부사격조사와 구별해야 한다. 자리로 구분한다.

예) 김태희와 비는 결혼했다 vs 김태희는 비와 결혼했다.

격조사와 보조사의 차이

1. 격조사는 앞의 체언의 문장 성분을 확정지어주지만, 보조사는 그렇지 못하다.
 예) 은우가 vs 은우는
2. 하지만 보조사는 격조사와 달리 다른 문장성분에 결합하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그래서 보조사가 결합하면 문장 성분이 헛갈릴 수 있다.
 예) 은우는 공부를 좋아한다. / 은우가 음악도 좋아한다.
3. 본래 조사는 체언과 결합하지만, 보조사는 특이하게 체언, 용언 모두와 결합 가능하다.
 그래서 '어미'와 헛갈릴 수 있다.
 이럴 경우 '어간 없는 어미 없고, 어미 없는 어간 없다'를 떠올려서 '생략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자!
 예) 아직 밥을 먹지는 않았다. / 그건 먹는 것이 아니다.
 어서 오시오 vs 어서 오시요

개념 4 수식언

수식언 : 꾸며주는 말 = 두 단어들을 따로 떼어냈을 때 확인 할 수 있다.

관형사: 체언을 수식하는 말

예) 이, 그, 저, 새, 헌

부사: 체언 빼고 다 수식하는 말

예) 빨리, 깊이, 높이

1. 용언과 수식언 비교하기

절대 활용하지 않음!

* 연습 문제 | 용언과 수식언을 찾아보자.
모든 것, 빠르게 간다, 아주 맵다.

* 연습 문제 |
'모르는 사람'에서 '모르는'의 품사는?
'새'와 '새롭다'의 품사는?

2. 관형사와 부사 구분하기

체언을 수식하는지 vs 체언 빼고 다 수식하는지

* 연습 문제 |
'내가 그 일을 안 했다'에서 '안'의 품사는?

3. 수사와 관형사 구분하기

조사가 붙는지 vs 안붙는지

예)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안다 vs 한 개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

개념 5 용언

용언 : 동사, 형용사. 활용할 수 있다. 기본형이 '-다'로 끝난다. 어간과 어미로 나뉜다.

***동사와 형용사의 분류 기준**

동사와 형용사의 정의로 접근하지 마라.

- ㄱ. 현재형 선어말 어미 '-는/-ㄴ-다.'를 붙여본다. Not 는, ㄴ, 은
- ㄴ. 명령형 청유형을 붙여본다.



연습 문제 |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기

- 그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 피가 솟는다.
- 인생이 슬프다.
- 마음이 슬퍼졌다.

* 활용: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붙는 것.

Cf. 어간은 대체가 안되는 부분, 어미는 대체가 되는 부분 → 규칙활용에서 배울 것

예) 먹다, 먹어, 먹고, 먹으면서, 먹어도, 먹지, 먹는, 먹음, 먹기

ㄱ. 어간 없는 어미 없고, 어미 없는 어간 없다.

- 예) 먹- + -어 = 먹어
- 가- + -아 = 가 (?)

ㄴ. 어미



나중에 명사형 전성 어미 vs 접사 비교 배울 것

선어말 어미	주로 높임법, 시제 등을 나타낸다. 생략가능.
종결어미	. ! ?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어말 어미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 어미 (-음, -기), 관형사형 전성 어미(-ㄴ/-는, -ㄹ), 부사형 전성 어미 (X)
	연결어미 -고, -(으)며, -(으)면, -(으)니, -아/어

설마 접속조사랑 헷갈리는 것은 아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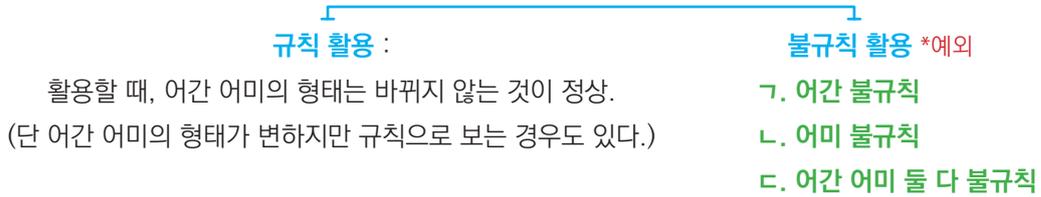


연습 문제 | 어간어미 구분하기

- 가시겠습니다.
- 간다.
- 집에 잘 가고, 도착하면 연락해.
- 오늘 꼭 집에 가기.

개념 6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 -(으)니, -아/어서를 붙여본다!



규칙 활용 :

활용할 때, 어간 어미의 형태는 바뀌지 않는 것이 정상.

예) 막- + -다 + -(으)니 + -아/어서)	접- + -다 + -(으)니 + -아/어서)	가- + -다 + -(으)니 + -아/어서)
-----------------------------------	--------------------------------	--------------------------------

단, 어간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만 규칙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ㄱ. 'ㄱ' 탈락

예) 끄- + -다
+ -(으)니
+ -아/어서)

ㄴ. 'ㄹ' 탈락

예) 울- + -다
+ -(으)니
+ -아/어서)

불규칙 활용 *예외

ㄱ. 어간 불규칙 : 어간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

예) 'ㅅ' 불규칙: 잇- + -다 + -(으)니 + -아/어서) 'ㅂ' 불규칙: 돕- + -다 + -(으)니 + -아/어서) '우' 불규칙: 푸- + -다 + -(으)니 + -아/어서)	'ㄷ' 불규칙: 문- + -다 + -(으)니 + -아/어서) '르' 불규칙: 흐르- + -다 + -(으)니 + -아/어서)
--	---

ㄴ. 어미 불규칙 : 어미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



ㅍㅍㅍ '르' 불규칙이랑 '러' 불규칙이랑 헷갈려...

예) '오' 불규칙: 달 + 다 (매달다) + -(으)니 + -아(라) → 다오	'여' 불규칙: 노력하- + -다 + -아/어서) → 노력하여 '러' 불규칙: 푸르- + -다 + -아/어 → 푸르러
--	--



형님은 단추가 떨어지면 직접 '다오'?

ㄷ. **어간 어미 둘다 불규칙** : 어간, 어미의 형태가 모두 바뀌는 경우

예) 'ㅎ' 불규칙
파랳+ -다
-아/어(서) →

개념 7 합성용언, 본용언, 본+보조용언

합성용언 vs 본+본용언 vs 본+보조용언: 띄어쓰기가 중요

- ㄱ. 합성용언은 하나의 단어, 사전에 등재된다. 하나의 단어이므로 무조건 붙여쓴다.
- ㄴ. 본+본용언은 두 개의 단어이므로 반드시 띄어쓴다. -아/어(서)를 붙여서 말이 되면 본+본용언
- ㄷ. 본+보조용언은 띄어쓰는게 원칙, 붙여쓰는 것도 가능. -아/어(서)를 붙여서 말이 안되면 본+보조용언

예)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형식.
 그 일을 다 해 버리니 속이 시원하다.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었다.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 뒤라.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계산해 보고 시작하다.



뒤에 문제 풀고 가자!



50~56 페이지에 있어!

Step 2. 스스로 정리하기



3 형태소와 단어의 구조

Step 1. 개념 강의

개념 ① 형태소

형태소 : '합성어', '파생어'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써, '어근'과 '접사'로 분석한다.

*분류

- **실질 형태소** : 단독 혹은 조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구성, 단 어간은 실질
→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어간, 어근
- **형식 형태소** : 실질이 아닌 것
→ 어미, 조사, 접사
- **자립 형태소** : 단독 혹은 조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절을 구성
→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어근
- **의존 형태소** : 자립이 아닌 것
→ 어간, 어미, 접사, 조사

*형태소 분석하는 방법

1. 어절 단위로 쪼갬다.
2. 조사를 쪼갬다.
3. 어간과 어미를 쪼갬다.
4. 접사를 쪼갬다



연습 문제 | 형태소 분석해보기

그 꽃이 매우 예뻐다.

큰 일이 일어났다.

치솟다.

개념 2 이형태

이형태 : 모습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형태소로 인정되는 것.

ㄱ. **음운론적 이형태** : 음운이란 소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자음, 모음을 의미한다.

- 이/가: 은우가 이번 일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vs 대한민국이 사랑한 은우
- 을/를: 그녀를 사랑할 수 밖에 없었다. vs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 로/으로: 집으로 가는 길 vs 대구로 가는 길
- -아/어: 어서 빨리 잡아, vs 어서 빨리 먹어

ㄴ. **형태론적 이형태** : 예외적인 단어에 한정! '하다'에만 '-었-'이 온다.

- -었-/-였-

예)

그녀가 내게 다가왔었다.

그가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다.

개념 3 단일어, 복합어

단일어, 복합어(합성어, 파생어) :

새로운 '단어(사전에 등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어근과 접사로 구분한다.

- **단일어** : 어근 하나
- **복합어** :
 - **합성어** : 어근 2개 이상
 - **파생어** : 접사 1개 이상

판단은 '직접구성요소'

2017년 9월 11번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있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한 단어에 합성과 파생 과정이 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이다. '벽돌집'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벽돌'과 '집'이 분석된다. 이를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예시 문제 |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를 구별해보자.

군소리	보다	하늘	한겨울	공부하다	삼키다
치숫다	깨뜨리다	새해	드높다	멋쟁이	앞사귀
뒤섞다	그들	셋째	살얼음	나들이옷	눈웃음
놀이터					



설마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를 헷갈리는 것은 아니겠지?

예)
안다 vs 안기다
치숫다



접사: 분명 형식 형태소라고 배웠는데, 부가적인 뜻을 부여한다(?)
 그래서 결국 접사는 암기해야 한다.

- | | |
|----------------------------|---|
| 1. 어근의 어디에 붙느냐
접두사, 접미사 | 2. 품사나 통사구조를 바꿀 수 있냐 없냐
통사적 접사, 어휘적 접사 |
|----------------------------|---|

✱

접두사

- 드- 드세다, 드높다
- 덧- 덧신, 덧대다
- 맨- 맨손, 맨발
- 새- 새끼말다, 새빨갈다
- 개- 개살구, 개떡
- 풋- 풋사과, 풋사랑
- 날- 날고기, 날두부
- 들- 들볶다, 들끓다
- 되- 되감다 되찾다
- 옛- 옛튼다, 옛보다
- 짓- 짓밟다, 짓이기다
- 시- 시어머니, 시아버지
- 헛- 헛웃음, 헛디디다
- 군- 군살, 군소리
- 뒤- 뒤섞다, 뒤엎다
- 치- 치솟다 치뜨다
- 휘- 휘젓다 휘몰아치다

✱

접미사

- 통사적 접사가 일부 있음
- 꾸러기 잠꾸러기, 장난꾸러기
- 장이 간판장이, 칠장이
- 쟁이 겁쟁이, 떤쟁이
- 뱅이 가난뱅이, 게으름뱅이
- 둥이 막내둥이, 해방둥이
- 지기 등대지기, 문지기
- 질 가위질, 손가락질
- 보 먹보, 털보
- 꾼 일꾼, 장사꾼
- 개 뉘개, 지우개
- 하다 공부하다 내기하다
- ㅁ/음 꿈, 잠, 사움, 웃음, 울음
- 이 길이 넓이
- 기 쓰기, 읽기, 달리기
- 이-/히/리/기/우/구/추: 사동, 피동접사

단, '높이', '깊이', '빨리'는 부사로 인식한다. Not 용언

개념 4 형태소의 의미 결합 방법

합성어의 의미 결합 방법

- ㉠. **대등 합성어** : 앞 뒤 단어의 자리를 바꿔서 말이 되는 경우
예) 앞뒤, 똥오줌
- ㉡. **종속 합성어** : 앞 뒤 단어의 자리를 바꿔서 말이 안되는 경우
예) 돌다리, 책가방, 도시락밥
- ㉢. **융합 합성어** :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경우이므로 암기해야 함
예) 춘추, 밤낮, 산수(山水)

개념 5 비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vs통사적 합성어) : 4

- 1. **용언+용언** : 연결 어미 없이
예) 여닫다, 우짚다, 검푸르다, 뛰놀다, 잡쥘다.
- 2. **용언+체언** : 관형사형 전성어미 없이
예) 늦잠, 늦더위, 뉘밭
- 3. **부사+체언** : 부사가 체언을 수식
예) 부슬비, 얼떡고개, 출랑새
- 4. **한자어** :
예) 독서, 등산

개념 6 명사형 전성어미와 접사

명사형 전성어미 vs 접사

- 공통점: 뒤에 격조사가 올 수 있음.
- 차이점:
 - 명사형 전성 어미: 여전히 용언이므로 용언의 특징을 가진다. → 목적어O, 부사의 수식O
 - 접사: 파생어이므로 완전 명사가 된다. → 목적어X, 부사의 수식X
예) 약속할거지? 지금부터는 앞만 보고 잘 달리기!
2바퀴째부터는 빠른 달리기로 전환해야 해!
개 요즘 춤춘다며? 응 생각보다 더 잘 춤.
당신의 주특기는 무엇인가요? 현란한 춤.



뒤에 문제 풀고 가져!



57~63 페이지에 있어!

Step 2. 스스로 정리하기



4 사전 찾기

Step 1. 개념 강의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느정도 외우게 좋아!

개념 1 용어 정리

1. 다의어 -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
2. 동음이의어
3. 활용 형태
4. 품사
5. 문형 정보: 서술어의 자릿수와 필수 성분들을 알려 줌
6. 용례

새다 [새다] 새어, 새, 새니
활용 형태

동사

품사

I. 「...에서, ...으로, ...에/에게」

문형정보

「1」 기체, 액체 따위가 틈이나 구멍으로 조금씩 빠져 나가거나 나온다.

중심적 의미

예) 지붕에서 비가 샌다.

「2」 빛이 물체의 틈이나 구멍을 통해 나거나 들다.

주변적 의미

예) 작은 방에서 불빛이 새 나왔다.

「3」 어떤 소리가 일정 범위에서 빠져나가거나 바깥으로 소리가 들리다.

주변적 의미

예) 유리가 깨어진 틈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새었다.

「4」 돈이나 재산 따위가 일정한 양에서 조금씩 부족해지거나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주변적 의미

다른 데로 나가는 상태가 된다.

예) 이상하게도 지갑에서 돈이 자꾸 샌다.

「5」 비밀, 정보 따위가 보안이 유지되지 못하거나 몰래 밖으로 알려지다.

주변적 의미

예) 이 기밀은 기획실에서 새어 나왔다.

II. 「...으로」

「1」 모임, 대열, 집단 따위에서 슬그머니 빠지거나 다른 곳으로 나가다.

예) 그는 모임에서 슬그머니 딴 데로 섰다.

「2」 대화, 토론, 발표 따위가 주된 화제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주제로 바뀌어 버리다.

예) 그들은 항상 이야기가 이상한 쪽으로 새곤 하였다.

「3」 원래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딴 데로 가다.

예) 동생은 학교에 안 가고 딴 곳으로 새 버렸다.

새다² [새:다] 새어, 새, 새니

동사

1. 날이 밝아 오다.

예) 어느덧 날이 새는지 창문이 부엌에 밝아 온다.

다의어 관계

'새다'는 한 표제어 안에 두개 이상의 뜻이 있는 다의어. 다의어는 하나의 표제어로 실림

동음이의어 관계

개념 2 용어 정리

1. **유의**: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계

유의관계 특징

(1)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 피부가 하얗다. Vs 살갗이 하얗다

(2) 범위와 느낌에 따라 바꾸어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 아버지의 머리 vs 아버지의 대가리(?)

2. **반의**: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관계

(1)상보 반의어(모순 관계)

예) 여자 vs 남자, 죽다 vs 살다

(2)정도 반의어

예) 길다 vs 짧다

(3)방향 반의어

예) 위 vs 아래

단, 반의어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될 수도 있다.

예) 심장이 뛰다 ↔ 심장이 멈추다

물가가 뛰다 ↔ 물가가 떨어지다

3. **상하**: 상의어 하의어의 포함 관계



상의어 하의어는 서로 상대적인 관계

예) 스포츠-구기종목-축구

하의어가 속성이 더 추가되고, 더 구체적임



뒤에 문제 풀고 가자!



64~69 페이지에 있어!

Step 2. 스스로 정리하기



5 단원의 마무리

01. 품사와 문장 성분 비교

개념 1. 품사(형태론) vs 문장 성분(문장론)

• 품사

1. (1)에 대해서 말한다. - 사전을 찾아봐야 한다.
2. 국어는 (2).
3. (3)로 끝난다.
4. 단위: (4).

• 문장 성분

1. (5) 기준으로, 문장 내에서 어떤 (6)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한다.
2. (7)로 분류한다.
3. (8)로 끝난다.
4. 단위: (9).

개념 2. 품사의 분류

• 체언: (1)와 결합할 수 있다.

1. 명사: 대상의 이름
2.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부르는 말
3. 수사: 숫자의 이름

• 용언: (2) = (3) = (4)

4. 동사: 동작이나 과정을 이르는 말
5. 형용사: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이르는 말

• 수식언: 꾸며주는 말 = 두 단어들을 따로 (5) 확인할 수 있다.

6. 관형사: 체언을 수식하는 말
7. 부사: 체언 빼고 다 수식하는 말

• 관계언: 조사

8. 조사: (6)하여 ①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②뜻을 더해주는 말, ③체언 둘을 연결 지어 주는 말

• 격조사: '문장 성분'과 연계해서 이름 지어 짐. 주격조사(이/가), 목적격조사(을/를), 보격조사(되다, 아니다 앞의 이/가), 서술격조사(-이다), 부사격조사(안 외움), 관형격조사(의), 호격조사(야)

• 보조사: (7)

• 접속조사: (8)

• 독립언: 감탄사

9. 감탄사: 화자의 느낌이나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

개념 3. 문장 성분의 분류

1. 주어: '무엇이 어찌한다/어떠하다'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 주어가 되는 방법은 (1)이 있다.

2. 목적어: '무엇을 어찌한다/어떠하다'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것. 목적어가 되는 방법은 (2)이 있다.

3. 보어: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가'가 붙은 것만 인정된다. 보어가 되는 방법은 (3)이 있다.

4. 서술어: '무엇이 어찌한다/어떠하다'에서 '어찌한다/어떠하다'에 해당하는 것.

5. 관형어: (4) 수식.

6. 부사어: (5) 다 수식.

7. 독립어: 다른 문장 성분과 관련 없이 혼자 쓰이는 성분.

개념 4. 품사와 문장 성분 분석하기

1. 문장에서 '어절'까지만 쪼개면 (1)을 구별하는 것이다.

2. '어절'을 쪼개 다음에 '조사'까지 쪼개주면 (2)을 구별하는 것이다.

01. 품사와 문장 성분 비교

개념 1. 품사(형태론) vs 문장 성분(문장론)

(1) 단어 (2) 9품사 (3) -사 (4) 띄어쓰기(어절) + 조사 (5) 서술어 (6) 역할 (7) 7종류 (8) -어 (9) 띄어쓰기(어절)

개념 2. 품사의 분류

(1) 조사 (2) 활용언 = 기본형이 '-다'로 끝난다 (3) 어간과 어미로 나뉜다 (4) 절대 관형사나 부사가 아니다 (5) 떼어냈을 때 (6) 체언과 결합 (7) 은/는/도/만/부터/까지/마저/요 (8) 와/과, 이랑, 하고

개념 3. 문장 성분의 분류

(1) 격조사, 보조사, 조사 생략 (2) 격조사, 보조사, 조사 생략 (3) 격조사, 보조사, 조사 생략 (4) 체언 (5) 체언 빼고

개념 4. 품사와 문장 성분 분석하기

(1) 문장 성분 (2) 품사

02. 품사의 성격

개념 1. 명사

- 자립성 여부에 따라
- 자립명사: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
- 의존명사: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명사. 반드시 (1)가 필요하다.
- 의존명사와 (2) 구별하자 의존명사와 (3) 구별하자

개념 2. 대명사

- 1인칭: (1) / 2인칭: (2) / 3인칭: (3)
- 미지칭과 부정칭 구별 기준
 1. 미지칭: 알고 싶어
 2. 부정칭: 알고 싶지 않아
- 인칭대명사는 (4)에서 사용될 수 있다. 동일한 형태의 대명사가 두 개 이상의 인칭을 가리킬 수 있다.

개념 3. 관계언

- 격조사
 1. 체언의 (1)을 확정 지어주는 조사.
 2. (2)와는 철저하게 구분해야 한다.
 3. 보격조사는 (3)앞의 (4)만 인정된다.
 4.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에 붙은 '에서'는 (5)조사이다.
- 보조사
 1. 체언 및 체언 외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덧붙여 주는 조사.
(6)는 반드시 외우고 있다.
 2. 성분 보조사: 문장 성분 뒤에 옴.
 3. 종결 보조사: 문장 끝에 붙음.
 4. 통용 보조사: 문장 성분, 문장 끝에 모두 붙음.
- 접속조사

(7)과 (8)을 엮어주는 조사. (9)와 구별해야 한다. (10)로 구분한다.

• 격조사와 보조사의 차이

1. 격조사는 앞의 체언의 (1)을 (11) 지어주지만, 보조사는 그렇지 못하다.
2. 보조사는 격조사와 달리 다른 (1)에 결합하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3. 본래 조사는 체언과 결합하지만, 보조사는 특이하게 체언, (12) 모두와 결합 가능하다. 이로 인해 '어미'와 헷갈릴 수 있다. 이럴 경우 '어간 없는 어미 없고, 어미 없는 어간 없다'를 떠올려 '생략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자.

개념 4. 수식언

• 수식언

- 꾸며주는 말 = 두 단어들을 (1) 때 확인할 수 있다.
- 관형사: (2)을 수식하는 말.
- 부사: (3) 빼고 다 수식하는 말.

1. 용언과 수식언 비교하기

수식언은 절대 (4)하지 않음!

2. 관형사와 부사 구분하기

(2)을 수식하는지 vs (3) 빼고 다 수식하는지.

3. 수사와 관형사 구분하기

(5)가 붙는지 vs 안 붙는지.

개념 5. 용언

- 용언: 동사, 형용사. 활용할 수 있다. 기본형이 '-다'로 끝난다. 어간과 어미로 나뉜다.

• 동사와 형용사의 분류 기준

동사와 형용사의 (1)로 접근하지 마라.

1. 현재형 선어말 어미 (2)를 붙여본다. Not (3).
2. (4)을 붙여본다.

- 활용: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붙는 것.

Cf. 어간은 (5) 안되는 부분, 어미는 (6) 되는 부분.

1. (7) 없는 (8) 없고, (8) 없는 (7) 없다.
2. 어미

- 선어말 어미: 주로 높임법, 시제 등을 나타낸다. 생략 가능.
- 어말 어미

• 어말 어미

(9): .! ?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10): 명사형 전성 어미 (-음, -기),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는, -ㄹ), 부사형 전성 어미 (X).

(11): -고, -으며, -으면, -으니, -아/어.

개념 6. 규칙활용 불규칙활용

• **규칙 활용**: 어간은 안 바뀌는 부분, 어미는 바뀌는 부분이므로 어간과 어미가 바뀌지 않는 것이 정상!

• **불규칙 활용 *예외**

- 1. 어간 불규칙: (1)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 (샀다버렸으).
- 2. 어미 불규칙: (2)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 (오여러).
- 3. 어간 어미 둘 다 불규칙: (3)의 형태가 모두 바뀌는 경우 ('ㅎ').

•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 (4)를 붙여본다!

개념 7. 합성용언, 본용언, 본+보조용언

- 1. 합성용언은 하나의 단어, 사전에 등재된다. 하나의 단어이므로 무조건 붙여쓴다.
- 2. 본+본용언은 두 개의 단어이므로 반드시 띄어쓴다. (1)를 붙여서 말이 되면 본+본용언.
- 3. 본+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게 원칙, 붙여쓰는 것도 가능. (2)를 붙여서 말이 안 되면 본+보조용언.

02. 품사의 성격

개념 1. 명사

(1) 관형어 (2) 조사 (3) 어미

개념 2. 대명사

(1) '나', '우리' (2) 내 말을 듣고 있는 '너' (3) 나머지 (4) 상대 높임

개념 3. 관계언

(1) 문장성분 (2) 보조사 (3) '되다/아니다' (4) '이/가' (5) 주격 (6) 은/는/도/만/부터/까지/마저/요 (7) 체언 (8) 체언 (9) 부사격조사 (10) 자리 (11) 확정 (12) 용언

개념 4. 수식언

(1) 따로 떼어냈을 (2) 체언 (3) 체언 (4) 활용 (5) 조사

개념 5. 용언

(1) 정의 (2) '-는/ㄴ- 다.' (3) 는, ㄴ, 은 (4) 명령형, 청유형 (5) 대체 (6) 대체 (7) 어간 (8) 어미 (9) 종결어미 (10) 전성어미 (11) 연결어미

개념 6. 규칙활용 불규칙활용

(1) 어간 (2) 어미 (3) 어간, 어미 (4) -으니, -아/어서

개념 7. 합성용언, 본용언, 본+보조용언

(1) -아/어서 (2) -아/어서

03. 형태소와 단어의 구조

개념 1. 형태소

- 형태소: (1), (2)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3)과 (4)로 분석한다.
- 분류
 - 실질 형태소: (5) 혹은 (6)하여 (7)을 구성, 단 (8)은 실질.
→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어간, 어근.
 - 형식 형태소: 실질이 아닌 것. → 어미, 조사, 접사.
 - 자립 형태소: (5) 혹은 (6)하여 (7)을 구성. →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어근.
 - 의존 형태소: 자립이 아닌 것. → (9), 어미, 접사, 조사.
- 형태소 분석하는 방법
 1. (10) 단위로 쪼갬다.
 2. (11)를 쪼갬다.
 3. (12)를 쪼갬다.
 4. (13)를 쪼갬다.

개념 2. 이형태

- ㄱ. 음운론적 이형태: 음운이란 소리를 뜻하는 것으로써 (1), (2)을 의미한다.
- ㄴ. 형태론적 이형태: 예외적인 단어에 한정! (3)에만 '-였-'이 온다.

개념 3. 단일어, 복합어

- AFTER
-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1)과 (2)로 구분한다.
- 단일어: 어근 하나
- 복합어:
 - 합성어: (3) 2개 이상
 - 파생어: (4) 1개 이상
- 판단은 (5)

개념 4. 형태소의 의미 결합 방법

- 합성어의 의미 결합 방법:

1. 대등 합성어: 앞 뒤 단어의 자리를 바꿔서 말이 (1) 경우.
2. 종속 합성어: 앞 뒤 단어의 자리를 바꿔서 말이 (2) 경우.
3. 융합 합성어: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경우이므로 (3)해야 함.

개념 5. 비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4

1. 용언+용언: (1) 없이.
2. 용언+체언: (2) 없이.
3. 부사+체언: (3)가 (4)을 수식.
4. 한자어:

개념 6. 명사형 전성어미와 접사

• 명사형 전성어미 vs 접사

- 공통점: 뒤에 (1)가 올 수 있음.
- 차이점:
 - 명사형 전성어미: 여전히 (2)이므로 (2)의 특징을 가진다. → (3)O, (4)의 수식O.
 - 접사: 파생어이므로 완전 (5)가 된다. → (3)X, (4)의 수식X.

03. 형태소와 단어의 구조

개념 1. 형태소

(1) 합성어 (2) 파생어 (3) 어근 (4) 접사 (5) 단독 (6) 조사와 결합 (7) 하나의 어절 (8) 어간 (9) 어간 (10) 어절 (11) 조사 (12) 어간과 어미 (13) 접사

개념 2. 이형태

(1) 자음 (2) 모음 (3) 하다

개념 3. 단일어, 복합어

(1) 어근 (2) 접사 (3) 어근 (4) 접사 (5) 직접구성요소

개념 4. 형태소의 의미 결합 방법

(1) 되는 (2) 안되는 (3) 암기

개념 5. 비통사적 합성어

(1) 연결 어미 (2) 관형사형 전성어미 (3) 부사 (4) 체언

개념 6. 명사형 전성어미와 접사

(1) 격조사 (2) 용언 (3) 목적어 (4) 부사 (5) 명사

04. 사전 찾기

개념 1. 다의어, 동음이의어, 활용형태, 품사, 문형정보, 용례 등

1. 다의어 –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
2. 동음이의어
3. 활용 형태
4. 품사
5. 문형 정보: (1)와 (2)들을 알려 줌
6. 용례

개념 2. 유의, 반의, 상하관계

1. **유의**: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계
 - 유의관계 특징
 -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범위와 느낌에 따라 바꾸어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2. **반의**: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관계
 - 단, 반의어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이 될 수도 있다.
3. **상하**: 상의어 하의어의 포함 관계
 - 상의어 하의어는 서로 (2)인 관계.
 - (3)가 속성이 더 추가되고, 더 구체적임.

04. 사전 찾기

개념 1. 다의어, 동음이의어, 활용형태, 품사, 문형정보, 용례 등

- (1) 서술어의 자릿수 (2) 필수 성분

개념 2. 유의, 반의, 상하관계

- (1) 여럿 (2) 상대적 (3) 하의어

6

적용 문제

01 품사와 문장성분 비교	48
02 품사의 성격	50
03 형태소와 단어의 구조	57
04 사전 찾기	64

품사의 분류

2017년 7월 13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들을 모아 갈래 지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국어의 품사는 단어의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첫째, 단어는 형태 변화의 여부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인 불변어와, 활용하여 형태가 변하는 말인 가변어로 나뉜다. 둘째, 단어는 문장 속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문장에서 주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관계언,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으로 나뉜다. 셋째, 단어는 개별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대명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는 부사, 앞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조사, 말하는 이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나뉜다.

[A]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그는 모든 원인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렸다.’의 ‘잘못’은 조사와 결합하는 명사이지만, ‘그는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맸다.’의 ‘잘못’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잘못’이 ㉠명사와 부사로 쓰인 것이다. 또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의 ‘만큼’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지만,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만큼’이 ㉡명사와 조사로 쓰인 것이다. 이 밖에도 국어에는 부사와 조사로 쓰이는 경우, 수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와 같이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1. [A]를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 아직까지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 ㉡ 할머니께서 온갖 재료로 만두를 곱게 빚으셨다.
- ㉢ (대화 중) “들어가도 됩니까?” / “네, 어서 오십시오.”

- ① ㉠에서 ‘아무’는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이다.
- ② ㉡에서 ‘온갖’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수식언이다.
- ③ ㉢에서 ‘네’는 말하는 이의 응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④ ㉠과 ㉡에서 조사는 각각 3개씩이다.
- ⑤ ㉠과 ㉡에서 가변어는 각각 2개씩이다.

2022 3월 교육청 37

2.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단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준	분류
㉠	가변어, 불변어
㉡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자, 이제 아래 문장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음,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

학생: [A]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는 ㉠에 따라 분류하면 가변어 한 개, 불변어 네 개를 포함합니다.
- ② ‘나비 하나를’은 ㉡에 따라 분류하면 체언 두 개, 관계언 한 개를 포함합니다.
- ③ ‘음, 우리가 밝은 곳에서 그 나비 하나를 또 잡았어’는 ㉢에 따라 분류하면 아홉 개의 품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 ④ ‘밝은’과 ‘잡았어’는 ㉡이나 ㉢ 중 어느 것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서로 다른 부류로 분류됩니다.
- ⑤ ‘그’와 ‘또’는 ㉡에 따라 분류하면 수식언이고, ㉢에 따라 분류하면 각각 관형사, 부사입니다.

문장 성분

2017학년도 6월 고2 교육청 14

3. <보기>의 수업 상황에서, 밑줄 친 물음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번 시간에는 문장을 구성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분인 주성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성분입니다.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하고,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를 제외하고 조사 '이/가'가 붙은 것을 보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의 주성분에 대해 알아보까요?

- ㄱ. 철수의 동생이 사진을 찍었다.
- ㄴ. 언니는 올해 대학생이 되었다.

- ① ㄱ의 '찍었다'는 '동생'의 동작을 풀이하는 서술어입니다.
- ② ㄴ의 '올해'는 '되었다'가 꼭 필요로 하므로 주성분입니다.
- ③ ㄱ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ㄴ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 ④ ㄱ과 ㄴ에는 주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 ⑤ ㄱ과 ㄴ에는 주성분의 종류가 세 가지씩 있습니다.

2017년 10월 교육청 11

4.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드디어 나도 일을 끝냈다.
- ㉡ 벌써 바깥이 칠흑같이 어둡다.
- ㉢ 신입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 ㉣ 새 컴퓨터가 순식간에 고물이 되었다.

- ① ㉠과 ㉡에서 주어는 명사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 ② ㉠과 ㉢에서 격조사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 주고 있다.
- ③ ㉡과 ㉣에서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이다.
- ④ ㉢과 ㉣에서 주어는 체언 구실을 하는 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 ⑤ ㉣에서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서술어의 영향으로 주어가 두 번 쓰였다.

의존 명사

16 9월 A 13번

5.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국어에서는 의존 명사가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립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 의존 명사: 그 아이는 올해 아홉 살이다.
- 자립 명사: 그는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다.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 친구 다섯 사람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

- ① 이 글에는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
- ② 앉은자리에서 밥 두 그릇을 다 먹었다.
- ③ 시장에서 수박 세 덩어리를 사 가지고 왔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밥을 몇 숟가락 겨우 뜨셨다.
- ⑤ 나는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가 냅다 도망쳤다.

2022 9월 고2 15

6.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자료’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데¹「의존 명사」

「1」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

「2」 ‘일’이나 ‘짓’의 뜻을 나타내는 말.

데²「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는데 「어미」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 ① 밥은 있는데 반찬이 없소.
- ② 지금 가는 데가 어디인 가요?
- ③ 그 사람은 말을 아주 잘하 데.
- ④ 그는 의지 할 데 없는 사람이다.
- ⑤ 책을 다 읽는 데 만 이 틀 이 걸 렀 다.

동사 형용사 구분

2019년 9월 11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 한다.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형태, 기능, 의미’가 있다. ‘형태’는 단어가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에 관한 것이고 ‘기능’은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관련된다. ‘의미’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어 부류가 가지는 추상적인 의미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적용하여 ㉠활용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활용하고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활용하지 않으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활용하지 않으며 앞말에 붙어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말,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 등으로 개별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단어의 품사를 분류할 때에는 분류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대표적인데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사물의 작용의 일종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동사는 의미상 매우 밀접하여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가령 ‘햇살이 밝다’에서의 ‘밝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날이 밝는다’에서의 ‘밝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활용 양상을 내세우기도 한다.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선어말 어미 ‘-ㄴ/는/’관형사형 어미 ‘-는’명령형·청유형 종결 어미,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등과 결합하여 쓰이지 않는다.

다만, ‘있다’의 경우는 품사를 분류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존재’,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형용사로, ‘한 장소에 머뭇’의 의미인 ‘있다’는 동사로 분류되는데, 동사 ‘있다’뿐만 아니라 형용사의 ‘있다’가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형용사 ‘없다’의 경우도 반의어인 형용사 ‘있다’와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여 준다.

7. 다음 문장에서 ㉠ ~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옛날 사진을 보니 즐거운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 ① ‘옛날, 사진, 기억’은 ㉠에 해당하고 명사이다.
- ② ‘보니, 떠올랐다’는 ㉡에 해당하고 동사이다.
- ③ ‘하나’는 ㉢에 해당하고 수사이다.
- ④ ‘을, 가’는 ㉣에 해당하고 조사이다.
- ⑤ ‘즐거움’은 ㉤에 해당하고 관형사이다.

규칙, 불규칙 활용

20 4월 14

8. <보기 1>의 ㉠ ~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용언의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모습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이유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불규칙 활용에는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보기 2>

-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 옷에 흙이 묻었다.
- 나는 동생에게 출발 시간을 일러 주었다.
- 우리는 한라산 정상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 드디어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섬기게 되었다.
- 하늘은 맑고 강물은 파래 기분이 정말 상쾌했다.

- | | | | |
|------------|----------|---------|-----|
| ㉠ | ㉡ | ㉢ | ㉣ |
| ① 묻었다 | 이르러 | 일러, 우러러 | 파래 |
| ② 일러 | 이르러, 파래 | 묻었다 | 우러러 |
| ③ 이르러 | 묻었다, 우러러 | 파래 | 일러 |
| ④ 묻었다, 이르러 | 일러 | 이르러 | 파래 |
| ⑤ 일러, 우러러 | 묻었다 | 파래 | 이르러 |

22 10월 39번

9.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습 활동]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용언의 활용에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다.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을 생각해 보면서 용언의 활용 양상을 설명해 보자.

[예문]

- | | |
|------------------------------|------------------------------------|
| ㉠ 규칙 활용의 예 | ㉡ 불규칙 활용의 예 |
| ㉠ 형은 교복을 <u>입어</u> 보았다. | 꽃이 <u>아름다워</u> 보였다. |
| ㉡ 나는 언니에게 죽을 <u>쑤어</u> 주었다. | 오빠는 나에게 밥을 <u>퍼주</u> 었다. |
| ㉢ 누나는 옷을 벽에 <u>걸어</u> 두었다. | 삼촌은 눈길을 <u>걸어</u> 집에 갔다. |
| ㉣ 동생은 그릇을 <u>씻어</u> 쟁반에 놓았다. | 이 다리는 섬과 육지를 <u>이</u> 어 주는 역할을 한다. |
| ㉤ 우리는 짐을 <u>쌓아</u> 놓았다. | 하늘이 <u>파래</u> 예뻐다. |

- ① ㉠: ㉠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ㅂ'이 달라졌다.
- ② ㉡: ㉠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ㄷ'가 없어졌다.
- ③ ㉢: ㉠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ㄷ'이 달라졌다.
- ④ ㉣: ㉠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ㅅ'이 없어졌다.
- ⑤ ㉤: ㉠에서는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의 'ㅎ'과 어미가 모두 없어졌다.

'국물 떡볶이' 만드는 법

- 떡을 물에 담궈 둔다. (㉠ 담가)
- 멸치를 물에 넣고 끓인 다음 체에 거러서 육수를 준비한다. (㉡ 걸러서)
- 육수에 고추장, 갈은 마늘, 불린 떡, 어묵을 넣는다. (㉢ 간)
- 하엿던 떡이 빨갛게 될 때까지 잘 젓어 익힌다. (㉣ 젓어)

21 수능 13

10. ㉠ ~ ㉣는 잘못된 표기를 바르게 고친 것이다. 고치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에 적용된 용언 활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예쁘- + -어도 → 예뻐도
- ② ㉡: 푸르- + -어 → 푸르러
- ③ ㉢: 살- + -니 → 사니
- ④ ㉣: 동그랗- + -아 → 동그래
- ⑤ ㉤: 굿- + -은 → 그은

보조용언

2015 6월 A 14

11. 다음은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 ~ ㉢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문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 써 보자.
• 열심히 살을 ㉠살아가다.
• 주문한 물건을 ㉡받아가다.
• 딸이 엄마를 ㉢답아가다.

확인 사항
•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
•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도 허용한다.
•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본용언' 구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다.

문제 해결 과정

```

    graph TD
        A["㉠ 살아가다    ㉡ 받아가다    ㉢ 답아가다"] --> B{사전 표제어 실렸나?}
        B -- 예 --> C["㉠"]
        B -- 아니요 --> D{"-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나?"}
        D -- 예 --> E["㉡"]
        D -- 아니요 --> F["㉢"]
    
```

	㉠	㉡	㉢
①	살아가다	받아 가다	답아가다 또는 답아가다
②	살아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답아가다
③	살아가다	받아가다	답아가다
④	살아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답아가다
⑤	살아가다	받아가다	답아가다 또는 답아가다

2019 11 고2 12번 13번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은 홀로 쓰이는 본용언과, 홀로 쓰이지 않고 본용언 뒤에서 본용언에 특수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 용언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이 꺼져 간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꺼져'는 '불이 꺼진다.'라는 문장의 서술어로 홀로 쓰일 수 있으므로 본용언이다. 그러나 '간다'는 진행의 의미만 더해 주고 있어, '불이 간다.'라는 문장의 서술어로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보조 용언이다.

보조 용언은 다시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 용언의 품사는 앞에 오는 본용언의 품사에 따른다. 예를 들어 보조 용언 '않다'는 앞에 오는 본용언의 품사가 동사이면 보조 동사, 형용사이면 보조 형용사로 쓰인다. 한편 보조 용언의 품사가 보조 용언의 의미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보조 용언 '하다'가 앞말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바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조 동사이다. 또한 보조 용언 '보다'가 어떤 일을 경험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조 동사이고,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걱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조 형용사이다.

본용언은 주로 본용언의 어간에 보조적 연결어미가 결합되어 보조 용언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나는 일을 하고 나서 집에 갔다.'라는 문장은 본용언의 어간 '하-'에 보조적 연결어미 '-고'가 결합된 '하고'가 보조 용언 '나서'와 연결된 문장이다. 그리고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연결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보통 두 용언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미의 추가를 위해 세 용언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용언들이 ㉠본용언, 본용언, 보조 용언의 순서로 연결된 경우, ㉡본용언, 보조 용언, 본용언의 순서로 연결된 경우, ㉢본용언, 보조 용언, 보조 용언의 순서로 연결된 경우가 있다.

12. <보기>의 ㉠ ~ ㉢를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분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내일 해야 할 업무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겠다.
- 나는 부모님께 야단맞을까 ㉡봐 얘기도 못 꺼냈다.
- 일을 마무리했음에도 사람들은 집에 가지 ㉢않았다.
- 새로 일할 사람이 업무 처리에 항상 성실했으면 ㉣한다.
- 이런 일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 심정을 모를 것이다.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3. 밑줄의 ㉠ ~ ㉡와 관련하여 <보기>의 ㉢ ~ ㉤의 밑줄 친 부분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1>

- ㉢ 그는 순식간에 사과를 던져서 베어 버렸다.
- ㉣ 그는 식당에서 고기를 먹어 치우고 일어났다.
- ㉤ 그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가 깨어 있어 행복했다.
- ㉠ 나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게 생겼다.
- ㉡ 나는 평소 밥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갑자기 빵을 먹고 싶게 되었다.

- ① ㉢: ‘베어’는 어간 ‘베-’에 보조적 연결어미 ‘-어’가 결합되어 ‘버렸다’와 연결된 형태이고 ㉠에 해당한다.
- ② ㉣: ‘치우고’는 어간 ‘치우-’에 보조적 연결어미 ‘-고’가 결합되어 ‘일어났다’와 연결된 형태이고 ㉡에 해당한다.
- ③ ㉤: ‘깨어’는 어간 ‘깨-’에 보조적 연결어미 ‘-어’가 결합되어 ‘있어’와 연결된 형태이고 ㉡에 해당한다.
- ④ ㉠: ‘앉아’는 어간 ‘앉-’에 보조적 연결어미 ‘-아’가 결합되어 ‘있게’와 연결된 형태이고 ㉢에 해당한다.
- ⑤ ㉡: ‘먹고’는 어간 ‘먹-’에 보조적 연결어미 ‘-고’가 결합되어 ‘싶게’와 연결된 형태이고 ㉢에 해당한다.

2020 4월 15

14.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보조 용언도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본용언에 조사가 붙거나 본용언이 합성 용언인 경우,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붙여 쓰지 않는다. 그런데 본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그 활용형이 2음절인 경우에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리고 본용언 뒤에 보조 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본용언에 붙여 쓸 수 있다.

<보기2>

- 그가 이 자리를 ㉠빛내 준다.
- 오늘 일은 일기에 ㉡적어 둘 만하다.
- 나는 어제 그 책을 ㉢읽어는 보았다.
- 아마도 이런 기회는 ㉣다시없을 듯하다.
- 이번에는 제발 열심히 ㉤공부해 보아라.

- ① ㉠은 본용언이 합성어이지만 활용형이 2음절인 경우이므로 ‘빛내’와 ‘준다’를 붙여 쓸 수 있다.
- ② ㉡은 본용언 뒤에 보조 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이므로 ‘들’과 ‘만하다’를 붙여 쓸 수 있다.
- ③ ㉢은 본용언에 조사가 붙은 경우이므로 ‘읽어는’과 ‘보았다’를 붙여 쓰지 않는다.
- ④ ㉣은 본용언이 합성 용언인 경우이므로 ‘다시없을’과 ‘듯하다’를 붙여 쓰지 않는다.

- ⑤ ㉤은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이므로 ‘공부해’와 ‘보아라’를 붙여 쓰지 않는다.

어미

2022 4월 37

15.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1>

연결 어미 ‘-고’의 쓰임은 다양하다. 먼저 ㉠앞 절과 뒤 절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앞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나, ㉢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보기2>

- 그들은 서로 손을 쥐고 팔씨름을 했다. (a)
- 어머니는 나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b)
- 나는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c)
- 눈 깜짝할 사이에 다리가 벌레 쏘이고 통통 부었다. (d)
- 그 책은 내가 읽을 책이고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e)

- ① ㉠: a, c ② ㉡: b, e ③ ㉢: d, e
- ④ ㉣: a, b ⑤ ㉤: c, d

2017 9월 13

16. <보기>의 ㉠ ~ ㉡에 쓰인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활용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다시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용언의 활용형에서 선어말 어미는 없는 경우가 있어도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 민수가 그 나무를 심었구나!
- ㉡ 저기서 청소하는 아이가 내 동생이야.
- ㉢ 그 친구가 설마 그 음식을 다 먹었겠니?
- ㉣ 그가 나에게 권한 책은 이미 읽은 책이다.
- ㉤ 주말에 바람은 불겠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 ①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로 쓰였고,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가 ㉣로 쓰였다.
- ② ㉡에는 ㉢는 없고 동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로 쓰였다.

- ③ ㉔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있-’과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겠-’이 ㉑로 쓰였고, 의문형 종결 어미 ‘-니가’ ㉒로 쓰였다.
- ④ ㉕에는 ㉑는 없고 동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이 ㉒로 쓰였다.
- ⑤ ㉖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겠-’이 ㉑로 쓰였고,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이’ ㉒로 쓰였다.

17 3월 11번

17. <보기>의 ㉑, ㉒가 사용된 예를 ㉓ ~ ㉕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보기>

선생님 : 여러분이 헛갈려 하는 것들 중 ㉑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명사형 어미 ‘-(으)르’, ‘-기’와 ㉒어근과 결합하여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음’, ‘-기’가 있어요. 전자는 용언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며, 전자가 결합해 활용된 용언은 서술하는 기능이 유지되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한편 후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 세상은 홀로 ㉓살기가 어렵다.
- 형은 충분히 ㉔잘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 날씨가 더워 시원한 ㉕얼음이 필요하다.
- 우리에게 건전한 ㉑놀이 문화가 필요하다.
- 이곳은 풍경이 매우 ㉒아름답기로 유명하다.

- | | ㉑ | ㉒ |
|---|---------|---------|
| ① | ㉓, ㉔ | ㉕, ㉑, ㉒ |
| ② | ㉓, ㉒ | ㉔, ㉕, ㉑ |
| ③ | ㉕, ㉑ | ㉓, ㉔, ㉒ |
| ④ | ㉓, ㉔, ㉒ | ㉕, ㉑ |
| ⑤ | ㉔, ㉕, ㉑ | ㉓, ㉒ |

수식언

17 11월 고2 13

1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부사는 수식하는 범위에 따라 문장의 한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로 나뉜다, 이 중 성분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때로는 체언을 수식하거나 관형사,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 ㉑. 그녀는 매우 빨리 달린다.
- ㉒. 설마 나에게 맞는 옷이 없을까?
- ㉓.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우체국이 있다.
- ㉔. 내 차는 얼마 전까지 아주 새 차였다.
- ㉕. 과연 그 아이는 재능이 정말 뛰어나군.

- ① ㉑에서 '매우'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 ② ㉒에서 '설마'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다.
- ③ ㉓에서 '바로'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다.
- ④ ㉔에서 '아주'는 관형사를 수식하고 있다.
- ⑤ ㉕에서 '과연'과 '정말'은 문장을 수식하고 있다.

조사

22 6월 고2 11~12

조사는 일반적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의존 형태소로서,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로 나눌 수 있다.

격 조사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게 해 주는 조사로서,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 서술격, 보격, 호격 조사로 나눌 수 있다. 주격 조사는 '이/가, 에서' 등으로, 체언이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며, 목적격 조사는 '을/를'로, 체언이 목적어의 자격을 가지게 한다. 관형격 조사는 '의'로, 체언이 관형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며, 부사격 조사는 '에, 에게, 에서, (으)로, 와/과' 등으로, 체언이 부사어의 자격을 가지게 한다. 보격 조사는 '이/가로,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체언이 보어의 자격을 가지게 한다. 서술격 조사는 '이다'로 체언이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고, 호격 조사는 '아/야, (이)시여' 등으로 체언이 호칭어가 되게 하는 조사이다.

접속 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로 '와/과'가 대표적이며 '하고, (이)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덧붙여 주는 조사로 '도, 만, 까지, 요' 등이 속한다. 보조사는 체언 뒤는 물론이고, 여러 문장 성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다.

조사는 서로 겹쳐 쓰기도 하는데, 이를 **조사의 중첩**이라 한다. 그러나 겹쳐 쓸 때 순서가 있다.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관형격 조사는 서로 겹쳐 쓸 수 없으나 보조사와는 겹쳐 쓸 수 있는데, 대체로 보조사의 뒤에 쓴다. 부사격 조사는 부사격 조사끼리 겹쳐 쓸 수 있고 다른 격 조사나 보조사와도 겹쳐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격 조사나 보조사의 앞에 쓴다. 보조사는 보조사끼리 겹쳐 쓸 수 있고 순서도 자유로운 편이지만, 의미가 모순되는 보조사끼리는 겹쳐 쓰기 어렵다.

19. 밑글을 바탕으로 밑줄 친 부분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가 오는데 바람까지 분다.'의 '까지'는 다시 그 위에 더한다는 의미를 가진 보조사이다.
- ② '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닮았다.'의 '와'는 '어머니'와 '닮았다'를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 ③ '우리 동아리에서 학교 축제에 참가하였다.'의 '에서'는 단체 명사 뒤에 쓰이는 주격 조사이다.
- ④ '신이시여, 우리를 보살피소서.'의 '이시여'는 어떤 대상을 정중하게 부를 때 쓰는 호격 조사이다.
- ⑤ '철수는요 밥을요 먹어야 하거든요.'의 '요'는 다양한 문장 성분의 뒤에 쓰여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20. ㉠ ~ ㉣을 통해 **조사의 중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길을 걷다가 철수가를* 만났다.
 ㉡ 그 말을 한 것이 당신만이(당신이만*) 아니다.
 ㉢ 그녀는 전원에서의(전원의에서*) 여유로운 삶을 꿈꾼다.
 ㉣ 모든 관심이 나에게로(나로에게*) 쏟아졌다.
 ㉤ 빵만도* 먹었다.

*는 비문 표시임.

- ① ㉠에서는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는 겹쳐 쓸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에서는 보조사와 보격 조사가 결합할 때 보격 조사가 뒤에 쓰였군.
- ③ ㉢에서는 부사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가 결합할 때 관형격 조사가 뒤에 쓰였군.
- ④ ㉣에서는 부사격 조사와 보조사가 결합할 때 부사격 조사가 보조사 앞에 쓰였군.
- ⑤ ㉤에서는 유일함을 뜻하는 '만'과 더함을 뜻하는 '도'의 의미가 모순되어 겹쳐 쓰기 어렵군.

20 6월 고2 11~12

국어에는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가 있는데, 이를 조사라고 한다.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로 분류한다.

격 조사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 준다. ‘이/가’와 같이 문장 안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주격 조사도 있고, ‘을/를’과 같이 목적어가 되게 하는 목적격 조사도 있다. 또 ‘의’와 같이 관형어가 되게 하는 관형격 조사도 있고, ‘이/가’와 같이 ‘되다’, ‘아니다’와 함께 쓰여 보어가 되게 하는 보격 조사도 있다. 그밖에 ‘에’, ‘에서’, ‘(으)로’, ‘와/과’, ‘보다’처럼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부사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부사격 조사와 ‘아/야’와 같이 독립어 가운데 부름말이 되게 하는 호격 조사 등도 격 조사에 속한다. 특히 체언에 붙어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이다’는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데, 마치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보조사는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구실을 한다. 보조사에는 ‘은/는’, ‘도’, ‘만’, ‘까지’, ‘마저’, ‘조차’, ‘부터’ 따위가 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에 쓰인 ‘은’은 체언에 붙어서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또 ‘고구마는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는다.’에 쓰인 ‘도’는 활용 어미 뒤에 붙어서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접속 조사는 둘 이상의 단어나 구 따위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접속 조사에는 ‘와/과’, ‘하고’, ‘(이)나’, ‘(이)랑’ 등이 있다. ‘배하고 사과하고 감을 가져오나라.’에 쓰인 ‘하고’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그런데 **㉠**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문장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사 ‘가’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앞말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를’은 앞말이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앞말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또 ‘에’는 앞말이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과’는 앞말이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두 단어나 문장 따위를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또 ‘에서’는 앞말이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2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그는 보통 인물인 아니다.
- ㉡ 철수야, 내일이 무슨 날이니?
- ㉢ 이번에 성적이 많이도 올랐구나!
- ㉣ 언니가 동생의 간식을 만들고 있다.
- ㉤ 백화점에 가서 구두랑 모자랑 샀어요.

- ① ㉠의 ‘이’는 체언인 ‘인물’에 붙어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
- ② ㉡의 ‘이니’는 체언인 ‘날’에 붙어 서술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
- ③ ㉢의 ‘도’는 부사인 ‘많이’에 붙어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구실을 한다.
- ④ ㉣의 ‘의’는 체언인 ‘동생’에 붙어 관형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
- ⑤ ㉤의 ‘랑’은 ‘구두’와 ‘모자’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22. 밑줄 친 조사 중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방이 깨끗하지**㉠** 않다.
친구**㉠**마저 미덥지**㉠** 못하다.
- ② 그녀는 장미를 좋아한다.
그는 도서관에서 잡지**㉠**를 읽었다.
- ③ 그는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다.
그**㉠**까짓 일**㉠**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라.
- ④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놀았다.
그는 다섯 살 아래의 여성**㉠**과 결혼했다.
- ⑤ 너는 부산**㉠**에서 몇 시에 출발할 예정이냐?
우리 학교**㉠**에서 올해도 우승을 차지했다.

단어와 형태소

2021 9월 12~13

사전의 뜻풀이 대상이 되는 표제 항목을 '표제어'라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에는 붙임표 '가 쓰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붙임표는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 띄어쓰기, 어원 및 올바른 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사와 어미처럼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언제나 다른 말과 결합해야 하는 표제어에는 다른 말과 결합하는 부분에 붙임표가 쓰인다. 접사 '질'과 연결 어미 '으니'가 이러한 예이다. 다만 조사도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단어이므로 그 앞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용언 어간도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어미 '다'와 결합한 기본형이 표제어가 되고, 용언 어간과 어미 '다' 사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둘째, 둘 이상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표제어에는 가장 나중에 결합한 구성 성분들 사이에 붙임표가 한 번만 쓰인다. '이등분선'은 '이', '등분', '선'의 세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이 복합어의 표제어 '이등분선'에서 붙임표는 '이등분'과 '선'이 가장 나중에 결합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복합어의 붙임표는 구성 성분들을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는 점도 알려 준다.

한편 '무덤', '노름', '이따가'처럼 기원적으로 두 구성 성분이 결합한 단어이지만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나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본 뜻과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소리대로 적는 단어들은 구성 성분들이 원래 형태의 음절로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무덤'의 접미사 '엄'은 현대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어근 '묻'과 접미사 '엄'이 결합한 '무덤'은 소리대로 적고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엄'과 비슷한 접미사에는 '엄', '역', '우' 등이 있다.

'노름'은 어근 '놀'의 본뜻만으로는 그 의미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조금 지난 뒤에'를 뜻하는 '이따가'도 어간 '있'의 본뜻과 멀어졌다. 따라서 '노름'과 '이따가'는 소리대로 적고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

23.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맨발'에서 분석되는 접두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맨'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나만 비를 맞았다'에서 쓰인 격 조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를'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저도 학교 앞에 삽니다'에서 쓰인 동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살다'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앞과 '집'이 결합한 단어를 '앞 집'처럼 띄어 쓰면 안 된다는 정보를 표제어 '앞-집'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논둑'과 '길'이 결합한 '논둑길'의 구성 성분이 '논', '둑', '길'이라는 정보를 표제어 '논-둑-길'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24. <보기>의 [자료]에서 ㉠에 해당하는 단어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자료]는 '조차', '자주', '차마', '부터'가 쓰인 문장과 이 단어들의 어원이 되는 용언이 쓰인 문장의 쌍들이다.

[자료]

나조차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없었다.
 동생도 누나의 기발한 생각을 좨었다.
 누나는 휴일에 이 책을 자주 읽었다.
 동생은 늦잠 때문에 지각이 좨었다.
 나는 차마 그의 눈을 볼 수 없었다.
 언니는 쏟아지는 졸음을 잘 참었다.
 그 일은 나부터 모범을 보여야 했다.
 부원 모집 공고문이 게시판에 붙었다.

- ① 자주, 부터 ② 차마, 부터 ③ 조차, 자주, 차마
- ④ 조차, 차마, 부터 ⑤ 조차, 자주, 차마, 부터

형태소 분류

176월 고2 11~12

'형태소'는 단어를 분석한 단위이며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형태소는 뜻의 성격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고,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1) 사과를 먹었다.

(1)은 '사과, 를, 먹었다'의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사과'의 경우, 단어를 나누면 '사'와 '과'로 쪼개어지는데 각각은 뜻이 없다. 따라서 '사과'는 뜻을 가진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이므로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

'먹었다'의 경우, '먹-'의 자리에 '쥬-'을 넣는다면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먹었다'라는 단어가 '음식 등을 입을 거쳐 배 속으로 들여보내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먹-' 때 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었-' 자리에 '-는-'을 넣으면 먹는 행위가 이루어진 때가 '현재'로 달라지므로 '-었-'이 '과거'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다' 자리에 '-고'를 넣으면 '먹었고'가 되어서 그 뒤에 문장이 이어짐을 나타내므로 '-다'가 문장 종결의 뜻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단어 '먹었다'는 '먹-', '-었-', '-다'라는 세 개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다.

이 때 '-었-'이나 '-다'는 '먹-'과 달리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형식 형태소에는 '-었-', '-다'와 같은 어미뿐만 아니라 '를'과 같은 조사, 어근의 앞뒤에 붙어 뜻을 더하거나 단어의 성질을 바꾸는 접사가 있다. 반면에 '사과', '먹-'처럼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뜻을 지닌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한다.

(1)의 형태소 중 '사과'는 다른 말에 기대지 않고 자립해서 쓰일 수 있지만, '를'은 '사과'에 붙어야 쓰일 수 있고, '먹-', '-었-', '-다'는 서로 기대어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사과'처럼 자립하여 쓸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를', '먹-', '-었-', '-다'처럼 다른 말에 기대어 사용되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1)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 사과 / 를 / 먹 / 었 / 다
- 실질 형식 실질 형식 형식
-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의존

25.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태소를 더 작게 쪼개면 뜻이 사라진다.
- ② 의존 형태소만으로도 단어를 형성할 수 있다.
- ③ 형태소 하나가 단어 하나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 ④ 형태소 중에는 문법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것도 있다.
- ⑤ 실질적인 뜻을 지닌 형태소는 모두 자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26.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그가 풀밭을 맨발로 뒀다.

- ① '풀밭'은 '풀' 대신 '꽃'을 넣거나 '밭' 대신 '빛'을 넣으면 단어의 뜻이 달라지므로 '풀'과 '밭'으로 나눌 수 있다.
- ② '맨발'의 '맨'은 '발'과 결합하여 뜻을 더하는 기능을 하므로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 있다.
- ③ '뒀다'의 '-느-' 대신에 '-었-'을 넣으면 동작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므로 '-느-'을 하나의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
- ④ 다른 말에 기대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의 개수는 모두 4개이다.
- ⑤ 실질적인 뜻을 없고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의 개수는 모두 5개이다.

2020 9월 14

27. <보기>의 ㉠과 ㉡을 모두 충족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붙잡다'의 어간 '붙잡-'은 어근 '붙-'과 어근 '잡-'으로 나뉘고, '잡히다'의 어간 '잡히-'는 어근 '잡-'과 접사 '-히-'로 나뉜다. 이렇듯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말을 합성어라 하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는 말을 파생어라 한다.

그런데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이때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면 합성어이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면 파생어이다. 예컨대 '떨어붙이다'는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므로 합성어이다.

- ① 밤새 거센 비바람이 내리쳤다.
- ②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 ③ 차바퀴가 진흙 바닥에서 헛돌았다.
- ④ 거리에는 매일 많은 사람이 오간다.
- ⑤ 그들은 끊임없이 짓밟혀도 굴하지 않았다.

2023 6월 38

2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활동>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와 의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자립성의 유무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의미의 유형			
실질 형태소		㉠	㉡
형식 형태소	X		㉢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 ㉡, ㉢으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해 보자.

우리는 비를 맞고 바람에 맞서다가 드디어 길을 찾아냈다.

- ① ‘우리는’의 ‘우리’와 ‘드디어’는 ㉡에 속한다.
- ② ‘비를’와 ‘길을’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③ ‘맞고’의 ‘맞’과 ‘맞서다가’의 ‘맞’은 모두 ㉢에 속한다.
- ④ ‘바람에’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 ⑤ ‘찾아냈다’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2019 3월 13

29.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 지난 시간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공부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에서 ㉠, ㉡, ㉢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자료]

- 이 문제는 나한테 묻지 말고 그에게 물어라. ㉠
- 귀로는 음악을 들었고 눈으로는 풍경을 보았다. ㉡
- 나는 산으로 가자고 했지만 동생은 바다로 갔다. ㉢

- ①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② 공통점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만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 ③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④ 공통점은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⑤ 공통점은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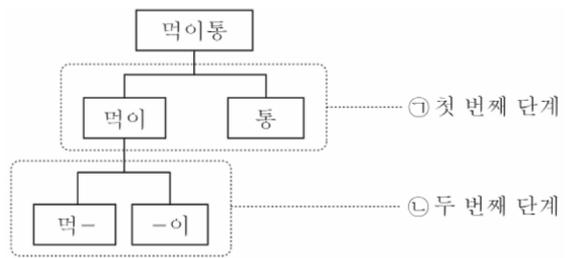
복합어(합성어, 파생어)

2021 11월 고2 13

30. <보기>에 따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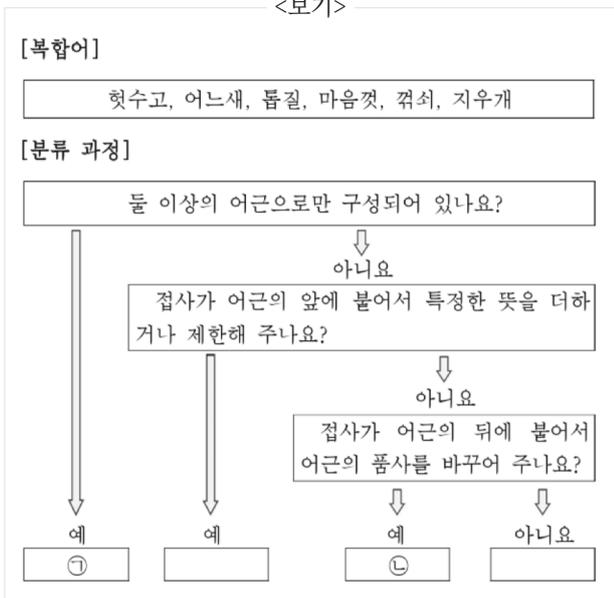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구성 요소 각각을 일컫는다. ‘먹이통’과 같이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두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근 ‘먹이’와 어근 ‘통’으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먹이’를 어근 ‘먹’과 접사 ‘-이’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잡하게 이루어진 단어의 짜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① ‘울음보’는 ㉠에서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고, ㉡에서 어근과 접사로 분석된다.
- ② ‘헛웃음’은 ㉠에서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고, ㉡에서 어근과 접사로 분석된다.
- ③ ‘손목뼈’는 ㉠에서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고, ㉡에서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된다.
- ④ ‘얼음길’은 ㉠에서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고, ㉡에서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된다.
- ⑤ ‘물놀이’는 ㉠에서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고, ㉡에서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된다.

2022 10월 37

31. <보기>의 '복합어'를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과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 | ㉠ | ㉡ |
|---|-------------|----------|
| ① | 어느새, 꺾쇠 | 마음껏, 지우개 |
| ② | 헛수고, 어느새 | 지우개 |
| ③ | 톱질, 꺾쇠 | 헛수고, 마음껏 |
| ④ | 톱질, 마음껏, 꺾쇠 | 헛수고 |
| ⑤ | 어느새, 톱질, 꺾쇠 | 지우개 |

2022 9월 고2 14

32. <보기1>의 ㉠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1>

합성어는 명사와 명사의 결합,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의 결합, 부사와 용언의 결합처럼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우리말의 어순이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통사적 합성어와 용언의 어간과 명사의 결합, 용언의 어간에 용언의 어간이 직접 결합한 것처럼 우리말의 어순이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보기2>

뿔밥, 돌다리, 하얀색, 높푸르다, 잘생기다

- ① 돌다리, 높푸르다
- ② 뿔밥, 돌다리, 하얀색
- ③ 뿔밥, 하얀색, 높푸르다
- ④ 돌다리, 하얀색, 잘생기다
- ⑤ 돌다리, 하얀색, 높푸르다, 잘생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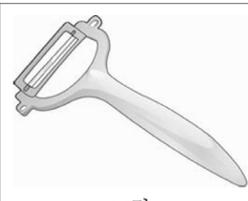
2018 3월 13번

33.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한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 모둠별로 <그림>의 대상을 지칭하는 새말을 만드는 활동을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든 새말들의 단어 구조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 모둠 활동 결과



	새말
㉠	오이칼, 꺾질칼
㉡	감작감작칼, 사각사각칼
㉢	까개, 깎개
㉣	굵도구, 밀도구
㉤	박박이, 쓱쓱이

<그림>

- ① ㉠은 명사 어근들을 결합하여 만든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② ㉡은 부사 어근과 명사 어근을 결합하여 만든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③ ㉢은 동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 ④ ㉣은 명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 ⑤ ㉤은 부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접사

2019 6월 고2 14

34. <보기>의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접두사는 단어의 앞에 붙어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다. ㉠접두사가 명사에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도 있고, ㉡접두사가 용언에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도 있다. ㉢특정한 접두사는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대개의 접두사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만, ‘찰-/차-’가 붙어 만들어진 ‘찰옥수수’, ‘차조’처럼 ㉣주위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다른 접두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도 있다.

- ① ㉠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군기침, 군살’이 있다.
- ② ㉡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빗나가다, 빗맞다’가 있다.
- ③ ㉢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헛디디다, 헛수고’가 있다.
- ④ ㉣, ㉣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로는 ‘새빨갳다, 셋노랑다’가 있다.
- ⑤ ㉣, ㉣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로는 ‘수평, 솟양’이 있다.

2021 3월 35

35.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 형용사 형성 파생법은 크게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과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은 ㉠형용사 어근 앞에 뜻을 더하는 접사가 붙은 것이고,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은 대체로 ㉡명사 어근 뒤에 어근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접사가 붙은 것입니다. 그럼 아래를 참고하여, [학습 활동]을 해결해 볼까요?

[접두사] 새, 시
[접미사] -롭다, -되다, -답다, -스럽다

[학습 활동] 다음에서 ㉠,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보자.

나는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바로 코끝에서 시퍼런 바닷물이 철썩거리고 있었다. 늘 걷던 길이 오히려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여기 머문 지도 어느새 삼 년이 되어 간다. 돌이켜 보면 복된 나날이었다. 이웃들과 매일 정답게 인사를 주고받았으며, 어디서든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 ① ‘시퍼런’은 접두사 ‘시’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② ‘새롭게’은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③ ‘복된’은 접미사 ‘-되다’가 명사 어근 뒤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④ ‘정답게’는 접미사 ‘-답다’가 명사 어근 뒤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⑤ ‘사랑스러운’은 접미사 ‘-스럽다’가 명사 어근 뒤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통사 비통사 합성어

2022 수능 예시 35 ~ 36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과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 둘 이상의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것,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 주어나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결합하는 것, ㉡ 명사나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 등은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어근들이 결합한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따라서 ‘산나물’, ‘바로잡다’는 통사적 합성어이고 ‘뽕죽구두’, ‘높푸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르면, 합성어는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로 나뉜다. 대등 합성어는 ‘높푸르다’처럼 두 어근의 의미가 동등한 관계를 보이는 합성어이다. 종속 합성어는 ‘산나물’처럼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을 의미상 수식하는 합성어이다.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이들 합성어의 의미를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어근들의 의미만으로는 합성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를 따지기 힘든 합성어를 융합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는 ‘손을 내밀어 그 모양에 따라 순서나 승부를 정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융합 합성어이다.

그런데 여러 의미를 가지는 합성어는 그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합성어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찬밥’은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종속 합성어이고, ‘중요하지 아니한 하찮은 인물이나 사물’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융합 합성어이다.

이처럼 의미에 따라 합성어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 어근 간의 의미 관계, 그중에서도 상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찬밥’은 의미상 ‘밥’에 포함되므로 ‘밥’의 하의어이고, 이러한 의미 관계를 보이는 ‘찬밥’은 종속 합성어이다. 그러나 ‘찬밥’이 융합 합성어일 때에는 ‘찬밥’과 ‘밥’이 상하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논밭’과 같은 대등 합성어도,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 어근이 상하 관계를 맺지 않는다.

36. ㉠, ㉡에 해당하는 예끼리 짝지어진 것은?

	㉠	㉡
①	먹고살다	새색시
②	뛰놀다	먹거리
③	갈라서다	척척박사
④	걸어오다	큰아버지
⑤	빛나다	빛나다

37.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나는 그저께 막내딸을 보름만에 만났다.

㉡ 바깥에 오래 있었더니 손발이 차가워졌다.

㉢ 며칠째 밤낮이 바뀐 날이 계속되고 있다.

㉣ 시간만 잡아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가을이 되자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갔다.

- ① ㉠의 ‘막내딸’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딸’의 하의어가 아니므로 대등 합성어이겠군.
- ② ㉡의 ‘손발’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발’의 하의어이므로 종속 합성어이겠군.
- ③ ㉢의 ‘밤낮’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융합 합성어이겠군.
- ④ ㉣의 ‘잡아먹는’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고, ‘먹다’의 하의어가 아니므로 대등 합성어이겠군.
- ⑤ ㉤의 ‘날아갔다’는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가다’의 하의어이므로 종속 합성어이겠군.

대립 종속 융합

18 11월 고2 11~12

합성어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되어 형성된 단어를 말하는데, 분류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합성 명사, 합성 부사, 합성 동사 등과 같이 합성어의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꽃’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고, ‘곧잘’은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힘쓰다’는 명사와 동사가 결합한 합성 동사이다.

둘째,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와 같이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등 합성어는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앞뒤, 오르내리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속 합성어는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을 수식하는 구조로,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에 의미상 종속되어 있는 합성어이다. ‘돌다리, 산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융합 합성어는 어근들이 결합하면서 각 어근이 본래 갖고 있던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갖는 합성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그분께 춘추(春秋)를 여쭙어 보았다.’에서 ‘춘추(春秋)’는 ‘봄’과 ‘가을’이라는 기존의 의미에서 벗어나 ‘어른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로 사용된 것이다.

셋째, 어근의 결합 방식이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과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할 수 있다. 통사적 합성어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산나물’,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실록샐룩’,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그만두다’, 연결어미에 의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결합한 ‘뛰어가다’ 등과 같이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을 따른 합성어를 말한다. 반면 비통사적 합성어는 용언의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쩍깎’, 연결어미 없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한 ‘끓주리다’, 부사와 명사가 결합한 ‘척척박사’ 등과 같이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를 말한다.

3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농부들이 ㉠피땀으로 일군 ㉡논밭에 가을이 왔다.
- 이 ㉢봄비가 그치고 여름이 오면, 포도가 ㉣송이송이 영글어 갈 것이다.

- ① ㉠은 두 어근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노력과 수고’라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융합 합성어이다.
- ② ㉡은 합성 명사로,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에 의미상 종속되어 있다.
- ③ ㉠과 ㉡은 모두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이며, 두 합성어의 품사는 동일하다.
- ④ ㉢과 ㉣은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 관계가 다른 합성어이지만, 두 합성의 품사는 동일하다.
- ⑤ ㉢과 ㉣은 모두 결합한 어근들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합성어이지만, 두 합성어의 품사는 다르다.

39. 다음은 [A]와 관련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결합방식	구분	다른 예
또다시 →또+다시	㉠	통사적 합성어	㉡
첫사랑 →첫+사랑	관형사와 명사의 결합	㉢	왼쪽
붙잡다 →붙+잡다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	㉣	㉤

- ① ㉠에는 ‘부사와 부사의 결합’이 들어가겠군.
- ② ㉡에는 ‘하루빨리’를 넣을 수 있겠군.
- ③ ㉢에는 ‘통사적 합성어’가 들어가겠군.
- ④ ㉣에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들어가겠군.
- ⑤ ㉤에는 ‘군세다’를 넣을 수 있겠군.

사전 활용하기

2016 수능 AB 14

40.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가치]

1 [목]

-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2 [조]

①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 새벽같이 떠나다

같이-하다[가치-][㉠] [(...과)....을]

①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함께하다①.

▶ 친구와 침식을 같이하다/평생을 같이한 부부
 ②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
 =함께하다②.
 ▶ 그와 의견을 같이하다/견해를 같이하다

- ① '같이'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이로군.
- ② '같이'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같이[2]①'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같이하다'는 '같이'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같이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 ⑤ '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같이한'은 '함께한'으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2018 4월 13

41. <보기 1>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 2>의 ㉠ ~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 1. 밖 [명사]
 「1」어떤 선이나 금을 넘어선 쪽. ▶ 이 선 밖으로 나가시오.
 「2」겉이 되는 쪽. 또는 그런 부분. ▶ 옷장 안은 깨끗했으나, 밖은 굵은 자국으로 엉망이었다.
 「3」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
 ▶ 예상 밖으로 일이 복잡해졌다.
- 2. 밖에 [조사]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
- 3. 뜻밖-에 [부사]
 생각이나 기대 또는 예상과 달리. ≒의외로.
 ▶ 아버지께 여행을 가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뜻밖에도 흔쾌히 허락하셨다.

<보기 2>

출입문 ㉠밖 복도는 시끌시끌하다. 이런 생기를 느낄 수 있는 날도 ㉡며칠 밖에 남지 않았다. 졸업이 가까워지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아쉬움이 더 크다. 추억이 많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졸업 후 주어질 ㉤기대 밖의 선물 같은 시간들을 그려 보며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해야겠다.

- ① ㉠은 <보기 1>의 1「1」의 의미로 쓰인 것이군.
- ② ㉡은 <보기 1>의 2가 사용되었으므로 '며칠'과 '밖에'를 붙여 써야겠군.
- ③ ㉢은 <보기 1>의 3이 사용되었으므로 '의외로'라고 바꿔 쓸 수 있겠군.
- ④ ㉣은 <보기 1>의 1「2」의 의미이므로 '수'와 '밖에'를 띄어 써야겠군.
- ⑤ ㉤은 <보기 1>의 1「3」의 용례로 추가할 수 있겠군.

2019 4월 15

42. <보기 1>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을 위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 2>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지1 「의존명사」
(어미 ‘-은’ 뒤에 쓰여)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

-지2 「어미」
「1」(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으시’, ‘-았’ 뒤에 붙어) 그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 ‘않다’, ‘못하다’, ‘말다’ 따위가 뒤따른다.
「2」상반되는 사실을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연결 어미.

-지3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 어간이나 어미 ‘-으시’, ‘-았’, ‘-겠’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묻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서술, 의문, 명령, 제안 따위로 두루 쓰인다.

<보기2>

- 내일은 비가 오겠지? ㉠
- 눈길을 걷은 지도 꽤 오래되었지. ㉡
- 친구 사이는 대등한 관계이지 종속 관계가 아니다. ㉢
-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

- ① ㉠은 어떤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보기 1>의 ‘-지2「1」’에 해당하겠군.
- ② ㉡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보기 1>의 ‘지1’에 해당하겠군.
- ③ ㉢은 ‘-았-’ 뒤에 붙어 쓰인 종결 어미에 해당하므로 <보기 1>의 ‘-지3’에 해당하겠군.
- ④ ㉣은 상반되는 사실을 서로 대조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 <보기 1>의 ‘-지2「2」’에 해당하겠군.
- ⑤ ㉣은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고 ‘마시오’가 뒤따르는 것으로 보아 <보기 1>의 ‘-지2「1」’에 해당하겠군.

2016 3월 고2 14

43.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우연 ㉠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 우연의 일치
「반」 필연01.

우연-적 ㉡ 아무런 인과 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다. 또는 그런 것.
◀ 우연적 만남/우연적 사건 //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

우연-하다 ㉢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다.
◀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다.

우연-히 ㉣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게.
◀ 동생의 비상금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 ① ‘우연’의 뜻풀이와 반의어를 보니, ‘우연적’의 반의어로 ‘필연적’이 존재할 수 있겠군.
- ② ‘우연적’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그들의 만남은 우연적이었다.’의 ‘우연적’은 관형사에 해당하겠군.
- ③ ‘우연하다’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우연하다’의 용례로 ‘우연한 계기’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우연’과 ‘우연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우연하다’는 ‘우연’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⑤ ‘우연하다’와 ‘우연히’의 뜻풀이 및 용례를 보니,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다.’의 ‘우연하게’는 ‘우연히’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2019 3월 14

44. 사전 자료의 일부인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쓰임을 탐구한 학습지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L-「어미」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

-L-「어미」
❑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 또는 말하는 이가 상정한 기준 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 이것은 털실로 짠 옷이다.
❑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
❑ 누나는 유명한 성악가이다.

<학습지>

각 질문에 대해 ‘예’는 ○, ‘아니요’는 ×로 표시하시오.

질문	-L-	-L		
		①	②	
○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있는가?	○	×	×	...㉠
○ 어미 ‘-(으)시-’ 뒤에 붙을 수 있는가?	○	○	○	...㉡
○ 어미 ‘-(으)시-’ 뒤에 붙을 수 있는가?	×	○	○	...㉢
○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가?	○	×	○	...㉣
○ 예문으로 ‘흰 눈이 내립니다.’를 추가할 수 있는가?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2019 10월 15

45.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남북한의 사전을 탐구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가)와 (나)의 자료를 비교해 볼까요?

(가) 표준국어대사전
대로¹ 「의존 명사」
(1)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 본 대로.
(2)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 ❑ 집에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라.
(3)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족족. ❑ 틈나는 대로 찾아 보다.

대로¹⁰ 「조사」 (체언 뒤에 붙어)
(1)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2)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나) 조선말대사전
대로⁶ [명](불완전*)
(1) (앞에 오는 단어가 뜻하는것과) 다름없이. || 명령대로 집행하다.
(2) (앞에 오는 단어가 나타내는 대상이나 현상과) 같은 모양대로. | 책이 그가 펼쳐놓은대로 있었다.
(3) 앞에 온 단어가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가 일어나는족족. || 생각나는대로 적다.
(4) 《서로 구별되게 따로따로》의 뜻을 나타낸다. | 우리는 우리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초소는 달랐다.

* 불완전: 의존 명사를 뜻하는 말.

- ① 용례를 보니 (가)의 ‘대로10’과 (나)의 ‘대로6’은 앞말에 붙여 사용되었습니다.
②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가)의 ‘대로10-(1)’은 (나)의 ‘대로6-(4)’와 쓰임이 유사합니다.
③ 품사 정보를 보니 (가)의 ‘대로1’, ‘대로10’과 (나)의 ‘대로6’은 문장의 첫머리에 쓰일 수 없는 말입니다.
④ 뜻풀이를 보니 (가)의 ‘대로1’, ‘대로10’과 (나)의 ‘대로6’은 하나의 표제어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이 있는 말입니다.
⑤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길을 가다.’의 ‘대로’는 (가)에서는 조사이지만, (나)에서는 명사입니다.

다의관계

2020 수능 11~12

다의어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말한다.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 의미를 중심 의미라고 하고,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한다. 중심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며 사용 빈도가 높다. 그러면 다의어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첫째,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 살을 먹다’는 가능하지만 ‘한 살이 먹히다’나 ‘한 살을 먹이다’는 어법에 맞지 않는다. 또한 ‘손’이 ‘노동력’의 의미로 쓰일 때는 ‘부족하다, 남다’ 등 몇 개의 용언과만 함께 쓰여 중심 의미로 쓰일 때보다 결합하는 용언의 수가 적다.

둘째, 주변 의미는 기존의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것으로서, 새로 생긴 의미는 기존의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손’의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손이 부족하다’, ‘손에 넣다’처럼 각각 ‘노동력’, ‘권한이나 범위’로 쓰이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 다의어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

- 줄**
 ① 새끼 따위와 같이 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에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 예) 줄로 묶었다.
 ② 길이로 죽 벌이거나 늘어 있는 것. 예) 아이들이 줄을 섰다.
 ③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나 인연. 예) 내 친구는 그쪽 사람들과 줄이 닿는다.

예를 들어 ‘줄’의 중심 의미는 위의 ①인데 길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 유사하여 ②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연결이라는 속성이나 기능이 유사하여 ③의 뜻도 지니게 되었다. 이때 ②와 ③은 ‘줄’의 주변 의미이다.

그런데 ①다의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앞’은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이 중심 의미인데 ‘앞 세대의 입장’, ‘앞으로 다가올 일’에서는 각각 ‘이미 지나간 시간’과 ‘장차 올 시간’을 가리킨다. 이것은 시간의 축에서 과거나 미래 중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에 따른 차이로서 이들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은 유지된다.

46. 밑글을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부분의 아이들이 ‘별’의 의미 중 ‘군인의 계급장’이라는 의미보다 ‘천체의 일부’라는 의미를 먼저 배우겠군.
- ② ‘앉다’의 의미 중 ‘착석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가 ‘요직에 앉다’처럼 ‘직위나 자리를 차지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보다 더 높겠군.
- ③ ‘결론에 이르다’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에서 ‘이르다’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으니, 이 두 의미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관계로 볼 수 없겠군.
- ④ ‘팽이를 돌리다’는 어법에 맞는데 ‘침이 생기다’라는 의미의 ‘돌다’는 ‘군침을 돌리다’로 쓰이지 않으니, ‘군침이 돌다’의 ‘돌다’는 주변 의미로 사용된 것이겠군.
- ⑤ 사람의 감각 기관을 뜻하는 ‘눈’의 의미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의 도수를 올렸다’에서의 ‘눈’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니, ‘눈’의 확장된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겠군.

47.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하여 ㉠의 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영희: 자꾸 말해 미안한데 모둠 발표 자료 좀 줄래?
 민수: 너 빚쟁이같다. 나한테 자료 맡겨 놓은 거 같네.
 영희: 이를 뒤에 발표 사전 모임이라고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지금 또 왔어. 근데 빚쟁이라니, 내가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민수: 아니, 꼭 빌려 준 돈 받으러 온 사람 같다고. 자료 여기 있어. 가현이랑 도서관에 같이 가자. 아까 출발했다니까 금방 올 거야.
 영희: 그래. 발표 끝난 뒤에 다 같이 밥 먹자.

- ① 빚쟁이 ② 빚쟁이, 금방 ③ 뒤, 돈
- ④ 뒤, 금방, 돈 ⑤ 빚쟁이, 뒤, 금방

반의관계

2020 9월 고2 11~12

두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을 반의어라고 한다. 이 중 ‘넓다/좁다’처럼 정도나 등급에 있어서 대립되는 단어 쌍을 등급 반의어라고 한다. 등급 반의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등급 반의어가 나타내는 정도나 등급은 단계적인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정도부사의 수식이나 비교 표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리 집 마당은 아주 넓다.”, “우리 집 마당이 옆집 마당보다 더 넓다.”라고 쓸 수 있다. 이때 ‘우리 집 마당’의 넓이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둘째, 등급 반의어에서는 한쪽 단어의 긍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하며, 이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마당이 넓다’는 ‘마당이 좁지 않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마당이 ‘좁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넓다’는 것은 아니다. 마당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등급 반의어는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당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다.”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이것은 마당의 크기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는 ‘중간 정도’의 크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별도의 말이 존재하기도 한다.

넷째, ㉠등급 반의어의 대립 쌍 중 일부는 두 단어 중 하나가 언어적으로 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어 마당의 면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당의 ‘넓거나 좁은 정도’를 물을 때, “마당이 얼마나 넓니?”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당이 좁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한 “마당이 얼마나 좁니?”라고 묻는 것은 어색하다. 또한 넓은 정도를 나타내는 파생 명사로 ‘좁이’가 아니라 ‘넓이’가 사용된다. 이는 ‘넓다’가 ‘좁다’에 비해 어떠한 전제나 가정이 없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등급 반의 관계에 있는 ‘넓다/좁다’에서 ‘넓다’가 더 활발하게 쓰여 사용상의 비대칭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8. 윗글을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올해는 사과의 품질이 좋다.’에서 ‘좋다’에는 비교 표현을 쓸 수 있겠군.
- ② ‘여행 가방이 무겁다.’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방의 무게는 다를 수 있겠군.
- ③ ‘기차역은 여기에서 멀다.’에서 ‘멀다’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겠군.
- ④ ‘영수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에서 ‘가깝다’를 부정하면 ‘멀다’의 의미와 동일하겠군.
- ⑤ ‘물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에서 ‘뜨겁지도’와 ‘차갑지도’ 사이의 중간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있겠군.

49. <보기>의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윗글의 ㉠에 해당하는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진주 : 여행 잘 갔다가 ㉡왔어?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니?

승민 : 이육사의 발자취를 따라 이육사 문학관에 ㉢갔어. 볼 것도 많고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인상 깊었어.

진주 : 나도 가 보고 싶다. 문학관이 ㉣키?

승민 : 우리가 같이 갔던 황순원 문학관보다 ㉤작아. 입장할 때 줄도 섰어.

진주 : 그랬구나. 줄이 ㉥길었어?

승민 : 내 앞에 다섯 명 정도 있었어. 줄은 ㉦짧았는데 줄어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사람들이 천천히 관람하느라 그런 것 같아.

- ① ㉡,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상하관계

2018 6월 11~12

단어의 의미 관계 중 상하 관계는 의미상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때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라 하고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 하는데,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의어일수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상의어와 하의어가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이를테면 '구기'는 '스포츠'와의 관계 속에서 하의어가 되지만, '축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상의어가 된다. 그런데 '구기'의 하의어에는 '축구' 외에 '야구', '농구' 등이 더 있다. 이때 상의어인 '구기'에 대해 하의어 '축구', '야구', '농구' 등은 같은 계층에 있어 이들을 상의어 '구기'의 공하의어라 하며, 이들 공하의어 사이에는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곧 어떤 구기가 '축구'이면서 동시에 '야구'나 '농구'일 수는 없다.

한편 상하 관계에서는 하의어들이 상의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일례로 어떤 새가 '장끼'이면 그 '장끼'는 상의어 '꿩'의 의미를 이어받으므로 '꿩'을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새가 '꿩'이라 해서 그것이 꼭 '장끼'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의어는 하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지 못한다. 이를 []로 표현하는 의미 자질로 설명하면,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꿩'의 의미 자질들을 가지면서 [수컷]이라는 의미 자질을 더 가져, 결국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꿩'보다 의미 자질 개수가 많다. 곧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은 하의어는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폈듯이 '구기'의 공하의어가 여러 개인 것과 달리, '꿩'의 공하의어는 성별로 구분했을 때 '장끼'와 '까투리' 둘뿐이다. '구기'의 공하의어인 '축구', '야구' 등과 마찬가지로 '장끼', '까투리'는 '꿩'의 공하의어로서 비양립 관계에 있다. 그러나 '장끼'와 '까투리'의 경우, '장끼'가 아닌 것은 곧 '까투리'이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 상의어가 같은 계층의 두 단어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하면, 그 공하의어들은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50.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악기(樂器)[-끼] [명]
 [음악] 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연주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눈다.

타-악기(打樂器)[타:-끼] [명]
 [음악]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팀파니, 실로폰, 북이나 심벌즈 따위이다.

- ① '타악기'는 '실로폰'의 상의어로서 '실로폰'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겠군.
- ② '북'은 '타악기'의 하의어이므로 [두드림]을 의미 자질 중 하나로 갖겠군.
- ③ '기구'는 '악기'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악기'는 '북'을 의미적으로 함의하겠군.
- ④ '타악기'와 '심벌즈'는 모두 '기구'의 하의어이지만, '기구'의 공하의어는 아니겠군.
- ⑤ '현악기'와 '관악기'는 '악기'의 공하의어이므로 모두 '악기'의 상의어 '기구'보다 의미 자질의 개수가 많겠군.

5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 쌍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여름에 고향을 출발한 그가 마침내 ㉡북극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나는 다급해졌다. 지구의 양극 중 ㉢남극에는 내가 먼저 가야 했다. 남극 대륙은 ㉣계절이 여름이어도 내 고향의 ㉤겨울만큼 바람이 차다. 남극 대륙에서 나를 위로해 준 것은 설매를 끄는 ㉦개들과 귀여운 몸짓을 하는 ㉧펭귄들, 그리고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갈매기들뿐이었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Chapter 2.

문장론

01 문장론의 문법 단위

02 높임법

03 피동&사동

04 시제 표현

05 부정 표현

06 단원의 마무리

07 적용 문제



1 문장론의 문법 단위

Step 1. 개념 강의

개념 ① 문장성분

문장성분 : 서술어 기준으로,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한다.

- **주성분** :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 **부속성분** : 관형어 부사어
- **독립성분** : 독립어



어절은 띄어쓰기 단어로써 문장 성분을 구별한다.

(Cf. 어절+조사 => 단어)

예)

제로콜라나 마시자!

시원한 곳으로는 학교도 있다.

이 음식은 먹지 마라!

개념 ②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자릿수는 '필수성분'과 관련된 것으로, 1개, 2개, 3개까지 있다.

1.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성분(필수성분)은 없으면 “그래서 어찌라고?” 라는 생각이 든다.
2. 관형어, 부사어 등의 수식어는 자릿수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필수적 부사어는 서술어 자릿수에 포함된다.

• **관형어** : 동생은 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닦았다.

• **부사어** : 그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모르면 사전을 꼭 찾아봐야 한다.

• **But, 필수적 부사어** : (단, **ㅏㅓㅓㅓ**이지만, **ㅓㅓㅓ**은 아니다)

영수는 철수를 바보로 여겼다.

그녀는 가장 뛰어난 학생을 제자로 삼았다.



연습 문제 | 서술어의 자릿수를 판단하시오.

- ㄱ. 새가 날아간다.
- ㄴ. 꽃이 예쁘다.
- ㄷ. 우정은 보석과 같다.
- ㄹ. 그는 연극을 보았다.
- ㅁ.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세뱃돈을 주셨다.

개념 3 **출문장, 겹문장**



출문장이랑 겹문장은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해!

출문장 : 서술어 개수 1개

겹문장 : 서술어 개수 2개 이상 (단, ㅅ ㅅ ㅈ ㅅ ㅎ ㅈ ㅅ)



안긴문장-안은문장인지, 이어진문장인지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해!

→ **안긴문장 & 안은문장**

→ **이어진 문장**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개념 4 **안긴문장 & 안은문장**

안긴 문장 : 앞에 나온 용언들 모두 밑줄

안은 문장 : 맨 뒤에 있는 용언 1개

*

안긴문장&안은문장에서 나오는 유형은 5가지!

1. 안긴문장의 종류 파악하기
2. 안긴문장의 문장 성분 파악하기
3. 안긴문장-안은문장을 2개의 문장으로 분리하기
4. 안긴문장에서의 생략된 말 찾기
5. '되다', '아니다'

1. 안긴문장의 종류 파악하기

- **명사절** : 격조사와 결합
- **관형절** : 체언 수식
- **부사절** : 체언 빼고 다 수식
- **서술절** : S+S+V (cf. 보어)
- **인용절** : 직접 인용 “ ” + 라고 / 간접인용 고

*

안긴문장의 종류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서술어를 모두 찾는다
- 서술어가 1개이면 출문장 or 서술절(S+S+V)
- 서술어가 2개 이상이면 뒤에 있는 서술어가 안은 문장의 서술어
- 앞의 서술어가 명사의 기능을 하면 명사절, 관형어의 기능을 하면 관형절, 부사어의 기능을 하면 부사절
- 서술어 뒤에 고, 라고가 붙어있으면 인용절

*

연습 문제 | 안긴문장의 종류를 파악해보자

예) 의자가 매우 튼튼하다.

나는 밥을 빨리 먹기가 어렵다.

예쁜 꽃이 피었다.

영수는 빠르게 달려간다 (vs 영수는 빨리 달려간다.)

물이 얼음이 되다.

영희가 “집에 빨리 가자.”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착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고등학교인 동생이 대학생이 된 형과 비행기를 탔다.

영수가 버스에 탄 은우에게 많은 말을 건넸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우리는 천재가 아니다.

2. 안긴문장의 문장 성분 파악하기

문장성분을 물어보는 것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로 구분한다.

3. 안긴문장-안은문장을 2개의 문장으로 분리하기

예) 나는 밥을 빨리 먹기가 어렵다 -> 나는 밥을 빨리 먹다. / ~가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착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
 은우는 빠르게 달려간다. ->

3. 안긴문장에서의 생략된 말 찾기

예) 빨간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 장미꽃이 빨갳다 +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 내가 공원에서 늘 쉬었다. + 그는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 과제가 아주 어렵다. + 그 사람들은 과제를 금방 끝냈다.

개념 5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 : 두 홑문장이 나란히 놓여 하나의 겹문장이 되는 것. By **접속조사와 어미**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and or but으로 연결되어,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대등한 문장.
 =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자리를 바꿔서 의미가 같은 경우.

예)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른다.
 음식을 보니, 떡도 맛있고, 식해도 달고, 정말 좋았다.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자리를 바꿔서 의미가 다른 경우.

예) 비가 내리면 땅이 젖는다.
 비가 내려서 땅이 젖었다.



연습 문제 | 홑문장, 겹문장을 판단하고, 겹문장이라면 안긴문장&안은문장인지, 이어진 문장인지를 판단하시오.

- ㄱ. 개와 고양이는 사랑스럽다
- ㄴ. 이 전자레인지의 음식을 데우는 속도가 빠르다.
- ㄷ. 오랫동안 일만 한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
- ㄹ. 그림 그리기가 나의 취미이다.
- ㅁ.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하다.
- ㅂ. 내가 일찍 일어나면 아버지께서 칭찬하신다.
- ㅅ. 내가 태어난 1961년에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났다.
- ㅇ. 하늘도 맑고, 바람도 잠잠해서 소풍을 갈 수 밖에 없었다.
- ㅈ. 시간이 다 되어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영수만 남게 되었다.
- ㅊ. 오랫동안 발목이 아팠던 친구는 최근에 수술을 받았다.



뒤에 문제 풀고 가자!

92~99 페이지에 있어!



Step 2. 스스로 정리하기



2 높임법

Step 1. 개념 강의

개념 ① 주체와 객체

- **주체** : '서술어의 주체' = '주어'
- **객체** : '서술어의 객체' = '목적어 or 필수적 부사어'



연습 문제 | 다음 문장에서 주체와 객체를 구별해 보자.

- ㄱ. 할아버지께서 댁으로 돌아가셨다.
- ㄴ. 내가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
- ㄷ. 내가 너에게 간다.

개념 ② 높임법



주체인지 객체인지 상대인지 꼭 구분하고 각각의 실현 방법도 알아야 해!

주체 높임법은 주체를 높이기 위한 방법

1. 께서, 2. 선어말 어미 -시-, 3. 특수 용언 (예.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 직접 높임법 (일반적인 주체 높임법)

- ㄱ. 선생님이 온다.
- ㄴ. 선생님이 오신다.
- ㄷ. 선생님께서 오신다.
- ㄹ. 아버지께서 집에 있다.
- ㅁ. 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다.



*주체, 객체, 상대높임법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예) 아버지, 선생님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 간접 높임법 : 주체의 신체, 소유물, 지식, 말들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주체를 높이는 방법

- ㄱ. 지금부터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 ㄴ. **아메리카노 한잔 나오셨습니다. (?)**
- ㄷ. 할아버지는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
- ㄹ.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 ㅁ. 선생님의 따님은 이제 유치원에 다니시지요?

객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은 객체를 높이기 위한 방법

1. 께, 2. 특수 용언 (예.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 뵙다)

- ㄱ. 나는 아버지를 (데리고/모시고) 집으로 왔다.
- ㄴ. 나는 그 책을 선생님(에게/께) (주었다/드렸다)
- ㄷ. 나는 그것을 선생님(에게/께) (물었다/여쭙었다)
- ㄹ. 나는 6학년때의 담임선생님을 (보고/뵙고) 왔다.

상대 높임법

"대화시"에 청자를 높이기 위한 높임법.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서 나타낸다. 혹은 대명사를 통해서 나타낸다.
(단, 낮춤도 높임법에 해당한다.)

예) 그 일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암기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격식체	하십시오체 (아주높임)	날씨가 좋습니다.	언제 쉬십니까?	어서 가십시오.	식사를 하십시오.	-
	하오체 (예사높임)	날씨가 좋소.	언제 쉬시오?	어서 가시오.	식사를 합시다.	정말 반갑구려.
	하게체 (예사낮춤)	날씨가 좋네.	언제 쉬는가?	어서 가게.	식사를 하세.	정말 반갑구먼.
	해라체 (아주낮춤)	날씨가 좋다.	언제 쉬니?	어서 가라.	식사를 하자.	정말 반갑구나.
비격식체	해요체 (두루높임)	날씨가 좋아요.	언제 쉬어요?	어서 가요.	식사를 해요.	정말 반갑워요.
	해체 (두루낮춤)	날씨가 좋아.	언제 쉬어?	어서 가.	식사를 해.	정말 반가워.



뒤에 문제 풀고 가자!

100 ~101 페이지에 있어!



Step 2. 스스로 정리하기



3 피동 & 사동

Step 1. 개념 강의

개념 ① 피동 표현, 사동표현 구별하기

피동(반대말은 ㄴㄷ) : 목적어가 주어가 된 문장. → 목적어가 없으므로 문장성분이 하나 없어진다.

예)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아/어지다 or -게 되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 경우.

사동(반대말은 ㄷㅅ) : 서술어의 동작을 객체가 하는 문장 → 객체가 새롭게 생기므로 문장성분이 하나 생긴다.

예) 아기가 옷을 입었다 → 어머니가 아기에게 옷을 입혔다.

*-게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 경우

개념 ② 피동 표현

*피동을 만드는 방법

1. 단형피동(접사, 파생적 피동) : 이히리기, -되다(하다 대신), -당하다

예) 보이다 먹히다 들리다 안기다

2. 장형피동(보조용언, 통사적 피동) : -아/어지다, -게 되다

예) 보아지다 먹어지다 들어지다 안아지다

단, '예뻐지다', '높아지다' 처럼 능동이 없는 형태도 존재한다.



예시 문항 | 피동 표현

용언	단형피동	장형피동	이중피동(틀림)
보다			
꿈다			
잡다			
듣다			
얻다			
만나다			

개념 3 사동 표현

사동을 만드는 방법

단형사동(접사): 이히리기우구추, -시키다(하다 대신)

예) 속이다 묻히다 들리다 말기다 지우다 낮추다

장형사동(보조용언): -게 하다

예) 속게 하다, 묻게 하다, 들게 하다, 말게 하다, 지게 하다, 낮게 하다

잘못된 사동 표현: 굳이 사동을 안 써도 되는 경우.

예)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소개해줘

* 예시 문항 | 사동 표현

용언	단형사동	장형사동	이중사동
속다			
익다			
알다			
말다			
서다			
낮다			

뒤에 문제 풀고 가자!

102 ~103 페이지에 있어!

답지 피동 표현	용언	단형피동	장형피동	이중피동(틀림)
	보다	보이다	보아지다	보이여지다
	끓다	끓기다	끓어지다	끓기여지다
	잡다	잡히다	잡아지다	잡히어지다
	들다	들리다	들어지다	들리어지다
	얻다	X	얻어지다	X
	만나다	X	만나지다	X

답지 사동 표현	용언	단형사동	장형사동	이중사동
	속다	속이다	속게하다	속이게하다
	익다	익히다	익게하다	익히게하다
	알다	알리다	알게하다	알리게하다
	말다	말기다	말게하다	말기게하다
	서다	세우다	서게하다	세우게하다
	낮다	낮추다	낮게하다	낮추게하다

Step 2. 스스로 정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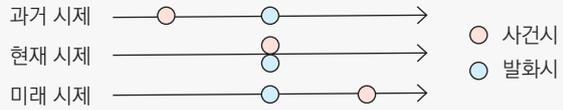


4 시제 표현

Step 1. 개념 강의

개념 1 시제의 종류

1. 과거 시제: '발화시' 기준, '사건시'가 앞설 때
2. 현재 시제: '발화시' 기준, '사건시'가 일치할 때
3. 미래 시제: '발화시' 기준, '사건시'가 나중일 때



과거 시제 실현 방법 : 선어말 어미 & 관형사형 어미

선어말 어미 '-았/었-'	예) 나는 어릴 때부터 키가 컸다.
선어말 어미 '-았었/었었-'	예) 지금은 이래 보여도 나는 한때 잘나가는 사람이 <u>있었다</u> .
선어말 어미 '더'	예) 너 다이어트 한다더니, 어제도 많이 먹 <u>더</u> 라?
관형사형 어미 '-(으)ㄴ'	예) 어제 소개팅한 분과 밥 먹은 후에 영화도 <u>봤</u> 어.
관형사형 어미 '-던'	예) 예 <u>뻤</u> 던 첫사랑이 생각난다.

현재 시제 실현 방법 : 기본형, 선어말 어미 & 관형사형 어미

형용사, 서술격 조사의 기본형	예) 수능이 다가오니까 조금 <u>춡</u> 다. 수능은 새로운 시작 <u>이다</u> .
선어말 어미 '-는/ㄴ-'	예) 나는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 <u>한다</u> .
관형사형 어미 '-는'	예) 나는 지금 운동하는 <u>중</u> 이다.
관형사형 어미 '-(으)ㄴ'	예) 우리 엄마는 한의사 <u>인</u> 나를 자랑스러워 하 <u>서</u> .

미래 시제 실현 방법 : 선어말 어미 & 관형사형 어미, 그 외

선어말 어미 '-겠'	예) 무릎이 시린 걸 보니 내일은 비가 오 <u>겠</u> 군.
선어말 어미 '-(으)리-'	예) 수능날에는 기필코 국어 만점 받 <u>으리</u> 라!
관형사형 어미 '-(으)ㄴ'	예) 이렇게 공부하면 수능 다 맞을 것 같 <u>은</u> 데?



선생님, 근데... 하나의 선어말 어미가 과거를 얘기하기도 하고, 미래를 얘기하기도 하던데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가 직접 사전 찾아봐야지!

았 어미

1.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1.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그는 집에 갔다.

2.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

참 많이도 샀네.

3.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하여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는 어미.

이렇게 방 안을 어지럽혀 놓았으니 넌 이제 아버지께 혼났다.

개념 2 동작상

동작상: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료되었는지 등을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이다.

진행상: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함.

-고 있다	예) 은우가 또 공부를 하고 있다.
-어/어 가다	예) 내 나이 28. 벌써 올해도 저물어 간다.
-(으)면서	예) 은우는 밥먹으면서 공부한다.

완료상: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표현함.

-아/어 있다	예) 3초 만에 수강신청이 다 마감되어 있었다.
아/어 버리다	예) 3초 만에 티켓팅이 다 끝나 버렸다.
-고서	예) 은우는 합격 결과를 보고서 부모님께 자랑을 했다.



이것도, 모르면... 사전 찾아봐야겠죠?



아니?



네?



사전 찾아봐야 한다는 것 잘 아니?



뒤에 문제 풀고 가자!



104 ~105 페이지에 있어!

5 부정 표현

Step 1. 개념 강의

개념 ① 안부정문, 못부정문

안부정문

- **의지 부정, 단순부정** : 주어의 의지에 의해 동작을 하지 않거나, 단순히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냄.
- **짧은 부정** : 부정하는 말 '앞'에 '안(아니)'를 사용함. 예) 나는 공부를 안 했다.
- **긴 부정** : 부정하는 말 '뒤'에 '-지 않다(아니하다)'를 사용함. 예) 나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

못부정문

- **능력 부정** : 주어의 능력이나 외부의 상황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냄.
- **짧은 부정** : 부정하는 말 '앞'에 '못'을 사용함. 예) 나는 공부를 못 했다.
- **긴 부정** : 부정하는 말 '뒤'에 '-지 못하다'를 사용함.

너무 쉬워서 '안'넣으려 하다가 넣는 정도야.
'못'푸는 학생들은 없도록!



개념 ② 청유문, 명령문

청유문이나 명령문에서는 '-지 말다' 형태의 긴 부정이 사용된다.

청유문

예) 내일은 책상 앞에서 감상만 하지 말자

명령문

예) 내일은 책상 앞에서 감상만 하지 마라

개념 ③ 모르다, 없다

모르다, 없과의 부정 표현은 오로지 긴 부정만 가능하다.

예) 안 모르다 (X), 안 없다 (X), 모르지 않다(O), 없지 않다(O)



뒤에 문제 풀고 가자!

106 ~108 페이지에 있어!



Step 2. 스스로 정리하기



6 단원의 마무리

01. 문장론의 문법단위

개념 1. 문장 성분

- 주성분: (1), (2), (3), (4).
- 부속성분: (5), (6).
- 독립성분: (7).

개념 2. 서술어의 자릿수

- 서술어의 자릿수는 1개, 2개, 3개까지 있다. 단, 개수를 셀 때는 당연히 서술어는 제외.
 1.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성분이 없으면 "그래서 어찌라고?"라는 생각이 든다.
 2. 관형어, 부사어 등의 수식어는 자릿수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1)는 서술어 자릿수에 포함된다.
- But, 필수적 부사어: (2)이지만, (3)은 아니다.

개념 3. 홑문장, 겹문장

- 홑문장: 서술어 개수 1개.
- 겹문장: 서술어 개수 2개 이상 (1).
- 안긴문장 & 안은문장.
- 이어진 문장.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개념 4. 안긴문장&안은문장

- 안긴 문장: 앞에 나온 용언들 (1) 밑줄. 안은 문장: (2)에 있는 용언 1개.
 1. 안긴문장의 종류 파악하기
 - 명사절: 격조사와 결합.
 - 관형절: 체언 수식.
 - 부사절: 체언 빼고 다 수식.
 - 서술절: S+S+V (cf. 보어).
 - 인용절: 직접 인용 " " + (3) / 간접 인용 (4)
 2. 안긴문장의 문장 성분 파악하기.
 3. 안긴문장-안은문장을 2개의 문장으로 분리하기.

4. 안긴문장에서의 생략된 말 찾기.

5. 되다, 아니다.

개념 5.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이어진 문장**: 두 홑문장이 나란히 놓여 하나의 겹문장이 되는 것. By (1)와 (2).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and, or, but으로 연결되어,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대등한 문장. = 앞 문장과 뒤 문장의 (3) 의미가 (4) 경우.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앞 문장과 뒤 문장의 (3) 의미가 (5) 경우.

01. 문장론의 문법단위

개념 1. 문장 성분

(1) 주어 (2) 목적어 (3) 서술어 (4) 보어 (5) 관형어 (6) 부사어 (7) 독립어

개념 2. 서술어의 자릿수

(1) 필수적 부사어 (2) 단, 필수적 부사어 (3) 종속적 부사어

개념 3. 홑문장, 겹문장

(1) 단, 서술적은 한 개.

개념 4. 안긴문장&안은문장

(1) 모두 (2) 맨 뒤 (3)라고 (4)고

개념 5.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1) 접속조사 (2) 어미 (3) 자리를 바꿔서 (4) 같은 (5) 다른

02. 높임법

개념 1. 주체와 객체

- **주체** : '서술어의 주체' = '주어' 단, 사동, 피동 제외
- **객체** : '서술어의 객체' = '목적어 or 필수적 부사어'

개념 2. 높임법

- **주체 높임법**은 (1)를 높이기 위한 방법
 1. 께서
 2. 선어말 어미 -시-
 3. 특수 용언 <예.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 **직접 높임법** (2) 주체 높임법.
- **간접 높임법** : 주체의 신체, 소유물, 지식, 말들을 높여서 (3)으로 주체를 높이는 방법
- **객체 높임법** : 객체 높임법은 (4)를 높이기 위한 방법.
 1. 께
 2. 특수 용언 <예: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 뵙다.>
- **상대 높임법** :
 "대화시"에 (5)를 높이기 위한 높임법. 주로 (6)를 통해 나타낸다. 혹은 대명사를 통해 나타낸다.
 단, 낮춤도 (7)에 해당한다.
- 표를 외우자!

02. 높임법

개념 2. 높임법

(1) 주체 (2) 일반적 (3) 간접적 (4) 객체 (5) 청자 (6) 종결 어미 (7) 높임법

03. 피동&사동

개념 1. 피동 표현, 사동 표현 구별하기

- **피동** (반대말은 ㄴㄷ):
(1)가(2)가 된 문장. 목적어가 없으므로 문장성분이 하나 없어진다.
-아/어지다 or -게 되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 경우.
- **사동** (반대말은 ㅈㄷ):
서술어의 동작을 (3)가 하는 문장.
객체가 새롭게 생기므로 문장성분이 하나 생긴다.
-게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 경우.

개념 2. 피동 표현

*피동을 만드는 방법

1. 단형피동(접사, 파생적 피동) : 이히리기, -되다(-하다 대신), -당하다
2. 장형피동(보조용언, 통사적 피동) : -아/어지다, -게 되다

단, 능동이 없는 형태도 존재한다.

개념 3. 사동 표현

사동을 만드는 방법

1. 단형사동(접사): 이히리기우구추, -시키다(하다 대신)
2. 장형사동(보조용언): -게 하다

잘못된 사동 표현: 굳이 사동을 안 써도 되는 경우.

03. 피동&사동

개념 1. 피동 표현, 사동 표현 구별하기

(1) 목적어 (2) 주어 (3) 객체

04. 시제 표현

개념 1. 시제의 종류

1. **과거 시제**: '발화시' 기준, '사건시'가 (1) 때.
과거 시제 실현 방법: 선어말 어미 & 관형사형 어미.
2. **현재 시제**: '발화시' 기준, '사건시'가 (2) 때.
현재 시제 실현 방법: 기본형, 선어말 어미 & 관형사형 어미.
3. **미래 시제**: '발화시' 기준, '사건시'가 (3) 때.
미래 시제 실현 방법: 선어말 어미 & 관형사형 어미, 그 외.

개념 2. 피동 표현

- **동작상**: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료되었는지 등을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이다.
 - **진행상**: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함.
 - **완료상**: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표현함.

04. 시제 표현

개념 1. 시제의 종류

(1) 앞설 (2) 일치할 (3) 나중일

05. 부정 표현

개념 1. 안부정문, 못부정문

- **안부정문**: 의지 부정, 단순부정 - 주어의 의지에 의해 동작을 하지 않거나, 단순히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냄.
 - 짧은 부정: 부정하는 말 (1)에 '안, 아니'를 사용함.
 - 긴 부정: 부정하는 말 (2)에 '-지 않다, 아니하다'를 사용함.
- **못부정문**: 능력 부정 - 주어의 능력이나 외부의 상황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냄.
 - 짧은 부정: 부정하는 말 (3)에 '못'을 사용함.
 - 긴 부정: 부정하는 말 (4)에 '-지 못하다'를 사용함.

개념 2.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는 '-지 말다' 형태의 긴 부정이 사용된다.

개념 3.

모르다, 없다의 부정 표현은 오로지 (1)만 가능하다

05. 부정 표현

개념 1. 안부정문, 못부정문

(1) 앞 (2) 뒤 (3) 앞 (4) 뒤

개념 3.

(1) 긴 부정

7

적용 문제

01	문장론의 문법 단위	92
02	높임법	100
03	피동&사동	102
04	시제 표현	104
05	부정 표현	106

서술어의 자릿수

2017 3월 12

1. <보기>의 ㉠ ~ ㉣에 대한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서술어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의미	예문
살다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바람 때문에 불씨가 다시 ㉠살았다.
	본래 가지고 있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난다.	이 한 구절로 글이 ㉡살았다.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그는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 벼슬을 ㉢살았다.
놓다	계속해 오던 일을 그만두고 하지 아니하다.	그는 잠시 일손을 ㉣놓았다.
	잡거나 쥐고 있던 물체를 일정한 곳에 두다.	형은 책을 책상 위에 ㉢놓았다.

- ① ㉠은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군.
- ② ㉡은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 ③ ㉢은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 ④ ㉣은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 ⑤ ㉣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군.

2016 9월 고2 13

2. 다음과 같이 서술어의 자릿수를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문장에서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그런데 같은 형태의 서술어라도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문장 성분을 생략해 봄으로써 이를 파악할 수 있다.

탐구자료 [A]

- 콩쥐가 옷을 예쁘게 만들었다.
- 어머니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탐구활동

문장 성분을 생략해 보며,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인지를 파악한다.

◦ 콩쥐가 옷을 예쁘게 만들었다.
 ≡ '콩쥐가', '옷을', '예쁘게'를 각각 생략해 본다.
 ◦ 어머니는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
 ≡ '어머니는', '아들을', '의사로'를 각각 생략해 본다.



탐구결과

서술어 '만들었다'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에 따라 두 자리 서술어가 되기도 하고, 세 자리 서술어가 되기도 한다.



적용자료 [B]

- 친구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 철수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 ① [A]에서 '콩쥐가'와 '어머니는'은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말이므로 꼭 필요한 성분이었군.
- ② [A]에서 '옷을'과 '아들을'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므로 생략할 수 없었군.
- ③ [A]에서 '예쁘게'는 '의사로'와 달리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었군.
- ④ [B]에서 '친구는'과 '손을'을 생략했을 때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잡았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겠군.
- ⑤ [B]에서 '많이'는 생략할 수 없는 문장 성분이므로 '잡았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겠군.

2022 수능 38

3. 밑줄 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보기>

이곳의 지형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하다.

- ① 그 광물이 원래는 귀금속에 속했다.
- ② 그는 바람이 불기에 옷깃을 여몄다.
- ③ 우리는 원두막을 하루 만에 지었다.
- ④ 나는 시간이 남았기에 그와 걸었다.
- ⑤ 나는 구호품을 수해 지역에 보냈다.

필수적 부사어

2018 수능 13

4. 다음은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
②	· 함박눈이 하늘에서 펥펥 내리고 있다. ⇒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펥펥'이 부사어로 쓰였군.
③	· 그는 너무 험 차를 한 대 샀다. ⇒ 부사어 '너무'가 서술어 '샀다'를 수식하는군.
④	㉠ 영이는 엄마와 닮았다. / *영이는 닮았다. ㉡ 영이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 영이는 책을 읽는다. ⇒ ㉠의 '엄마와', ㉡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의 '엄마와'는 ㉡의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이군.
⑤	㉢ 모든 것이 재로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의 '재로'는 부사어이고 ㉣의 '재가'는 보어로서,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군.

* "*"는 비문임을 나타냄.

2020 10월 14

5. <보기>의 밑줄 친 관형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의 일기장에는 "일에는 정해진 시기가 있는 법이니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다. 이 구절은 온갖 시련으로 방황했던 사춘기의 나를 반성하게 만든다.

- ① '그', '이', '온갖'은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 ② '정해진', '있는', '방황했던'은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 ③ '그', '이'는 앞에서 이미 언급된 것을 가리키며 뒤에 있는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 ④ '나의', '사춘기의'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가 관형어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정해진', '있는', '온갖', '방황했던'은 각각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필수 성분에 해당한다.

독립성분

2010 6월 12

6. <보기>를 통해 감탄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보기>

아 들: 아버지, 저도 바둑을 배워서 명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뭘, 명인이 된다고?
 아 들: ㉡예, 그러니까 바둑판 하나 사 주세요.
 아버지: ㉢글쎄, 사 줘야 되냐?
 아 들: 사주세요, ㉣예?
 아버지: 얼마 전에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농구공을 사 줬더니 작심삼일이었잖아. 이번에도 호지부지할 거지?
 아 들: 그런데, ㉤음, 작심삼일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그건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 들: ㉥아니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아버지: 명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 들: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볼게요.

- ① ㉠은 더 이상 여러 말 할 것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겠군.
- ② ㉡은 긍정하여 대답하는 의미로, ㉢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군.
- ③ ㉣이 ㉡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군.
- ④ ㉤이 문장의 중간에 쓰인 것을 보면 독립어의 기능을 할 수 없겠군.
- ⑤ ㉥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의 ‘아니’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겠군.

출문장 겹문장

1) 안긴문장의 종류 파악하기

2021 6월 14번

7. <보기>의 ㉠ ~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 ㉢원한다면 제대로 계획 세우기가 ㉣될 ㉤선행되어야 한다.

- ①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보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다.

2015 6월 고2 13

8.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안긴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말하며, ‘안은문장’은 안긴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말한다. 안긴문장은 기능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뉜다.

- ㉠ 영수는 키가 매우 크다.
- ㉡ 영수는 꽃이 핀 사실을 몰랐다.
- ㉢ 영수는 말도 없이 학교로 가 버렸다.
- ㉣ 영수는 공원을 산책하기를 좋아한다.
- ㉤ 영수는 영희에게 빨리 오라고 외쳤다.

- ① ㉠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서술어 기능을 한다.
- ② ㉡의 안긴문장은 체언의 뜻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부사어를 수식한다.
- ④ ㉣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동일하다.
- ⑤ ㉤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주어가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2) 안긴문장의 문장 성분 파악하기

2014 9월 고2 A 14

9. <보기 1>의 자료를 읽고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절(節)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결합되어, 전체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 들어 있는 형식을 말한다. 서술절은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서술절을 포함한 전체 문장은 겹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2개 이상 나오는 문장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이외에 서술절(주어+서술어)을 지니고 있다.

<보기2>

ㄱ. 토끼는 앞발이 짧다.
 ㄴ. 이 산은 나무가 많다.
 ㄷ. 우리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다.

- ① ㄱ~ㄷ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
- ② ㄱ의 '토끼는'은 전체 문장의 주어이다.
- ③ ㄴ의 '나무가 많다'는 전체 문장 속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 ④ ㄱ과 ㄴ은 서술절이 전체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형식이다.
- ⑤ ㄴ의 '나무가'와 ㄷ의 '대학생이'는 서술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2022 4월 38

10. <보기>의 ㄱ~ㄷ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ㄱ. 신중한 그는 고민을 가족들과 의논했다.
 ㄴ. 너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좀 씻어!
 ㄷ. 네가 들은 소문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 ① ㄱ의 '신중한'은 안은문장의 필수 성분이군.
- ② ㄱ의 '가족들과'와 ㄷ의 '정말'은 생략이 가능한 성분이군.
- ③ ㄴ의 '먹기'는 안긴문장의 부속 성분이군.
- ④ ㄴ의 '너는'은 안긴문장의 주어이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군.
- ⑤ ㄷ의 '네가'와 '사실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2019 수능 14

11. <보기>의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그는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다.
 ㉡ 바다가 눈이 부시게 파랗다.
 ㉢ 동주는 반짝이는 별을 응시했다.

- ① ㉠의 '삼았다'는 주어 이외에도 두 개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군.
- ② ㉡의 '바다가'와 '눈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 ③ ㉢의 '별'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이군.
- ④ ㉠의 '좋은'과 ㉢의 '반짝이는'은 안긴문장의 서술어이군.
- ⑤ ㉡의 '눈이 부시게'와 ㉢의 '반짝이는'은 수식의 기능을 하는군.

3) 안긴문장-안은문장을 2개의 문장으로 분리하기

2020 9월 15번

12. <보기>의 ㉠ ~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습 활동]
 겹문장은 홑문장보다 복잡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료>에 제시된 홑문장을 활용하여 <조건>에 해당하는 겹문장을 만들어 보자.

<자료>	<조건>
• 날씨가 춥다.	㉠ 명사절을 안은 문장
• 형은 물을 마셨다.	㉡ 관형절을 안은 문장
•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 부사절을 안은 문장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	㉣ 인용절을 안은 문장
• 형은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① ㉠: 동생은 추운 날씨에도 얼음을 먹었다.
- ② ㉡: 형은 얼음을 먹는 동생에게 불평을 했다.
- ③ ㉢: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얼음을 먹었다.
- ④ ㉣: 형은 동생에게 날씨가 춥다고 불평을 했다.
- ⑤ ㉤: 형은 물을 마셨지만 동생은 얼음을 먹었다.

2018 9월 고2 13

13. 다음은 '문장의 짜임'에 대해 활동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목표	안긴문장의 특징을 이해한 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겹문장을 만들 수 있다.
내용	<p>※ 다음의 [자료]를 안긴문장으로 활용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문장을 만드시오.</p> <p>[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이 봄에 활짝 피다. ◦ 봄이 오다. <p><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사절과 관형절이 있는 겹문장을 만들 것.
결과	㉠

- ① 봄이 오면 꽃이 활짝 핀다.
- ②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온다.
- ③ 나는 봄이 오고 꽃이 활짝 피기를 바란다.
- ④ 나는 꽃이 활짝 핀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 ⑤ 나는 봄이 와서 꽃이 활짝 피기를 소망한다.

4) 안긴문장에서의 생략된 말 찾기

2017년 7월 12

14.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두 개의 홑문장을 하나의 겹문장으로 만들 때, 두 홑문장 중 한 문장에서 특정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홑문장 ㉠, ㉡을 하나의 겹문장 ㉢으로 만든 예인데요, ㉢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 철수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였다.

+

㉡ 공원은 학교 뒤에 있다.

↓

㉢ 철수가 산책을 한 공원은 학교 뒤에 있다.

학생: [A]

- ① ㉠이 ㉡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의 목적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② ㉠이 ㉡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의 부사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③ ㉠이 ㉡에 부사절로 안기면서 ㉠의 부사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④ ㉠이 ㉡에 부사절로 안기면서 ㉡의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 ⑤ ㉠이 ㉡에 명사절로 안기면서 ㉡의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2022 10월 38

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어머니는 아들이 비로소 대학생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 파수꾼이 경계 초소에서 본 동물은 늑대는 아니었다.

㉢ 감독이 그 선수를 야구부 주장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 ① ㉠에는 안긴문장에 보어가 있고, ㉡에는 안은문장에 보어가 있다.
- ② ㉠은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사용되고, ㉢은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의 부사어로 사용된다.
- ③ ㉡과 달리 ㉢의 안긴문장의 서술어는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한다.
- ④ ㉡과 달리 ㉢의 안긴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은 모두 안긴문장의 주어와 안은문장의 주어가 다르다.

2019 9월 15

16.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탐구과제
하나의 문장이 안긴문장으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각 문장에서 안긴문장을 파악한 후,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 자료
㉠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
㉢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안긴문장의 종류	생략된 문장 성분	
①	㉠	부사절	없음
②	㉡	명사절	없음
③	㉢	명사절	주어
④	㉣	관형절	부사어
⑤	㉤	관형절	목적어

5) '되다', '아니다'에서 보어랑 헷갈리지 않기!

2015 7월 A 13

17. 다음 ㄱ~ㄹ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ㄱ. 그가 마침내 대학생이 되었다.
ㄴ. 이 전시장은 참문이 아주 많다.
ㄷ.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ㄹ. 절약은 부자를 만들고, 절제는 사람을 만든다.

- ① ㄱ은 보어가 있고, ㄷ은 보어가 없다.
- ② ㄴ은 목적어가 없고, ㄹ은 목적어가 있다.
- ③ ㄱ과 ㄴ은 부사어가 있고, ㄷ과 ㄹ은 부사어가 없다.
- ④ ㄱ과 ㄴ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고, ㄷ과 ㄹ은 두 번 이상 나타난다.
- ⑤ ㄷ은 절이 전체 문장 속에 안겨 있고, ㄹ은 두 개의 절이 대등한 관계로 이어져 있다.

기타

2017 9월 14번

18. <보기>의 ㉠ ~ ㉢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기>

㉠ 영희 어머니께서는 “네 동생은 착해.”라고 말씀하셨다.
 ㉡ 영희 어머니께서는 내 동생이 착하다고 말씀하셨다.

㉠은 영희 어머니의 발화를 그대로 옮긴 직접 인용이고, ㉡은 영희 어머니의 발화를 풀어 쓴 간접 인용이다. 그런데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나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인용절 속의 어미, 인용 조사, 대명사, 지시 표현, 높임 표현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직접인용	아들이 어제 저에게 “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	
간접인용	아들이 어제 저에게 (㉠) 사무실에 (㉡) 말했습니다.
↓	
직접인용	언니는 어제 “나의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겨라.”라고 나에게 말했다.
↓	
간접인용	언니는 어제 (㉢)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꼭 (㉣) 나에게 말했다.

- | | | | |
|------|------|-----|------|
| ㉠ | ㉡ | ㉢ | ㉣ |
| ① 오늘 | 있으라고 | 자기의 | 남기라고 |
| ② 어제 | 계시라고 | 자기의 | 남겨라고 |
| ③ 오늘 | 있으라고 | 나의 | 남겨라고 |
| ④ 오늘 | 계시라고 | 자기의 | 남겨라고 |
| ⑤ 어제 | 있으라고 | 나의 | 남기라고 |

이어진 문장

1) 안긴문장-안은문장 vs 이어진문장

2016년 11월 고2 12

19. <보기>의 ㄱ ~ ㄴ을 활용하여 만든 겹문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바람이 분다.
 ㄴ. 바람이 차갑다.
 ㄷ. 단풍잎이 빨갱다.
 ㄹ. 단풍잎이 흔들린다.

- ① ‘바람이 불어서 단풍잎이 흔들린다.’는 ㄱ과 ㄹ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② ‘차가운 바람이 분다.’는 ㄴ이 ㄱ에 안기면서 ㄴ의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③ ‘바람이 차갑고 단풍잎이 빨갱다.’는 ㄴ과 ㄷ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단풍잎이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는 ㄹ이 관형절로 바뀐 ㄱ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⑤ ‘흔들리는 단풍잎이 빨갱다.’는 ㄹ이 관형절의 형태로 ㄷ에 안겨 있는 문장이다.

2) 앞 뒤 문장 의미 파악하기

2016 고2 6월 13

20.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두 개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로 이어져 있다. 이때 앞의 절과 뒤의 절은 인과, ㉠조건, 의도, 양보, 배경 등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 ①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이 깊어진다.
 ② 책을 읽으려고 학교 도서관으로 갔다.
 ③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④ 책을 읽고 있는데 친구가 나를 자꾸 불렀다.
 ⑤ 책을 다양하게 읽어서 그는 지식이 풍부하다.

3) 이어진 문장 만드는 방법

2016 3월 13

21.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이어진문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라는 문장은 서술어가 하나뿐이어서 홑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두 홑문장이 결합된 이어진문장이다. 이때의 ‘와/과’는 접속 조사로, ‘자유’와 ‘평화’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한편, ‘와/과’는 ‘빠르기가 번개와 같다.’나 ‘그는 당당히 적과 맞섰다.’처럼 비교의 대상이나 행위의 상대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서술어가 하나이면 홑문장이 된다.

- ① 나는 시와 소설을 좋아한다.
- ② 그녀는 집과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 ③ 고향의 산과 하늘은 예전 그대로였다.
- ④ 성난 군중이 앞문과 뒷문으로 들이닥쳤다.
- ⑤ 그 사람과 나는 오래 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높임 실현 방법

2016 7월 13

24.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 ㉠ 할머니께서 책을 읽고 계신다.
- ㉡ 누나는 어머니께 모자를 선물로 드렸다.
- ㉢ 할아버지께서 월요일 오후에 병원에 가신다.
- ㉣ (선생님과의 대화 중)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 (아버지와의 대화 중)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예전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 ① ㉠은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데에 '께서'와 '계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은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데에 '께'와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은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께서'와 '시-'를 사용하고 있다.
- ④ ㉣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데에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은 상대인 '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2015 3월 고2 14

25.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1>

국어의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뉜다. 주체 높임법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객체 높임법에서는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상대 높임법에서는 말을 듣는 상대, 즉 청자가 높임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개 두세 가지의 높임법이 동시에 사용된다. 존대를 [+로 비존대를 [-로 나타낸다면, '철수야, 할아버지 오셨어.'와 같은 문장은 [주체 높임+], [상대 높임-]로 표시할 수 있다.

<보기2>

영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갔어요.

- 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 ②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 ③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 ④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 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2020 6월 고2 14

26.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의 높임 표현을 바르게 분석한 것은?

<보기1>

우리말의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높임법은 조사, 특수 어휘,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등에 의해 실현된다.

<보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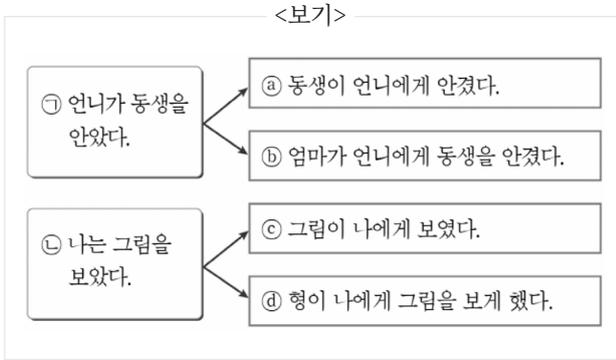
영희야,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먼저 나가셨어.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①	○	○	높임
②	○	○	낮춤
③	○	×	높임
④	×	○	낮춤
⑤	×	×	높임

피동 vs 사동 구분하기

2016 11월 고2 13

27. <보기>를 바탕으로 피동문과 사동문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를 보니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가 되는군.
- ② ㉢과 ㉣를 보니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도 목적어가 되는군.
- ③ ㉢과 ㉤를 보니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는군.
- ④ ㉡와 ㉤를 보니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같을 수 있군.
- ⑤ ㉤와 ㉣를 보니 사동사나 '게 하다'를 활용하여 사동문을 만들 수 있군.

피동, 사동 실현 방법

2023 6월 39

28. <보기>의 ㉠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피동문은 대응하는 능동문과 일정한 문법적 관련을 맺는다. 그중 피동문의 서술어는 능동문의 서술어에 피동의 문법 요소를 결부하여 만드는데, 국어에서는 ㉠동사 어근에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는 방법(접-/접히), ㉡접사 '하-'를 접사 '받-', '되-', '당하-'등으로 교체하는 방법(사랑하-/사랑받-), ㉢동사 어간에 '아지-/어지-'를 결합하는 방법(주-/주어지-) 등이 쓰인다. 단, '날씨가 풀리다'에서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할 때에는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한편 '없어지다'나 '거긴 잘 가지지 않는다'처럼 ㉣'아지-/어지-'는 형용사나 자동사에 변화의 의미를 더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용법일 때는 피동문을 이루지 않는다.

- ① ㉠: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터운 점퍼를 입혔다.
- ② ㉡: 내 뭇의 일거리는 형에게 건네받았다.
- ③ ㉢: 언론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자세히 밝혀졌다.
- ④ ㉣: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 ⑤ ㉣: 모두가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2018 11월 고2 14

29. 다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동문	사동문
㉠	철수가 집에 가다.	내가 철수를 집에 가게 하다.
㉡	동생이 밥을 먹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이다.
㉢	*이삿집이 방으로 옮다. (*는 비문임을 나타냄.)	인부들이 이삿집을 방으로 옮기다.

- ① ㉠의 주동문은 ㉡과 달리 사동 접미사를 활용하여 사동문을 만들 수 없다.
- ② ㉢의 사동문에서 사동 접미사 대신 '게 하다'를 활용할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 ③ ㉠과 ㉡은 모두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로 바뀐 경우이다.
- ④ ㉠과 ㉡은 모두 주동문이 사동문이 될 때, 사동문에는 새로운 주어가 생겼다.
- ⑤ ㉠, ㉡과 달리 ㉢은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경우이다.

Special한 문제

2017 수능 13

30.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활동>

동사는 목적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u>몹</u> 을 <u>여러</u>
	[현대 국어] 큰 마음을 <u>열어</u>
㉡	[중세 국어] 自然히 <u>몹</u> 이 <u>여러</u>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u>열리어</u>
㉢	[중세 국어] 번개 구름을 <u>흐터</u>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u>흐어</u>
㉣	[중세 국어] 散心은 <u>흐튼</u> <u>몹</u> 이라
	[현대 국어] 산심은 <u>홀어진</u> 마음이다.

-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실현 방법

2022 6월 고2 14

31. <보기>의 ㉠, ㉡이 모두 ㉢을 실현하고 있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국어의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인 사건시를 기준으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경우,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경우,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인 경우로 나뉩니다. 이때 시제는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어 등을 통해 실현됩니다.

- ① 지난번에 먹은 꿀이 맛있었다.
- ② 이것은 내일 내가 읽을 책이다.
- ③ 이미 한 시간 전에 집에 도착했다.
- ④ 작년에는 겨울에 함박눈이 왔었다.
- ⑤ 친구는 지금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다.

2019 6월 15

32.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어말 어미 ‘-더-’는 시간 표현, 주어의 인칭, 용언의 품사, 문장 종결 표현 등과 다양하게 관련을 맺는다.
예컨대 ‘아까 달력을 보니 내일이 언니 생일이더라.’와 같이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이라도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면 ‘-더-’가 쓰일 수 있다. 또한 ‘-더-’가 쓰인 문장에는 특정 인칭의 주어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평서문에는 1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이 경우, 의문문에는 2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단, ㉣이때도 수사 의문문에는 ‘-더-’와 함께 1인칭 주어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꿈에서 내가 하늘을 날더라.’처럼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타인이 관찰하듯이 진술할 경우 ‘-더-’가 1인칭 주어와 쓰일 수 있다.

- ① ㉠: 아까 수첩을 보니 다음 주에 약속이 있더라.
- ② ㉡: 나는 그의 합격이 놀랍더라.
- ③ ㉢: 영수야, 넌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안 믿더라?
- ④ ㉣: 기어이 우승한 그날, 우리 어찌 아니 기쁘더라?
- ⑤ ㉤: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2018 9월 15

33.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
- ㉡ 그가 집에갔다. /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
- ㉢ 내가 떠날때 비가 올 것이다. / 내가 떠날때 비가 왔다.
- ㉣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 /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한다.
- ㉤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 / 작년에 그는 키가 작았다.

- ① ㉠을 보니, 선어말 어미 ‘-겠-’이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군.
- ② ㉡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 ③ ㉢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리-’이 붙을 때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 ④ ㉣을 보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느-’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군.
- ⑤ ㉤을 보니,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군.

진행vs 완료

2016 수능 A 13

3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조 용언 구성 ‘고 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 (가)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고 있다.
- (나) 선생님은 너를 믿고 있다.
- (다) 지혜는 모자를 쓰고 있다.

(가)에서처럼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처럼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고 있’은 ‘는 중이’로 교체하여도 a의 의미가 유지되지만, (나)의 ‘고 있’은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나 b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 한편 (가), (나)에서는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데 반해, (다)에서는 문맥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고 있’이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 ① ㉠ [A: 아빠 들어오실 때 형은 뭐 하고 있었니?
B: 형은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 ② ㉡ [A: 오빠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B: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 ③ ㉡ [A: 내일이 고모님 생신이라고 하네.
B: 아,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 ④ ㉢ [A: 너 안경 잃어버렸다면? 괜찮아?
B: 눈이 아주 나쁜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 ⑤ ㉢ [A: 저 중에 신입 사원이 누구야?
B: 저기에 있잖아. 넥타이를 매고 있네.

2022 수능 예시 38

35.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정 부사를 사용하는 짧은 부정문과 보조 용언을 사용하는 긴 부정문에 대해 배웠어요. 그리고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는 것도 기억하죠? 그런데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긍정문을 단순히 부정하는 단순 부정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시된 조건에 맞게 부정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 보겠어요.

조건	부정문
짧은 능력문, 능력 부정	→ 동생은 발을 다쳐 등산을 못 갔다.
긴 능력문, 단순 부정	→ ㉠

- ① 올해는 장마철에도 비가 많이 안 왔다.
- ② 환기를 하기 위해 창문을 닫지 않았다.
- ③ 심한 어지럼증으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다.
- ④ 나무가 많아 여기는 낮에도 별이 잘 들지 않는다.
- ⑤ 충치 때문에 탄산음료는 당분간 못 마시게 되었다.

2023 9월 38

36.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의 부정에는 '안'이나 '지 않다'를 사용하는 '의지 부정'과 '못'이나 '지 못하다'를 사용하는 '능력 부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이나 '지 않다'가 사용된 부정문이 주어의 의지와 무관한 '단순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안'이나 '지 않다'는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형용사가 나타내는 성질이나 상태에는 주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에도 주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무정물이면 '안'이나 '지 않다'가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또한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고 주어가 유정물이더라도 '나는 깜빡 잊고 약을 안 먹었다.'에서와 같이 '안'이 단순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

- ① ㉠: 옛날엔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 주문한 옷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
- ② ㉠: 이 문제집은 별로 어렵지 않더라.
㉡: 저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 ③ ㉠: 나는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
㉡: 동생이 오늘 우산을 안 가져갔어.
- ④ ㉠: 내 얘기에 고모는 놀라지 않았다.
㉡: 이 물질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 ⑤ ㉠: 밤바다가 그리 고요하지는 않네.
㉡: 아주 오래간만에 비가 안 온다.

2014 4월 A 12

37. 다음은 학교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게시판'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과제를 수행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 학습 Q&A

질문

학생

오늘 문법 시간에 부정문에 대해 배웠는데, '아니(안), 못'이 쓰이면 짧은 부정문이고, '아니다, 아니하다(않다), 못하다'가 쓰이면 긴 부정문이라는 내용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 상태 부정은 구분이 잘 안 돼요.

답변

선생님

의지 부정은 '안, 아니하다' 등을 사용하여 행동 주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능력 부정은 '못, 못하다' 등을 사용하여 행동 주체의 능력이나 그 외의 다른 외부의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태 혹은 단순 부정이란 '정화는 키가 작지 않다.'와 같이 의지 부정이나 능력 부정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긴 부정문인 경우, 명령문에서는 '마/마라'를 사용하고 청유문에서는 '말자'를 사용합니다.

<보기>

문법 과제

'가다, 던지다, 먹다, 어둡다, 예쁘다'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정문을 만들어 봅시다.

- ① '가다'를 사용하여 긴 부정문의 명령문을 만들면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마라.'가 됩니다.
- ② '던지다'를 사용하여 능력 부정의 긴 부정문을 만들면 '민지는 공을 던지지 못했다.'가 됩니다.
- ③ '먹다'를 사용하여 능력 부정의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나는 밥을 못 먹었다.'가 됩니다.
- ④ '어둡다'를 사용하여 상태 부정의 긴 부정문을 만들면 '하늘이 어둡지 않다.'가 됩니다.
- ⑤ '예쁘다'를 사용하여 의지 부정의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꽃이 안 예쁘다.'가 됩니다.

2018 7월 14

38. <보기>의 사례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 지루하다 못해 졸리다.

㉡ 나는 자전거를 {못탄다/타지 못한다}.

㉢ 컴퓨터를 너무 오래지 {*않아라/*못해라/마라}.

㉣ 시간이 {못 넉넉하다/넉넉하지 못하다}.

㉤ [그녀는 결코 거짓말을 {*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히 거짓말을 {했다/하지 않았다}.

*는 비문법적 표현임.

- ① ㉠을 보니, '못하다'는 앞말의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어 뒷말을 부정하기도 하는구나.
- ② ㉡을 보니,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고, 부정 용언을 통해 실현되기도 하는구나.
- ③ ㉢을 보니, 명령문의 부정 표현에서는 '않다'나 '못하다'가 아니라 '말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 ④ ㉣을 보니,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부정 부사 대신 부정 용언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 ⑤ ㉤을 보니, 부사에 따라 반드시 부정 표현이 함께 쓰여야 하는 경우가 있겠구나.

Chapter 3.

음운론

- 01 음운과 음절
- 02 음운의 변동
- 03 단원의 마무리
- 04 적용 문제



1 음운과 음절

Step 1. 개념 강의



애들아, 여기는 하도 많이 나와서 모든 내용이 잘 나와.

개념 1 음운

음운(音韻)은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중시한다.

*그래서 음운의 변동은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 삼겹살 → [삼겹쌌]

개념 2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

- **분절 음운** : 자음, 모음
- **비분절 음운** : 억양, 장단, 높낮이 등등



조음 위치: 자음의 발음이 입 안의 어느 위치에서 이루어지느냐

조음 방식: 발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개념 3 자음

*자음은 모음의 도움없이 단독으로는 발음이 불가하므로 'ㅡ'를 붙여서 발음한다.

소리 내는 위치 소리 내는 방법		소리 내는 위치					
		입술소리	혀끝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표를 외우자!

▼ 발음기관 단면도



참고

(1) 소리 나는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

- ① 입술소리: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 ② 잇몸소리: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 ③ 센입천장소리: 혀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 ④ 여린입천장소리: 혀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 ⑤ 목청소리: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2) 소리 내는 방법에 따른 자음의 분류

- ① 파열음: 입안의 어떤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 ② 마찰음: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 ③ 파찰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막았던 자리를 조금 열고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 ④ 비음: 입안의 통로를 막았다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 ⑤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

(3) 소리의 세기에 따른 자음의 분류

- ① 예사소리: 성대를 편안히 둔 상태에서 발음되며 숨이 거세게 나오지 않음.
- ② 된소리: 성대 근육이 긴장되며 숨이 거세게 나오지 않음.
- ③ 거센소리: 성대 근육이 긴장되며 숨이 거세게 나옴.

개념 4 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단모음

혀의 최고점의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		ㅔ	ㅕ	ㅑ	ㅊ
저모음		ㅞ		ㅓ	



표를 외우자!

참고

혀의 최고점이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앞쪽에 놓이는 전설 모음과 뒤쪽에 놓이는 후설 모음
 혀의 높이가 높은 고모음, 혀의 높이가 중간인 중모음, 혀의 높이가 낮은 저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소리 내는 원순 모음과 그렇지 않은 평순 모음

이중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하는 모음 앞의 모음은 짧게 뒤의 모음은 길게 발음한다.
 이때 앞의 모음을 반모음(반자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이중모음은 'ㅣ(j)', 'ㅓ/ㅗ(w)', 'ㅡ(m)' 계로 나뉜다.

단모음	ㅣ	ㄱ	ㅔ	ㅕ	ㅞ	ㅡ	ㅈ	ㅑ	ㅊ	ㅓ
반모음	ㅣ		ㅕ		ㅞ		ㅈ	ㅊ	ㅑ	ㅓ
ㅓ/ㅗ			ㅕ		ㅞ		ㅈ		ㅑ	ㅓ
ㅡ	ㅑ									

개념 5 음절

음절: [발음]을 중심으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뉜다. 단, 음절의 개수는 중성으로 센다.

예) 미남 [미남] = 2음절

옷이 [오시] = 2음절

• **초성**: 자음이 오며, 최대 1개까지 음운이 올 수 있다.

*단 초성의 'ㅇ'은 음운이 0개이다.

• **중성**: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단모음 또는 이중 모음이 1개 올 수 있다.

• **종성**: 자음이 오며, 최대 1개까지 올 수 있다. 단,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뒤에 문제 풀고 가자!

123 ~125 페이지에 있어!



Step 2. 스스로 정리하기



2 음운의 변동

Step 1. 개념 강의

개념 ① 음운의 변동의 종류

- **교체** : A+B → C+B (음운의 개수 +0)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동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모음교체**
- **첨가** : A+B → A+C+B (음운의 개수 +1) : **ㄴ 첨가 (cf. 사이시옷 현상)**
- **축약** : A+B → C (음운의 개수 -1) : **‘ㅎ’(거센소리되기)**
- **탈락** : A+B → B (음운의 개수 -1) : **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ㄹ 탈락, 모음탈락**

개념 ② 음운의 교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받침이 되는 자음은 대표음 7개 ‘ㄱ, ㄴ, ㄷ, ㄹ, ㅁ, ㅂ, ㅇ’로만 발음된다는 규칙. (cf. 자음군 단순화)

이외의 자음들이 오게 되면 대표음으로 바뀌게 된다.

‘ㅃ, ㅍ’의 대표음은 ㅃ으로 / ‘ㅅ, ㅆ, ㅈ, ㅊ, ㅊ, ㅌ, ㅍ, ㅎ’은 대표음 ㄷ으로 / ‘ㄱ, ㅋ’은 대표음 ‘ㄱ’으로 발음된다.

예) 뭇[목], 앓는다[안는다], 많네[만네], 여덟[여덜], 외곶[외곶]...

2. 자음동화 :

- **비음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예) 밤물[밤물], 국물[궁물], 섭리[섬니]

- **유음화**: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

예) 진리[질리], 신라[실라], 칼날[칼랄], 찰나[찰라]

음절말음	음절두음	비음		유음
		ㅁ	ㄴ	ㄹ
장애음	ㅃ	ㅁㅁ	ㅁㄴ	ㅁㄴ
	ㅆ	ㄴㅁ	ㄴㄴ	ㄹㄹ
	ㄱ	ㅇㅁ	ㅇㄴ	ㅇㄴ
비음	ㅁ	ㅁㅁ	ㅁㄴ	ㅁㄴ
	ㄴ	ㄴㅁ	ㄴㄴ	ㄹㄹ
	ㅇ	ㅇㅁ	ㅇㄴ	ㅇㄴ
유음	ㄹ	ㄹㅁ	ㄹㄹ	ㄹㄹ

[표2] 발음 실현 양성 (비음영 처리는 변동이 없는 경우)

밤물[밤물]	잡는[잡는]	압력[압력]
꽃망울[곤망울]	춧농[춧농]	디글리울[디글리울]
국물[궁물]	학년[학년]	격리[경니]
섬마을[섬마을]	감나무[감나무]	감리[감니]
논문[논문]	산노루[산노루]	논리[놀리]
장매[장매]	장네[장네]	정리[정니]
실망[실망]	칼날[칼랄]	팔달로[팔달로]

[표3] [표2]의 각 항목에 대한 국어의 예

3. 구개음화 : ‘ㄷ, ㅌ’이 ‘ㅣ나 반모음ㅣ’의 형식형태소와 결합할 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ㅣ ㅈ ㅊ ㅈ ㅈ ㅈ)

예) 굳이[구지], 같이[가치], 붙였다[부첼따]

* 자음동화는 조음방식, 구개음화는 조음위치가 바뀌는 것.

4. 된소리되기 : 안울림소리+안울림소리 시 뒤의 안울림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현상

예) 깎다[깎따], 맞다[맞따], 넓다[널따]

단, 어간 말 자음이 ‘ㄴ, ㄹ’ 일 때는 뒤따르는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낸다.

예) 굵고[굵꼬], 담고[담꼬], 신고[신꼬], 안기고 [?]

5. 모음교체 : 예전에는 모음 축약이었음



아까 자음 표 외웠던 것 기억해.

개념 3 음운의 첨가

‘ㄴ’첨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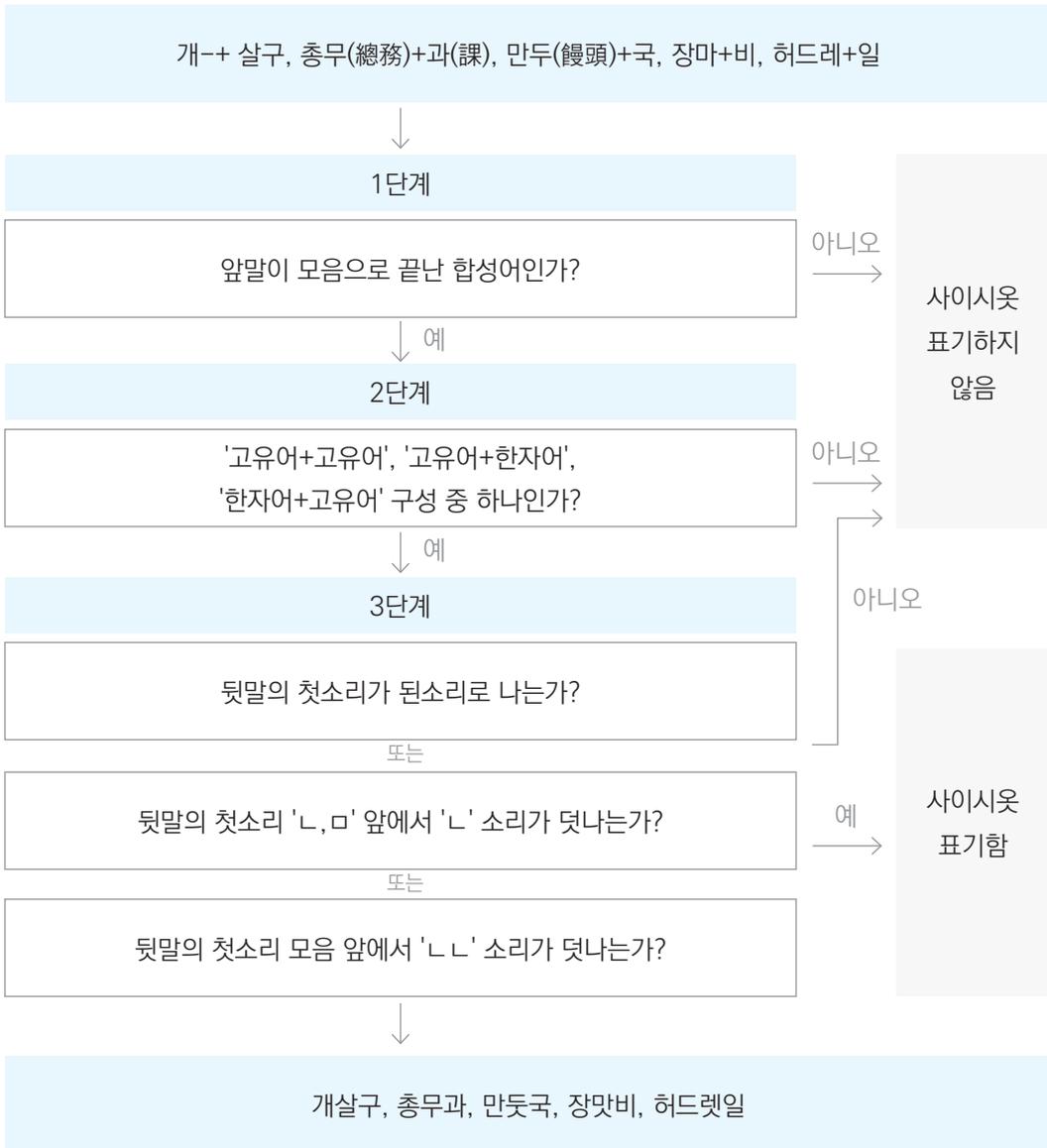
‘ | 나 | 녀 | 뇨 | 뉴 ’

- 두 말이 결합할 때 뒷말이 ‘ | 나 반모음 | 계열 ’ 인 경우 ‘ㄴ’을 첨가한다.
결과: ‘니, 나, 녀, 뇨, 뉴’

예) 공+염불=[공념불], 태양+열[태양열]
선생님: ‘결합’이란 합성어 파생어를 말한다.

- 단, ‘ㄴ첨가’와 비음화를 헛갈리지 말자
담력[담녁], 콩엿[콩녘]

Cf. 사이시옷: 발음의 변화가 표기에 까지 반영된 것이다.



개념 4 음운의 축약

축약에는 ‘ㅎ’ (거센소리되기) 을 기억하자!

예) 놓고[노코], 만형[마텥]

개념 5 음운의 탈락

탈락 : 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ㄹ 탈락, 모음탈락

1. 자음군 단순화 : 겹받침이 나올 때 둘 중 하나가 탈락하는 것

밟다[밥따]

넓다[널따] but 넓죽하다[넙쭈카다]

읽다[익다] but 읽고[일꼬]

주의해야 할 것만 딱 외우자



2. ㅎ탈락

예) 낳은[나은]

3. ㄹ탈락

예) 말소[마소]

개념 5 음운 변동의 순서

1. ㄴ 첨가 먼저 확인한다.
2. 된소리되기를 확인한다.
3.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적용시키고, 아니면 연음시킨다.
4. 그 후로는 최종 발음과의 비교를 하라.

예) 막일->[]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읽는다->[]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참고

*연음: 두 말이 이어질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 일 때 연음시킨다.



연습 문제 1 [] 안에 알맞은 발음을 넣고, 어떠한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지 쓰시오.

깎다 []

직행열차 []

해돋이 []

곧이듣다 []

쌓다 []

외곶 []

윗옷 []

흠이불 []

결단력 []

국민윤리 []

밥그릇 []

놓아라 []

날날이 []

넓더라 []

고프+아서 []

훤네 []

훈жат말 []

닭는 []

이기+엇+다 []



뒤에 문제 풀고 가자!



126 ~133 페이지에 있어!

Step 2. 스스로 정리하기



3 단원의 마무리

01. 음운과 음절

개념 1. 음운

음운(音韻)은 (1)가 아니라 ([2])을 중시한다.
 그래서 음운의 변동은 '(1)'와 '[2]'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개념 2.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

- 분절 음운 : 자음, 모음
- 비분절 음운 : 억양, 장단, 높낮이 등등

개념 3. 자음

자음표 외우기!

소리 내는 위치 소리 내는 방법		소리 내는 위치					
		1	2	3	4	5	6
1	1						
	2						
2	1						
	2						
3	1						
	2						
4	1						
	2						
5	1						
	2						
6	1						
	2						

개념 4. 모음

단모음표 외우기!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	
		1	2
1	1		
	2		
2	1		
	2		

개념 5. 음절

- 음절: ([1])을 중심으로 (2), (3), (4)으로 나뉜다.
단, 음절의 개수는 (5)으로 센다.
- 초성: (6)이 오며, (7)까지 음운이 올 수 있다. 단, 초성의 (' 8 ')은 음운이 0개이다.
- 중성: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단 (9) 또는 이중 (10)이 (11)올 수 있다.
- 종성: (6)이 오며, (7)까지 올 수 있다. 단, (12)의 자음만 올 수 있다.
(13)

01. 음운과 음절

개념 1. 음운

(1) 표기 (2) 발음

개념 3. 자음

107 페이지의 표 참고

개념 4. 모음

108 페이지의 표 참고

개념 5. 음절

(1) 발음 (2) 초성 (3) 중성 (4) 중성 (5) 중성 (6) 자음 (7) 최대 1개 (8) 'ㅇ' (9) 모음 (10) 모음 (11) 1개 (12) 7개 (13) ㄱ ㄴ ㄷ ㄹ ㅁ ㅂ ㅇ

01. 음운의 변동

개념 1. 음운의 변동의 종류

- **교체**: $A+B \rightarrow C+B$ (음운의 개수 +0): (1), (2), (3),
(4), (5).
- **첨가**: $A+B \rightarrow A+C+B$ (음운의 개수 +1): (6).
- **축약**: $A+B \rightarrow C$ (음운의 개수 -1): (7).
- **탈락**: $A+B \rightarrow B$ (음운의 개수 -1): (8), (9), (10), (11).

개념 2. 음운의 교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 1) 받침이 되는 자음은 대표음 7개 (1)로만 발음된다는 규칙.
- 2) 이외의 자음들이 오게 되면 대표음으로 바뀐다.

2. 자음동화

- 1) 비음화: (2)이 아닌 것이 (2)으로 바뀌는 현상.
- 2) 유음화: (3)이 아닌 것이 (3)으로 바뀌는 현상.

3. 구개음화

- 1) (4)이 (5)의 (6)와 결합할 때 (7)으로 바뀌는 현상.
- 2) 자음동화는 (8), 구개음화는 (9)가 바뀌는 것.

4. 된소리되기

- 1) (10)+(10)시 뒤의 안울림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현상.
- 2) 단, 어간 말 자음이 'ㄴ, ㄹ'일 때는 뒤따르는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난다.

5. 모음교체

예전에는 모음 축약이었다.

개념 3. 음운의 첨가

• 'ㄴ' 첨가:

두 말이 (1)할 때 뒷말이 (' 2 ')인 경우 (' 3 ')을 첨가한다.
단, 'ㄴ' 첨가와 비음화를 헷갈리지 말자.

- **Cf. 사이시옷**: 발음의 변화가 표기에까지 반영된 것이다.

4

적용 문제

01 음운과 음절	123
02 음운의 변동	126

음운

2019 수능 11

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	ㅑ	ㅓ	ㅕ	ㅗ
저모음	ㅕ		ㅓ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을 확인할 수 있군.

- ① 2개의 전설 모음 ② 2개의 중모음
- ③ 3개의 평순 모음 ④ 3개의 고모음
- ⑤ 4개의 후설 모음

음절

2016 6월 A 11

2.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어떤 음운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동일한 음운으로 바뀌거나, 조음 위치 또는 조음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럼 ㉠~㉣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것이 동화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 ㉠ 듣+고 → [듣꼬] ㉡ 놓+고 → [노코]
- ㉢ 훑+네 → [훑레] ㉣ 뿔+느라 → [뿔느라]
- ㉤ 넓+더라 → [널떠라]

학생:

- ①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ㄱ’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ㄱ’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②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ㅎ’이 ‘ㄱ’의 영향을 받아 ‘ㅎ’과 거센소리라는 점이 같은 ‘ㅋ’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③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ㄴ’이 ‘ㅌ’의 영향을 받아 ‘ㅌ’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ㄹ’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④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ㄴ’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과 콧소리라는 점이 같은 ‘ㄹ’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⑤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ㄴ’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과 동일한 소리인 ‘ㄷ’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음

2020 10월 13

3.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이 변하기도 합니다. 다음 단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자음 체계를 참고하여 설명해 볼까요?

말이[마지], 꽃눈[꼰눈], 강릉[강능], 실내[실래], 앞날[암날]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ㅂ/ㅃ/ㅍ	ㄷ/ㄸ/ㅌ		ㄱ/ㄲ/ㅋ	
파찰음			ㅈ/ㅊ/ㅉ		
마찰음		ㅅ/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① '말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만 한 번 변합니다.
- ② '꽃눈'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만 두 번 변합니다.
- ③ '강릉'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방법만 한 번 변합니다.
- ④ '실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가 변한 후 조음 방법이 변합니다.
- ⑤ '앞날'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방법이 변한 후 조음 위치가 변합니다.

모음

2020 4월 13

4. <보기>를 바탕으로 단모음의 변별적 자질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변별적 자질이란 한 음소를 이루는 여러 음성적 특성들을 별개의 단위로 독립하여 표시한 것이다. 하나의 변별적 자질은 오로지 두 부류로만 구별해 주며, 해당 변별적 자질이 나타내는 특성을 가진 부류는 '1', 그렇지 않은 부류는 '0'로 표시한다.

[자료 1] 단모음의 변별적 자질

- [후설성]: 혀의 전후 위치와 관련된 자질로 혀의 최고점이 중립적 위치보다 뒤에 놓이는 성질. 후설 모음은 [+후설성], 전설 모음은 [-후설성]이다.
- [고설성]: 혀의 높낮이와 관련된 자질로 혀의 최고점이 중립적 위치보다 높아지는 성질. 고모음은 [+고설성], 중모음과 저모음은 [-고설성]이다.
- [저설성]: 혀의 높낮이와 관련된 자질로 혀의 최고점이 중립적 위치보다 낮아지는 성질. 저모음은 [+저설성], 중모음과 고모음은 [-저설성]이다.
- [원순성]: 입술을 둥그렇게 오므리는 성질. 원순 모음은 [+원순성], 평순 모음은 [-원순성]이다.

[자료 2] 단모음 체계표

혀의 전후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ㄱ	ㅡ	ㅄ
중모음	ㅑ	ㅕ	ㅗ	ㅛ
저모음	ㅓ		ㅜ	

- ① 'ㅡ'는 [+후설성]으로, 'ㅣ'는 [-후설성]으로 표시한다.
- ② 'ㅜ'와 'ㅛ'는 [저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
- ③ 'ㅕ'와 'ㅗ'의 동일한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원순성]과 [-저설성]이다.
- ④ 'ㅑ'와 'ㅕ'는 [저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동일하고,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서로 다르다.
- ⑤ 'ㅑ'와 'ㅕ'는 [후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동일하고,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의 특성은 서로 다르다.

2015년 수능 A형 11번

5.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 ㉣ 중에서 고른 것은?

<보기>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 기+어 → [기여]
- ㉡ 살피+어 → [살피]
- ㉢ 배우+어 → [배워]
- ㉣ 나서+어 → [나서]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종합

2014년 9월 A형 11번

6.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보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 ① ‘가랑잎[가랑닙]’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값지다[갑찌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급행열차[그굉녘차]’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서른여덟[서른녀덧]’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2021 11월 고2 15

7.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에 대해 학생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음운의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구분됩니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다음 예시에 나타난 음운의 변동에 대해 발표해 봅시다.

- ㉠ 꽃잎→[곶닙]
- ㉡ 맑지→[막찌]
- ㉢ 막힘없다→[마키멈따]

- ① ㉠과 ㉡은 첨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 ② ㉠과 ㉢은 탈락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 ③ ㉠과 ㉢은 축약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 ④ ㉠과 ㉡은 음운의 개수가 늘었습니다.
- ⑤ ㉠과 ㉢은 음운의 개수가 줄었습니다.

2019 6월 고2 13

8.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음운의 변동은 발음 결과에 따라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바뀌는 ㉣축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 양상을 설명해 볼까요?

나는 어제 사 온 책을 읽느라 밤을 꼬박 새웠다. 목차만 훑고서 사 온 책은 기대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장시간 책을 봐서인지 머리가 아팠다. 그러나 예삿일로 생각해 어머니께서 챙겨 주신 알약을 먹지 않고 있다가 결국 몸살을 앓았다.

- ① ‘읽느라[잉느라]’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 ② ‘훑고서[홀꼬서]’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 ③ ‘예삿일[예산닐]’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 ④ ‘알약을[알랴글]’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 ⑤ ‘앓았다[아랄따]’에서 ㉠과 ㉢이 일어납니다.

2016 3월 11

9. <보기>의 (가) ~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는 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낱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 생: 둘 다 음운의 (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가) 현상이 일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낫다’와 ‘낱다’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표기 반영 여부 활용 유형	반영	미반영
규칙 활용	㉠	㉡
불규칙 활용	㉢	

학 생: ‘낫다’는 (나), ‘낱다’는 (다)에 해당됩니다.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 축약 | ㉠ | ㉢ |
| ② | 탈락 | ㉡ | ㉠ |
| ③ | 탈락 | ㉢ | ㉡ |
| ④ | 교체 | ㉡ | ㉢ |
| ⑤ | 교체 | ㉢ | ㉠ |

2017 6월 13

10.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 맑+네→[망네]
- ㉡ 낫+일→[난닐]
- ㉢ 꽃+말→[꼐말]
- ㉣ 굶+고→[글꼬]

- ① ㉠: ‘값+도→[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 ㉢: ‘입+니→[임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 ‘물+약→[물랴]’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 ㉣: ‘말+죽→[판죽]’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 ‘읽+지→[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구개음화

2017 4월 11

14.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 ~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1>

[구개음화]

교체 현상의 하나로, 받침이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 [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각각 구개음 [ㅈ], [ㅊ]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티]이 [치]이 되는 현상.

<보기2>

- 나는 벽에 ㉠붙인 게시물을 떼었다.
- 교수는 문제의 원인을 ㉡날날이 밝혔다.
- 그녀는 평생 ㉢밭이랑을 일구며 살았다.
- 그의 말소리는 소음에 ㉣묻히고 말았다.
- 그는 겨울에도 방에서 ㉤홀이불을 덮고 잤다.

- ① ㉠의 ‘붙-’은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의 ‘-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날’의 받침 ‘ㅌ’은 [치]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 ③ ㉢의 ‘이랑’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밭’의 ‘ㅌ’은 [치]으로 발음된다.
- ④ ㉣의 ‘묻-’은 접미사 ‘-히-’와 만나므로 ‘ㄷ’이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티]은 [치]으로 발음된다.
- ⑤ ㉤의 ‘홀-’과 결합한 ‘이불’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홀-’의 받침 ‘ㅌ’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모음교체

2021 9월 11

15.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령, 어간 ‘오-’와 어미 ‘-아’가 결합해 [와]로 발음될 때, 단모음 ‘ㅛ’가 반모음 ‘ㅜ’로 교체되는 것이지요. 우리말의 반모음은 ‘ㅟ’도 있으니까 반모음 ‘ㅟ’로 교체되는 예도 있겠죠? 그럼 용언 어간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ㅟ’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 네, 로 발음되는 예를 들 수 있어요.

- ① 어간 ‘뛰-’와 어미 ‘-어’가 결합해 [뛰여]
- ②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결합해 [차도]
- ③ 어간 ‘잠그-’와 어미 ‘-아’가 결합해 [잠가]
- ④ 어간 ‘견디-’와 어미 ‘-어서’가 결합해 [견더서]
- ⑤ 어간 ‘키우-’와 어미 ‘-어라’가 결합해 [키위라]

첨가

2022 수능 예시 37

16.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수영: 내일이 방송부 아나운서를 선발하는 날인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진수: 너무 걱정 마. 내가 대본에다가 발음에 주의해야 할 단어들의 표준 발음을 표시해 봤어. 확인해 봐.

[방송 대본]

어제는 책을 열심히 ㉠ 읽는[잉는] 친구에게 선물을 사려고 ㉡ 서울역[서울력] 안에 있는 서점에 갔어요. ㉢ 복잡한[복짜판] 인파를 헤치고 서점 ㉣ 깊숙이[깁쭈기] 들어가서 친구에게 줄 시집을 드디어 찾아냈지요. 시집을 펼쳐 마음에 드는 시를 ㉤ 읊다가[읍따가] 약속 시간에 늦었지만 친구는 제 선물을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수영: 그런데 왜 이 발음이 표준 발음이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데..... 우리가 배운 음운 변동과 관련이 있는 거야?

진수: 맞아. 각 단어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을 모두 살펴보면,

[A]

수영: 그렇구나.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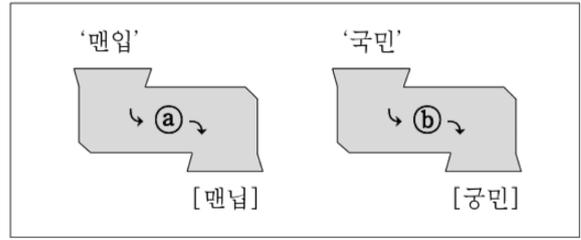
- ① ㉠에서는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잉는]으로 발음돼.
- ② ㉡에서는 한번의 첨가가 일어나 [서울력]으로 발음돼.
- ③ ㉢에서는 축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복짜판]으로 발음돼.
- ④ ㉣에서는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나 [깁쭈기]로 발음돼.
- ⑤ ㉤에서는 한 번의 탈락과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나 [읍따가]로 발음돼.

2017 3월 고2 11

17. <보기>의 설명에 따를 때, 음운 변동 ㉠, ㉡가 모두 일어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다음은 '맨입'과 '국민'을 발음할 때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맨입'은 음운 변동 ㉠이 일어나 [맨닙]으로 발음되고, '국민'은 음운 변동 ㉡가 일어나 [궁민]으로 발음된다.



- ① 막일 ② 담요 ③ 낙엽 ④ 곡물 ⑤ 강약

사이시옷: 2019년 6월 13번

18. <보기>의 [1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의 조건 ㉠~㉣가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된다. 단, ‘곳간, 셋방, 숫자, 찻간, 뒷간, 횡수’는 예외이다.

◦ 사이시옷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

- ㉠ 단어 분류상 ‘합성 명사’일 것.
- ㉡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고유어+고유어 • 고유어+한자어 • 한자어+고유어
- ㉢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 ㉣ 두 말이 결합하며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앞말 끝소리에 ‘ㄴ’소리가 덧남.
 - 앞말 끝소리와 뒷말 첫소리에 각각 ‘ㄴ’소리가 덧남.
 -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

㉠~㉣ 각각의 쌍은 위 조건 ㉠~㉣ 중 [1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같린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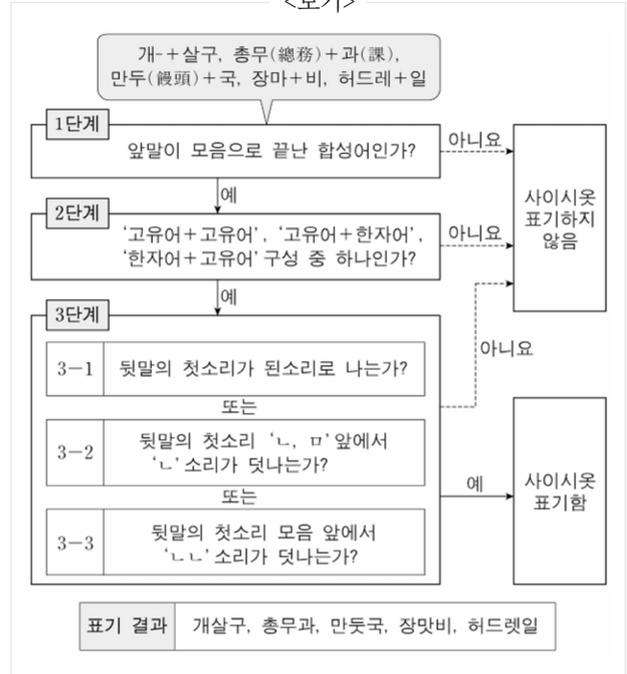
	사이시옷이 없는 단어	사이시옷이 있는 단어
㉠	도매가격[도매까격]	도맷값[도매깎]
㉡	전세방[전세뻥]	아랫방[아래뻥]
㉢	버섯국[버섯꾹]	조갯국[조개꾹]
㉣	인사말[인사말]	존댓말[존댄말]
㉤	나무껍질[나무껍질]	나뭇가지[나무까지]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2014년 9월 B형 11번

19. <보기>는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① ‘개+살구’구성은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개살구’라고 쓴다.
- ② ‘총무+과’구성은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총무과’라고 쓴다.
- ③ ‘만두+국’구성은 1, 2,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만두국’이라고 쓴다.
- ④ ‘장마+비’구성은 1, 2, 3-2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장맛비’라고 쓴다.
- ⑤ ‘허드레+일’구성은 1, 2,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허드렛일’이라고 쓴다.

축약

2022 6월 고2 13

20. <보기>는 표준 발음법 중 '받침 'ㅎ'의 발음'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ㅎ(ㅅ, ㅆ)' 뒤에 'ㄱ, ㄷ,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 ㉡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 ㉢ 'ㅎ(ㅅ, ㅆ)'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 ① '물이 끓고 있다.'의 '끓고'는 ㉠에 따라 [끓코]로 발음한다.
- ② '벽돌을 쌓지 마라.'의 '쌓지'는 ㉠에 따라 [싸치]로 발음한다.
- ③ '배가 항구에 닿네.'의 '닿네'는 ㉡에 따라 [단네]로 발음한다.
- ④ '마음이 놓여.'의 '놓여'는 ㉢에 따라 [노여]로 발음한다.
- ⑤ '이유를 묻지 않다.'의 '않다'는 ㉢에 따라 [안타]로 발음한다.

2022 3월 고2 13

21. <보기>의 ㉠,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ㅎ'은 다양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ㅎ'의 음운 변동에는 'ㅎ'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ㅎ'이 다른 음운과 합쳐져 새로운 음운이 되는 축약, 'ㅎ'이 없어서 발음되지 않는 탈락이 있다. 가령 '놓친[논친]'은 'ㅎ'이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교체의 예에 해당한다.

유형	'ㅎ'의 음운 변동		
	교체	축약	탈락
예	놓친[논친]	㉠	㉡

- | | | |
|---|---------|--------|
| | ㉠ | ㉡ |
| ① | 종고[조:코] | 닿아[다아] |
| ② | 종고[조:코] | 쌓네[싼네] |
| ③ | 넣는[넌:는] | 닿아[다아] |
| ④ | 넣는[넌:는] | 쌓네[싼네] |
| ⑤ | 좁힌[조핀] | 닿지[달치] |

탈락

2022 3월 35

22. <보기>의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활동] 제시된 단어의 발음을 [자료]에 근거하여 탐구해 보자.

훤이[훤치]	훤어[훤터]	엷는[언는]
끓고[끓코]	끓는[끓른]	

[자료]

-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에 비음화나 유음화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
- 자음군 단순화는,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구개음화되거나 뒤의 자음과 그다음 음절의 처음에 놓인 자음이 축약되면 일어나지 않음.
- 자음군 단순화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서 뒤의 자음이 연음되면 일어나지 않음.

- ① '훤이[훤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이'가 와서 'ㅌ'이 'ㄷ'으로 교체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것이군.
- ② '훤어[훤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와서 'ㅌ'이 연음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군.
- ③ '엷는[언는]'은 'ㄷ' 중 뒤의 자음인 'ㅌ'이 탈락되어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난 것이군.
- ④ '끓고[끓코]'는 'ㅎ'과 그다음 음절의 'ㄱ'이 축약되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군.
- ⑤ '끓는[끓른]'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 남은 'ㄹ'로 인해 'ㄴ'이 'ㄹ'로 교체된 것이군.

2022 7월 37

23.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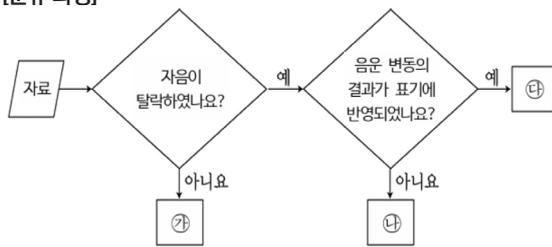
<학습 활동>

[자료]의 단어들은 음운 변동 중 탈락이 일어난 예이다. 단어들을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 ㉡,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료]

- ㉠ 뜨+어서→떠서[떠서] ㉡ 동글+ㄴ→등근[등근]
- ㉢ 종+아→종아[조:아]

[분류 과정]



- | | | | |
|---|---|---|---|
| | ㉠ | ㉡ | ㉢ |
| ① | a | c | b |
| ② | a | b | c |
| ③ | c | a | b |
| ④ | c | b | a |
| ⑤ | b | a | c |

Chapter 4.

국어사

- 01 한글(훈민정음)의 첫 등장
- 02 중세 국어 VS 현대 국어
- 03 근대 국어 VS 현대 국어
- 04 단원의 마무리
- 05 적용 문제



1 한글(훈민정음)의 첫 등장

Step 1. 개념 강의



약속하나 하자! '국어사'는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자주 나온 개념들에 익숙해지는 거야.



훈민정음 → 중세국어 → 근대국어 → 현대국어

개념 1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1. 초성 : 상형원리, 가획원리, 이체원리를 통해서 창제

가획의 원리는 소리가 세지고, 이체자는 소리의 세기와 관련 없음

	어금닛소리 (아음)	혓소리 (설음)	입술소리 (순음)	잇소리 (치음)	목구멍소리 (후음)
기본자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	ㄱ	ㄴ	ㄹ	ㅅ	ㅇ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입의 모양을 본뜬.	이의 모양을 본뜬.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가획자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	ㅋ 'ㄱ'에 획을 더함.	ㄷ 'ㄴ'에 획을 더함. ㅌ 'ㄷ'에 다시 획을 더함.	ㅍ 'ㄹ'에 획을 더함. ㅂ 'ㅍ'에 다시 획을 더함.	ㅈ 'ㅅ'에 다시 획을 더함. ㅊ 'ㅈ'에 다시 획을 더함.	ㅊ 여린히음 'ㅇ'에 획을 더함. ㅎ 'ㅇ'에 다시 획을 더함.
이체자 기본자와 모양을 달리하여 만든 글자	ㅇ 옛이음	ㄹ 반혓소리(반설음)	-	ㅅ 반잇소리(반치음)	-

2. 중성 : 상형원리, 합성원리 통해서 창제

기본자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	초출자 '·' 하나와 '丨', 'ㅡ'가 결합한 글자	재출자 '·' 하나와 초출자가 결합한 글자
	+ · → ㅏ · + → ㅑ · + ㅡ → ㅓ + · → ㅕ	· + ㅏ → ㅗ · + ㅑ → ㅛ · + ㅓ → ㅜ · + ㅕ → ㅠ

3. 중성 : 중성부용초성의 원칙에 따라 따로 만들지 않음.

(단, 발음할 때는 ㄱㄴㄷㄹㅁㅂㅅㅇ만 발음 됨.)

2 중세 국어 VS 현대 국어

Step 1. 개념 강의

중세 국어

현대 국어

근대 국어

개념 1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구분		중세 국어	현대 국어
표기	표기 방식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연철). 예) 말쌘+이 → 말쌘미	의미를 살려 형태를 밝혀 쓰는 끊어 적기(분철). 예) 말쌘이
	띄어쓰기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 예) 불·휘기·픈남·군	단어마다 띄어 씀. 예) 부리가 깊은 나무
음운	자음	- 'ㄷ·ㅅ·ㅎ·ㅇ·ㅍ' 등이 쓰임. 예) 부터웃보수부면 (부처만 뵈면) - 'ㅼ', 'ㅽ'와 같은 어두 자음군이 존재함. 예) 뵈(뵈), 뵈(뵈)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 종성으로 발음됨. 예) 뵈[釘], 뵈[池]	- 'ㄷ·ㅅ·ㅎ·ㅇ·ㅍ' 등이 쓰이지 않음. - 어두에 자음군이 남아 있지 않고, 'ㄱ, ㄴ, ㅁ, ㅂ, ㅅ, ㅈ'의 5가지 된소리로 바뀜 예) 뵈, 뵈 -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 종성으로 발음됨.
	모음	- 'ㅞ', 'ㅟ'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함. -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짐. 예) 말쌘	- 'ㅞ', 'ㅟ'를 단모음으로 발음함. - '·'가 소실되고,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음. 예) 말쌘
	성조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기 위해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음. 예) :말쌘·미	성조가 남아 있지 않음.
문법	조사	- 주격 조사 '이, ㅣ, ㅇ' 예) 시미(심+이), 내(나+ㅣ), 불휘(불휘+ㅇ) - 목적격 조사 '을/를', '을/를' 예) 나를(나+를), 부터를(부터+를) - 관형격 조사 '이/의', 'ㅅ' 예) 거부빅(거북+의), 부터ㅅ(부터의) - 호격 조사 '하'(높임의 뜻을 나타냄) 예) 님금하	- 주격 조사 '이/가', '께서' - 목적격 조사 '을/를' - 관형격 조사 '의'
	시간 표현	-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더-'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누-' -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라-'	-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 -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겠-'
	높임 표현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샤-' -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줍-/-습-' -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잇-'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았-/-었-'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 -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겠-'
	의문문	- 판정 의문문: 의문 보조사 '가, 종결 어미 '가', '너' - 설명 의문문: 의문 보조사 '고, 종결 어미 '고', '뇨' - 2인칭 주어가 쓰인 의문문: 종결 어미 '-ㄴ다'	-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의 어미를 구별하지 않고, '-(으)ㄹ까', '-(으)니' 등의 어미를 붙여 실현함. - '-ㄴ다'가 평서형 종결 어미로 사용됨.

다 잘 나오는 유형! 다 잘 나오지만, 특별히 외운다기보다는 익숙해진다고 생각하자.



개념 2 중세 국어의 격 조사

1. 주격 조사

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예) 말쌔미(말쌔+이)
ㅣ	앞말이 'ㅣ',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날 때 예) 부테 (부터+ㅣ)
∅	앞말이 'ㅣ', 반모음 'ㅣ'로 끝날 때 예) 비 (비+ ∅)

2. 관형격 조사

ㅅ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예) 말쌔미(말쌔+ㅅ)
이	앞말이 높임의 대상이 아닌 유정 명사이고,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 예) 사스미 (사슴+이)
의	앞말이 높임의 대상이 아닌 유정 명사이고,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일 때 예) 거부빅 (거북+의)

3. 목적격 조사

구분	앞말의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앞말에 받침	있음 예) 사루물 (사름+을)	을 예) 므를(믄+을)
	없음 예) 천하를 (천하+를)	를 예) 부터를 (부터+를)



유정은 동물만! 무정은 식물, 사물



뒤에 문제 풀고 가자!

145 ~148 페이지에 있어!



3 근대 국어 VS 현대 국어

Step 1. 개념 강의

중세 국어

현대 국어

근대 국어

개념 1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구분	근대 국어	현대 국어	
표기	- 이어적기 방식이 끊어적기 방식으로 바뀌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나타난 거듭적기(총철). 예) 말삼미, 밤을 -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가 섞여서 나타남. - 종성이 'ㄱ, ㅌ, ㅍ'일 때 이를 'ㄱ, ㅈ, ㅍ'와 'ㅎ'로 나누어 표기하는 재음소화 표기가 나타남. 예) 높흙시키고(높을시키고)	의미를 살려 형태를 밝혀 쓰는 끊어 적기 (분철). 예) 말삼이	
음운	자음	- 'ㄷ · ㅌ · ㅍ · ㅂ'가 15~17세기에 걸쳐 서서히 소실됨. 예) 아버지 → 어버이 - 'ㅃ', 'ㅆ'와 같은 'ㅂ', 'ㅍ' 계열 어두 자음군이 소멸하고 된소리로 바뀜. 예) 뵈 → 뵈, 뵈 → 뵈 - 구개음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남. 예) 티다 → 치다, 디하 → 지하 - 종성의 'ㄷ'와 'ㅌ'이 혼용되다가 7종성 체계로 변함 예) 밋어(밋어)	- 'ㄷ · ㅌ · ㅍ · ㅂ' 등이 쓰이지 않음. - 어두에 자음군이 남아 있지 않고, 'ㄱ, ㅋ, ㆁ, ㅌ, ㅎ'의 5가지 된소리로 바뀜 예) 꿈, 뜻 -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 종성으로 발음됨.
	모음	- '·' 음가가 소실되나 표기상으로는 남아 있어 20세기 초까지 사용됨. - 모음 조화 파괴가 나타남. 예) 하늘 → 하늘 - 양순음 'ㅁ, ㅂ, ㅃ, ㅍ' 아래 평순 모음 'ㅡ'가 원순 모음 'ㅜ'로 변함. 예) 물 → 물, 풀 → 풀	- '·'의 표기도 남아 있지 않음. -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음.
	성조	16세기부터 혼란이 일어나 17세기를 거치면서 사라져 방점 표기도 없어짐.	성조가 남아 있지 않음.
문법	조사	주격 조사 '가'가 나타나 주격 조사 '이'와 구별됨. 예) 비가 (배가)	주격 조사 '이'가, 께서, 예서' 등이 쓰임.
	높임 표현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줍-/-습-'의 기능이 소멸됨.	객체 높임은 부사격 조사 '께나' 특수 어휘 등으로 실현되고 상대 높임은 종결 표현으로 실현됨.
	어미	명사형 어미 '-기'가 활발하게 쓰임. 예) 붉기 (붉기)	명사형 어미 '-(으)ㅁ', '-기'가 모두 쓰임.

1. 근대 국어와 근대 국어의 구개음화 비교

근대 국어 한 형태소 내부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남. 구개음화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됨.
예) 지나가는 → 지나가는

현대 국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경계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남. 구개음화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음.
예) 굳--+이 → 굳이 [구지]

2. '·'(아래아)의 소실

무습 → 무음 → 마음
16세기 둘째 음절의 '·' → 'ㅡ'
18세기 첫째 음절의 '·' → 'ㅏ'

부름 → 부람 → 바람
16세기 둘째 음절의 '·' → 'ㅏ'
18세기 첫째 음절의 '·' → 'ㅏ'

'·'(아래아) 소실의 영향
양성 모음 '·'는 음성 모음 'ㅡ'와 대응되어 쓰였으나 '·'가 소실되면서 음성 모음 'ㅡ'에 대응하는 양성 모음이 사라져 모음 조화가 파괴되기 시작함.
예) 잘--+으니 → 자브니
양성 모음 음성 모음

3. 'ㅏ'(반치음)와 'ㅑ'(순경음 비음)의 소실과 불규칙 활용

'ㅏ'(반치음)의 소실	'ㅏ'은 'ㅑ'의 울림소리로, 16세기 중반에 소실됨. 예) 처ㅏ → 처음, 처ㅏ → 처음, 아ㅏ → 아우 → 아우, 소ㅏ → 소이 → 사이, 어ㅏ → 어버이
'ㅑ' 불규칙 용언	현대 국어에서 'ㅑ'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은 중세 국어 시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 받침이 'ㅏ'으로 나타나던 용언들임. 예) (죽을) 짓다 [중세] 짓--+어 → 저서 / [현대] 짓--+어 → 저어
'ㅑ'(순경음 비음)의 소실	'ㅑ'은 'ㅑ'의 울림소리로, 15세기 중반부터 'ㅏ', 'ㅑ' 앞에는 반모음 'ㄹ/ㄴ[w]'로 바뀌었고, '·', 'ㅡ' 앞에서는 '·', 'ㅡ'와 결합하여 'ㄹ', 'ㄴ'으로 바뀜. 예) 글ㅑ → 글ㅑ[文], 도ㅑ시니 → 도ㅑ시니 → 도우시니, 셔ㅑ → 셔을 → 셔을
'ㅑ' 불규칙 용언	현대 국어에서 'ㅑ'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은 중세 국어 시기에 'ㅑ'을 어간 받침으로 가지고 있던 용언들임. 예) (마음) 꺾다 [중세] 꺾--+어 → 고ㅑ [현대] 꺾--+어 → 고ㅑ



뒤에 문제 풀고 가자!



149 ~ 151 페이지에 있어!

Step 2. 스스로 정리하기



2 단원의 마무리

01. 한글(훈민정음)의 첫 등장

개념 1.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1. 초성 : 상형원리, 가획원리, 이체원리를 통해서 창제
가획의 원리는 소리가 세지고, 이체자는 소리의 세기와 관련 없음
2. 중성 : 상형원리, 합성원리 통해서 창제
3. 종성 : 종성부용초성의 원칙에 따라 따로 만들지 않음.

개념 2. 글자의 운용

1. 이어쓰기: 입술소리와 'ㅇ'을 위아래로 이어서 순경음으로 만드는 것.
2. 나란히쓰기:
 - 1) 각자병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씀 "ㄱ, ㄲ, ㅅ, ㅆ, ㅈ, ㅊ".
 - 2) 합용병서: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씀 "ㅅㅅ ㅅㅆ ㅆㅆ ㅆㅈ ㅆㅊ ㅈㅈ ㅈㅊ ㅊㅊ".
3. 붙여쓰기: 종성자는 초성자의 아래쪽이나 오른쪽에 붙여 씀.
4. 어두자음군: 합용병서가 초성에 나오는 경우.
5. 성조: 방점으로 높낮이 표현. 평성, 거성, 상성.
6. (1) 말쓰미, (2) 말쌈이, (3) 말쌈미.

02. 중세 국어 vs 현대 국어

개념 1.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외운다기보다는 익숙해진다고 생각하자!

03. 근대 국어 vs 현대 국어

개념 1.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외운다기보다는 익숙해진다고 생각하자!

01. 한글(훈민정음)의 첫 등장

개념 2. 글자의 운용

(1) 이어적기 (2) 끊어적기 (3) 거듭적기

5

적용 문제

- 01 한글(훈민정음)의 첫 등장 143
- 02 중세 국어 vs 현대 국어 145
- 03 근대 국어 vs 현대 국어 149

2023 수능 37

1.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활동>

다음은 중세 국어의 문자 및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에서 ㉠~㉣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모두 골라 묶어 보자.

- ㉠ 乃녕終중ㄱ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쓰느니라
[중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다시 초성 글자를 사용한다]
- ㉡ ㅇ을 입시울소리 아래 니서 쓰면 입시울 가비아쁜 소리 두외느니라
[ㅇ을 순음 글자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 글자가 된다]
- ㉢ 첫소리를 어울워 뽏디면 글바 쓰라 乃녕終중ㄱ소리도 가지라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하려면 옆으로 나란히 쓰라 중성 글자도 마찬가지로]
- ㉣ ·와 ㅡ와 ㅜ와 ㅛ와 ㅝ와 ㅞ와란 첫소리 아래 브터 쓰고
[·, ㅡ, ㅜ, ㅛ, ㅝ, ㅞ는 초성 글자 아래에 붙여 쓰고]
- ㉤ ㅣ와 ㅑ와 ㅓ와 ㅕ와 ㅗ와란 올흔녀기 브터 쓰라
[ㅣ, ㅑ, ㅓ, ㅕ, ㅗ는 초성 글자 오른쪽에 붙여 쓰라]

[자료] 뻘니, 분, 사비, 스키불, 짝, 훑

- ① ㉠: 뻘, 짝, 훑 ② ㉡: 사비, 스키불
- ③ ㉢: 뻘니, 짝, 훑 ④ ㉣: 분, 스키불, 훑
- ⑤ ㉤: 뻘니, 사비, 짝

2015학년도 수능 B형 14

2. <보기 1>의 학생 의견과 관련된 한글의 제자 원리를 <보기 2>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기1>

학습 활동: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면서 생각한 바를 각자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 학생1: ‘ㄱ’의 글자 모양이 그 소리를 낼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과 관련된다니 한글은 정말 대단해요.
- 학생2: 휴대 전화 자판 중에는 ‘·, ㅡ, ㅣ’를 나타내는 3개의 자판만으로 모든 모음자를 입력하는 것도 있어서 참 편리해요.
- 학생3: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의 관계가 <A>—<A에 획 추가>—<AA>로 글자 모양에 나타나 있어서 참 체계적인 문자인 것 같아요.
- 학생4: ‘ㅁ’과 ‘ㅂ’에 획을 추가해서 만든 자음자들은 ‘ㅁ’모양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포함된 ‘ㅁ’모양은 이들 자음자들의 공통된 소리 특징을 반영한 것이에요.
- 학생5: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면서도 받침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글자 수가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보기2>

한글의 제자 원리
 가. 초성자와 중성자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나. 기본자에 가획하여 새로운 초성자를 만들었다.
 다.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또 다른 초성자로 사용하였다.
 라. 기본자 외의 8개 중성자는 기본자를 합하여 만들었다.

- ① 학생1-가, 나 ② 학생2-다, 라
- ③ 학생3-나, 다 ④ 학생4-나, 라
- ⑤ 학생5-가, 라

2014 9월 고2 B 16

3.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학생이 탐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훈민정음의 초성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중성은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초성은 ‘가획(加劃)’의 원리를 적용하여 가획자와 예외적인 글자인 이체자를 만들었고, 중성은 ‘합용(合用)’의 원리를 적용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습니다. 중성은 따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의 글자를 다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서(이어 쓰기)’, ‘병서(나란히 쓰기)’, ‘부서(붙여 쓰기)’ 등의 방법으로 글자를 운용했습니다. 다음 예를 통해 그 특징을 파악해 보십시오.

원리	예시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 가획	ㄴ	ㄷ, ㅌ	ㄹ
㉡ 합용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 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ㅡ
㉢ 연서	ㅃ, ㅍ, ㅍ, ㅍ.		
㉣ 병서	ㅌ, ㄷ, ㅃ, ㅅ, ㅈ, ㅎ, 시, ㅃ, ㅃ		
㉤ 부서	ㄱ, 가, 고, 거		

- ① ㉠과 ㉡의 기본자는 모두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지만, 초성은 가획의 방법으로, 중성은 합용의 방법으로 글자를 더 만들었겠군.
- ② ㉡의 초출자 ‘ㅏ’는 기본자 ‘·’와 ‘ㅡ’를 합해서 만들었겠군.
- ③ ㉢과 ㉣의 예를 보면 훈민정음 제작 당시는 현대 국어에는 사용하지 않는 자음도 사용했겠군.
- ④ ㉣의 예를 보면 병서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적기도 하고 다른 글자를 나란히 적어 운용하기도 했군.
- ⑤ ㉤의 예는 초성의 아래나 왼쪽에 중성을 붙여서 사용한 것으로 현대 국어도 사용하는 글자 운용 방법이군.

2021년 9월 15번

4.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나랏·말쑈·미 中 國·국·에 달·아 文 文 字·중·와로 서르·스·못·
 디·아·니·홀·씨·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씨·성·이 니르·고·져
 ·홀·배·이·셔·도 무·춤·내 제·쁘·들 사·려·퍼·디·문·홀·노·미
 하·니·라·내·이·를 爲·왕·호·야·어·엿·비·너·겨·새·로·스·물·여
 들 字·중·를·밍·고·노·니·사·름·마·다·히·예·수·비·나·겨·날·로
 ·뿌·메 便·便·安·안·키·호·고·져 홀·썩·루·미·나·라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없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말쑈·미’와 ‘홀·배’에 쓰인 주격 조사는 그 형태가 동일하군.
- ② ‘하·니·라’의 ‘하다’는 현대 국어의 동사 ‘하다’와 품사가 동일하군.
- ③ ‘이·를’과 ‘새·로’에는 동일한 강약을 표시하는 방점이 쓰였군.
- ④ ‘히·예’와 ‘便·便·安·안·키 호·고·져’에는 모두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⑤ ‘뿌·메’에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쁘다’가 쓰였군.

2020 6월 13

5. <보기>의 ㉠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종결 어미나 보조사가 달리 쓰인다. 예를 들면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판정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녀’, 설명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뇨’가 쓰인다. 반면,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판정 의문문에서는 보조사 ‘가’, 설명 의문문에서는 보조사 ‘고’가 쓰인다. 그런데 주어가 2인칭 일 때에는 의문문의 종류와 관계없이 종결 어미 ‘-나다’가 쓰인다. 중세 국어 의문문의 예는 아래와 같다.

- 이 일후미 (㉠)
[이 이름이 무엇인가?]
- 네 엇테 아니 (㉡)
[네가 어찌 안 가는가?]
- 그되논 보디 (㉢)
[그대는 보지 않는가?]

	㉠	㉡	㉢
①	므스고	가노뇨	아니호는다
②	므스고	가는다	아니호는다
③	므스고	가노뇨	아니호느녀
④	므스가	가는다	아니호는다
⑤	므스가	가노뇨	아니호느녀

2022 4월 39

6.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羅雲(나운)이 저머 노르술 즐겨 法(법) 드로몰 슬히 너겨 호거 든 부테 조로 니르샤도 從(중)호습디 아니호더니 後(후)에 부테 羅雲(나운)이드려 니르샤디 부터 맛나미 어려브며 法(법) 드로미 어려브니 네 이제 사루미 모몰 得(득)하고 부터를 맛나 잇느니 엇테 게을어 法(법)을 아니 듣는다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나운이 어려서 놀이를 즐겨 법을 듣기를 싫게 여기니, 부처가 자주 이르셔도 따르지 아니하더니, 후에 부처가 나운이더러 이르시되, “부처를 만나기가 어려우며 법을 듣기 어려우니, 네가 이제 사람의 몸을 득하고 부처를 만나 있으니, 어찌 게을러 법을 아니 듣는가?”

- ① ‘부테’를 통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가 결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니르샤도’를 통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從(중)호습디’를 통해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어려브며’를 통해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음운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사루미’를 통해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의 관형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3 6월 37

7.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객체 높임은 일반적으로 주체가 목적어나 부사어로 지시되는 대상인 객체보다 지위가 낮을 때 어휘적 수단이나 문법적 수단으로써 객체를 높이 대우하는 것이다. 전자는 객체 높임의 동사(‘숯-, ‘아뢰-’등)를 쓰는 방법이고, 후자는 객체 높임의 조사(‘씩-, ‘께)를 쓰는 방법과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습-’등)를 쓰는 방법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썼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는다. 다음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 다 숯고 부터의 禮數호습고
[이 말 다 아뢰고 부처께 절 올리고]

<보기2>

- ㉠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보습고져 호노니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뵈고자 하니]
- ㉡ 須達이 舍利弗의 가 [수달이 사리불께 가서]
- ㉢ 내 이제 世尊의 숯노니 [내가 이제 세존께 아뢰니]
- ㉣ 여보, 당신이 이모님께 어머님 모시고 갔었어?
- ㉤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친 덴 없는지 여쭙 보셨다.

- ① ㉠: 어휘적 수단으로 객체인 ‘너희 스승님’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 ② ㉡: 문법적 수단으로 객체인 ‘舍利弗(사리불)’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 ③ ㉢: 조사 ‘씩’와 동사 ‘숯 노니’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 ④ ㉣: 조사 ‘께’와 동사 ‘모시고’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 ⑤ ㉤: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고려하면 동사 ‘여쭙’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2018 6월 15

8.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1>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서술적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먼저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가 나타났다.

◦상네 쓰는 힘 일후미라(일흠+이라) (보통 쓰는 해의 이름이다)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牛頭는 쇠 머리라(머리+라) (우두는 소의 머리이다)

그리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가 나타났다.

◦生佛은 사라 계신 부테시니라(부터+ㅣ시니라) (생불은 살아 계신 부처이시다)

<보기2>

- 齒는 ㉠ (치는 이이다)
- 所는 ㉡ (소는 바이다)
- 樓는 ㉢ (누는 다락이다)

- | | ㉠ | ㉡ | ㉢ |
|---|-----|-----|------|
| ① | 니이라 | 바이라 | 다락라 |
| ② | 니라 | 배라 | 다락ㅣ라 |
| ③ | 니이라 | 바라 | 다락ㅣ라 |
| ④ | 니라 | 배라 | 다라기라 |
| ⑤ | 니ㅣ라 | 바이라 | 다라기라 |

2019 6월 고2 15

9.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중세 국어의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

◦ 주체 높임법: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주체 높임법은 주로 선어말 어미 '-시-/-샤-'를 통해 실현된다. 또한 특수 어휘나 조사에 의해 실현되기도 한다.

◦ 객체 높임법: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객체 높임법은 주로 선어말 어미 '-습-/-줍-/-습-'을 통해 실현된다. 또한 특수 어휘나 조사에 의해 실현되기도 한다.

<보기2>

㉠ 世尊(세존)스 안췌(안부) 문췌고 니르샤디
[A]

므스므라 오시니잇고
[B]

[세존의 안부를 여췌고 이르시되 무슨 까닭으로 오셨습니까?]

㉡ 네 아드리 各各(각각) 어마님내 뵈습고
[네 아들이 각각 어머니를 모시고]

- ① ㉠의 [A]에서 주체 높임은 실현되었으나 그 주체가 생략되었다.
- ② ㉠의 [A]에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다.
- ③ ㉠의 [B]에서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④ ㉡에서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들'을 존대하였다.
- ⑤ ㉡에서는 객체인 '어마님'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였다.

2020 수능 15

10. <보기 1>의 ㉠ ~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1>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음운 조건에 따라 '이', '∅(영형태)', 'ㅣ'로 실현되었다.

◦ 자음 다음에는 '이'가 나타났다.㉠
예) 바비(밥+이) [밥이]

◦ 모음 '이'나 반모음 'ㅣ' 다음에는 '∅(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예) 활 소리(활 쏘 이+∅) [활 쏘 이가], 새(새+∅) [새가]

◦ 모음 '이'와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 다음에는 'ㅣ'가 나타났다. 예) 쇠 (쇼+ㅣ) [소가]

◦ 음운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되기도 했다.㉢
예) 꽃 도쿄 [꽃 좋고], 나모 셋논 [나무 서 있는]

<보기2>

- ㉠: 나리져므려 [날이 저물어]
- ㉡: 太子오느다 드르시고 [태자 온다 들으시고]
- ㉢: 내해 드리업도다 [개천에 다리가 없도다]
- ㉣: 아드리孝道하고 [아들이 효도하고]
- ㉤: 孔子ㅣ 드르시고 [공자가 들으시고]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2021 9월 고2 15

11. <보기>의 ㉠ ~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중세 국어에서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 ‘-터-’를 사용하여, 미래 시제는 선어말 어미 ‘-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하지만 현재 시제는 품사에 따라 다르게 표현했는데, 동사는 선어말 어미 ‘-느-’를 사용하였고 형용사와 ‘체언+이다’는 특정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다.

- 내 (㉠)
[내가 가겠습니다.]
- 사르미 (㉡)
[사람의 스승이시다.]
- 네 이제 쏘 (㉢)
[네가 이제 또 묻는다.]

- | | ㉠ | ㉡ | ㉢ |
|---|------|--------|-----|
| ① | 가리이다 | 스스이시다 | 묻느다 |
| ② | 가리이다 | 스스이시다 | 묻다 |
| ③ | 가리이다 | 스스이시느다 | 묻느다 |
| ④ | 가터이다 | 스스이시다 | 묻느다 |
| ⑤ | 가터이다 | 스스이시느다 | 묻다 |

2017 3월 14~15

15세기 국어의 모음 조화는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비교적 잘 지켜졌다. 한 형태소 내의 모음들을 살펴보면 ‘ㅏ, ㅑ, ㅓ’ 등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ㅕ, ㅗ, ㅛ’ 등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렸다. 중성 모음 ‘ㅣ’는 양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고, 음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였다. 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단어가 형성되거나 체언에 조사가 연결될 때, 용언 어간에 어미가 연결될 때에도 조사나 어미의 첫 모음은 그에 선행하는 모음과 같은 성질의 모음이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목적격 조사는 그에 선행하는 명사의 모음에 따라 ‘을/을, 를/를’ 중 하나가 선택되었고, ‘-은/-은’, ‘-음/-음’, ㉠ ‘-아/-어’와 같은 어미도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에 따라 규칙적으로 선택되었다. 다만, 조사 ‘도’, ‘와/과’나 어미 ‘-고’, ‘-더’ 등은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16세기부터 모음 조화는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ㅓ’의 소실과 관계가 있다. 16세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의 ‘ㅓ’가 소실되면서 주로 ‘-ㅓ’에 합류하였다. 첫째 음절에서의 ‘ㅓ’는 여전히 양성 모음이었으나,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ㅓ’ 대신 음성 모음인 ‘-ㅓ’가 쓰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체언에 연결되는 ‘은/은’, ‘을/을’, ‘이/의’ 등의 조사는 점차 ‘은’, ‘을’, ‘의’ 등으로 통일되었고, 모음 조화를 지키던 ‘사슴’과 같은 단어들은 ‘사슴’과 같이 모음 조화를 어기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후 18세기에 첫째 음절에서의 ‘ㅓ’가 주로 ‘ㅏ’에 합류하면서 ‘ㅓ’는 완전히 소실되었고, 국어의 모음 체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모음 조화가 약화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출렁출렁’, ‘출렁출렁’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나 ㉡ 일부 용언의 어간 뒤에 ‘-아/-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2. ㉠과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세기 국어		현대 국어	
	용언 어간	활용형	용언 어간	활용형
①	알-	아라	알-	알아
②	먹-	머거	먹-	먹어
③	씨오-	씨와	깨우-	깨워
④	쁘-	뼈	쓰-	써
⑤	꺾-	꺾야	가득하-	가득하여

13.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겨스레 소음 둔 오솔 님디 아니 호고 녀르메 서늘흔 디 가디
아니 호며 호루 뽕 두 호부로써 죽을 밍골오 소곰과 누물 홀
먹디 아니 호더라
-『내훈』(1447년)에서 -

[현대어 풀이]
겨울에 숨 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름에 서늘한 데 가지 아
니하며 하루 쌀 두 홉으로써 죽을 만들고 소곰과 나물을 먹지
아니하더라.

(나)
타락과 초와 장과 소곰과 계주 그루와 파과 마늘과 부치와 기
름과 땃무우과 외와 가지 등 여러가지 누물과 둥기 알과
-『박통사언해』(1677년)에서 -

[현대어 풀이]
타락과 식초와 장과 소곰과 겨자 가루와 파와 마늘과 부추와
기름과 당근과 오이와 가지 등 여러 가지 나물과 닭의 알과

- ①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가)의 ‘겨슬’과 ‘호루’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② 15세기에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가)의 ‘오솔’과 ‘죽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③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가)의 ‘호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④ 17세기에는 모음 조화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나)의 ‘초와’와 ‘파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⑤ 둘째 음절의 ‘ㅓ’가 ‘ㅓ’로 변화하였음을 (가)의 ‘누물’과 (나)의 ‘누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2018년 수능 12번

14.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탐구 목표]
현대 국어의 인칭 대명사 '누구'의 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자료]
(가) 중세 국어: 15세기 국어
 ◦ 누를 니르더뇨(누구를 이르던가?)
 ◦ 네 스승 이 누고(네 스승이 누구인가?)
 ◦ 누몬 누구(남은 누구인가?)

(나) 근대 국어
 ◦ 이 벗은 누고고(이 벗은 누구인가?)
 ◦ 저 훈 벗은 누구고(저 한 벗은 누구인가?)

(다) 현대 국어
 ◦ 누구를 찾으세요?
 ◦ 누구에게 말했어요?

[탐구 내용]

[탐구 결과]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고',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다.

- ① (가)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 '누고', '누구'이다.
- ② (나)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고', '누구'이다.
- ③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이다.
- ④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 ⑤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이 쓰이고 있다.

2019년 수능 12~13번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ㄹ'로 끝나는 명사 '발', '술', '이튿날'이 ㉠'발가락', ㉡'소나무', ㉢'이튿날'과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받침 'ㄹ'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한다.

'소나무'에서는 '발가락'에서와는 달리 받침 'ㄹ'이 탈락하였고, '이튿날'에서는 받침이 'ㄹ'이 아닌 'ㄷ'이다. 모두 'ㄹ'받침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현대 국어에는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뀌거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대 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발가락'은 중세 국어에서 대부분 '발가락'으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 'ㅅ'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발가락'은 구로 파악된다. 이는 '발 엄지가락(엄지발가락)'과 같은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후 'ㅅ'은 점차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고 합성어 내부의 사이시옷으로만 흔적이 남았는데, 이에 따라 중세 국어 '발가락'은 현대 국어 '발가락[발까락]'이 되었다.

'소나무'는 중세 국어에서 명사 '술'에 '나무'의 옛말인 '나모'가 결합하고 'ㄹ'이 탈락한 합성어 '소나모'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ㄴ, ㄷ, ㅅ, ㅈ'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술'의 'ㄹ'이 탈락하였다.

'이튿날'은 중세 국어에서 자립 명사 '이튿'과 '날' 사이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이튿날'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ㅅ'은 '이튿 밤', '이튿 길'에서의 'ㅅ'과 같은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이튿날'은 '이튿 날'로도 나타났는데, 근대 국어로 오면서는 'ㄹ'이 탈락한 합성어 '이튿날'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ㅅ'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 가고,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글맞춤법」에서는 '이튿날'의 표기와 관련하여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소리가 'ㄷ'소리로 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튿날'로 적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의 'ㄷ'은 'ㄹ'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중세 국어 '뭇사람'에서 온 '뭇사람'에서처럼 'ㅅ'으로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15. 윗글을 참고할 때, ㉠ ~ ㉣과 같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예를 <보기>에서 각각 하나씩 찾아 그 순서대로 제시한 것은?

<보기>

무술(물+술) 쌀가루(쌀+가루)
 낱알(낱+알) 솔방울(솔+방울)
 선달(철+달) 푸나무(풀+나무)

- ① 솔방울, 무술, 낱알 ② 솔방울, 푸나무, 선달
- ③ 푸나무, 무술, 선달 ④ 쌀가루, 푸나무, 낱알
- ⑤ 쌀가루, 솔방울, 선달

16.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탐구 주제]
 ◦ '숟가락'은 '젓가락'과 달리 왜 첫 글자의 받침이 'ㄷ'일까?

[자료]

중세 국어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자버며 저 놓느니(숟가락 잡으며 젓가락 놓으니) • 숯 근(숟가락의 끝), 젓 가락 근(젓가락 끝), 수저(수저) • 물(무리), 뭇 사름 (뭇사람, 여러 사람) 	
근대 국어의 예	현대 국어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숟가락 장스(숟가락 장사) • 뭇사름 (뭇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로 밥을 뜨다 • 숟가락으로 밥을 뜨다 • 밥 한 술

*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중세 국어 '술'과 '저'는 중세 국어 '이틀'처럼 자립 명사라는 점에서 현대 국어 '술'과는 차이가 있군.
- ② 중세 국어 '술'과 '저'의 결합에서 'ㄹ'이 탈락한 합성어가 현대 국어 '수저'로 이어졌군.
- ③ 중세 국어 '술'과 '저'는 명사를 수식할 때, 중세 국어 '이틀'이나 '물'과 같이 모두 관형격 조사 '시'이 결합할 수 있었군.
- ④ 근대 국어 '숟가락'이 현대 국어에 와서 '숟가락'으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튿날'의 경우와 같군.
- ⑤ 현대 국어 '숟가락'과 '뭇사람'의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는 중세 국어 '숯'과 '뭇'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ㄹ'이 탈락한 후 남은 'ㅅ'의 발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군.

Chapter 5.

그 외

- 01 한글맞춤법
- 02 정확한 문장 표현
- 03 외래어 표기법
- 04 로마자 표기법
- 05 단원의 마무리
- 06 적용 문제



1 한글 맞춤법

Step 1. 개념 강의



여기도 외우는 게 아니야. 자주 나온 걸 정리해 놓은 것일 뿐!

개념 ① 총칙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리대로 적기(표음주의)** = 발음대로 표기함

예) 바다, 나무, 하늘, 여름

• **어법에 맞도록 적기(표의주의)** = 원형을 살려서 적음. 발음과 표기가 다름

예) 체언+조사: 꽃이, 꽃을, 꽃에서,

용언+어미: 읽고 읽지만 읽는다

체언+체언: 꽃나무 꽃밭 꽃다발 등

개념 ② 된소리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뚜렷한 까닭 없이는 음운의 변동에서 '된소리 되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예) 소쩍새 어깨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가끔 거꾸로 부씩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예)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움짤 몽땅 엉뚱하다

3)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수 깎두기 딱지 색시 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개념 3 **두음법칙**

단어 첫머리에 'ㄴ'이나 'ㄹ'이 오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왜요?



발음이 어렵잖아!

• 'ㄴ'이 오지 못하는 경우 :

한자음 '니, 녀, 뇨, 뉴'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이, 여, 요, 유'로 적는다.

예) 여자(女子) 요소(尿素) 유대(紐帶) 익명(匿名)

• 'ㄹ'이 오지 못하는 경우 :

한자음 '랴, 리, 려, 료, 류, 례'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이, 여, 요, 유, 예'로 적는다.

예) 양심(良心) 용궁(龍宮) 역사(歷史) 유행(流行) 예의(禮儀) 이발(理髮)

다만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예) 나열(羅列)치열(齒列)분열(分裂)선열(先烈)규율(規律)비율(比率)실패율(失敗率)선율(旋律)전율(戰慄)백분율(百分率)

개념 4 **사이시옷**

음운의 변동 'ㄴ'첨가 부분에 있으니깐 앞에서 확인해. (Page 99에서 배웠음!)

개념 5 **준말**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ㄱ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예) 간편하게→간편케, 다정하다→다정타, 연구하도록→연구토록, 정결하다→정결타, 가하다→가타, 흔하다→흔타

다만,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거북하지→거북지, 생각하건대→생각건대, 깨끗하지 않다→깨끗지 않다, 못하지 않다→못지 않다



뒤에 문제 풀고 가자!



169 ~172 페이지에 있어!

Step 2. 스스로 정리하기



2 정확한 문장 표현

Step 1. 개념 강의



개념 ① 틀린 문장으로 자주 나오는 유형

그 외에는 나무위키에서 “자주 틀리는 한국어/목록”을 쳐보자!

1. 문장성분 갖춰쓰기 문제

• 주어가 생략된 문장

예)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개통될 지 모른다.
⇒ 바르게 고쳐보자

•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

예) 사람은 남에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 바르게 고쳐보자

• 부사어가 생략된 문장

예)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
⇒ 바르게 고쳐보자

• 불필요한 문장 성분이 있는 경우

1) 단어의 중복이 있는 경우

예) 선생님 수업의 장점은 문법도 잘하고, 문학도 잘하고, 독서도 잘하는 게 장점이다.
⇒ 바르게 고쳐보자

2) 의미의 중복이 있는 경우

예) 역전앞할머니맥주, 처갓집치킨
⇒ 바르게 고쳐보자

2. 문장 성분간의 호응 문제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예)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 바르게 고쳐보자

•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예)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야구와 공을 찬다.
⇒ 바르게 고쳐보자

•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

예)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였던 것이다.
⇒ 바르게 고쳐보자

• 조사와 서술어의 호응

예)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동참합니다..
⇒ 바르게 고쳐보자

*

참고,
결코, 전혀, 통, 감히, 도무지, 여간, 그다지는
부정표현과 호응한다.

3. 문장의 접속 관계

표출이었다. 에드레인이었다. 스타크래프트 1.16.1 다운로드 그리고 네르크의 집에 립버전 거의 당도했을 때 두 명의 스승이기도 했지만 그녀는 실행만을 앞에 서있는 샤옌의 말에 점차 고도를 낮췄다.

그 남자는 얼굴이 잘 생겼기 때문에 성격이 안 좋았다.
⇒ 바르게 고쳐보자

4. 부정문의 중의성 문제

세호는 결혼식은 오지 않았다.
⇒ 바르게 고쳐보자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
⇒ 바르게 고쳐보자

5. 수식어의 중의성 문제

소개팅에서 예쁜 친구의 동생을 만난다.
⇒ 바르게 고쳐보자

6. 불필요한 사동표현 문제

좋은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 바르게 고쳐보자

7. 이중 피동 문제

도둑이 잡혀지었다.
⇒ 바르게 고쳐보자

8. 잘못된 높임법 문제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 바르게 고쳐보자



뒤에 문제 풀고 가자!



173 ~176 페이지에 있어!

Step 2. 스스로 정리하기



3 외래어 표기법

Step 1. 개념 강의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을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주로 외래어를 존중해주는 쪽으로 만들어지되, 한국인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만들어졌어.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현대 국어에는 없는 발음, 예를 들면 [f]나 [z] 같은 발음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거나, 혹은 이미 사라진 ‘ㅇ’이나 ‘ㄷ’ 같은 옛글자를 살려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예) f = 'ㅍ(100%)' : 파일, 파이팅, 프라이팬, 피니시, 피날레, 판타스틱, 패밀리, 팡파르, 플래시

외래어를 적을 때는 글자가 아닌 그 글자가 나타내는 발음을 기준으로 적는데, 같은 발음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는 뜻이다.

다만, 하나의 글자로 여러 발음을 나타낼 수는 있다. 자모 24개만으로 세상의 모든 발음을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발음 [f]는 ‘ㅍ’으로만 적어야 하지만, 글자 ‘ㅍ’은 발음 [f]를 적는 데도, [p]를 나타내는 데도 쓸 수 있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예) chocolate 초콜릿X 초콜릿O, shop 숃X 솃O, supermarket 슈퍼마켓X 슈퍼마켓

‘market’만 놓고 보면 ‘마켓’으로 써도 될 것 같다. 국어에도 ‘ㅄ’ 받침으로 끝나는 말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market’에 조사 ‘을, 에’를 붙여보면 [마케슬], [마케세]로 소리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밭을, 밭에’가 [바틀], [바테]로 소리 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Tokyo는 도쿄X, 도쿄(O) / game 게임X, 게임(O) / cafe 카페X 카페

보통의 외국어는 ‘울림소리-안울림소리’의 대립을 이루는데, 한국어는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의 대립을 이룬다. 이런 불일치 때문에 울림소리를 예사소리 또는 된소리로 발음한다든지([보트]~[뵤트]), 안울림소리를 거센소리 또는 된소리로 발음한다든지([파리]~[빠리]) 하는 혼란이 생긴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울림소리는 예사소리로, 안울림소리는 거센소리에 대응시키고 된소리는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예) camera 캐머러X 카메라 / radio 레이디오X 라디오 / banana 바내너X 바나나O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에 처음 고시됐다. 그런데 ‘카메라, 라디오, 바나나’ 같은 말은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이렇게 쓰여왔다. 그래서 이미 굳어진 표기는 관용을 인정하되, 관용 표기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틀린 표기법	바른 표기법
도너츠	도넛
로켓트	로켓
카페트	카페
슈퍼마켓	슈퍼마켓
메세지	메시지
쥘리히	취리히
부페	뷔페
까페	카페
케익	케이크
스카웃	스카우트
플룻	플루트
팀웍	팀워크
컬렉션	컬렉션
악세서리	액세서리
화이팅	파이팅
가스렌지	가스레인지
로얄	로열
쇼파	소파
쥬스	주스
워크샵	워크숍
후라이팬	프라이팬
앵클	앵크르



뒤에 문제 풀고 가져!



177 페이지에 있어!

Step 2. 스스로 정리하기



4 로마자 표기법

Step 1. 개념 강의

로마자 표기는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을 위해서**
*발음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자!



1. 기본 원칙 :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표기 방법

1) 단모음

로마자를 쓰는 언어들에서 'a, o, u, i, e'는 [아], [오], [우], [이], [에] 음가를 지니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어'와 '으'는 한국어의 특유한 모음으로 '어'는 eo로, '으'는 eu로 표기한다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로마자표기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단, 'ㄴ'은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예) 광희문 Gwanghuimun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ㅞ	ㅟ	ㅜㅏ	ㅜㅓ	ㅜㅗ	ㅜㅜ	ㅚ	ㅟ
로마자표기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3) 자음

자음	ㄱ	ㅋ	ㆁ	ㄷ	ㅌ	ㅌ	ㅂ	ㅃ	ㅍ	ㅈ	ㅊ	ㅊ	ㅅ	ㅆ	ㅎ	ㄴ	ㅁ	ㅇ	ㄹ
로마자표기	g.k	kk	k	d.t	tt	t	b.p	pp	p	j	jj	ch	s	ss	h	n	m	ng	rl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옥천 Okcheon 합덕 Hapdeok 호법 Hobeop

월곶

[월곶] Wolgot

벗곶

[벗곶] beotkkot

한밭

[한밭] Hanbat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구리 Guri 설악 Seorak 칠곡 Chilgok

임실 Imsil 울릉 Ulleung

대관령

[대관령] Daegwallye

*

*발음을 기준으로

1.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백마[뱅마] Baengma 신문로[신문노] Sinmunno
종로[종노] Jongno 왕십리[왕심니] Wangsimni
별내[별래] Byeollae 신라[실라] Silla

2. ‘ㄴ, ㄹ’이 덧나는 경우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략] allyak

3.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맞히다[마치다] machida

4. 용언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는 경우

줄고[조코] joko 놀다[노타] nota
잡혀[자펴] japyeo 낚지[나치] nachi

*단, 체언에 나타나는 거센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목호 Mukho 집현전 Jiphyeonjeon

5.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압구정 Apgujeong 낙동강 Nakdonggang
죽변 Jukbyeon 낙성대 Nakseongdae
합정 Hapjeong 팔당 Paldang
셋별 saetbyeol 울산 Ulsan



뒤에 문제 풀고 가자!



178 페이지에 있어!

Step 2. 스스로 정리하기



5 단원의 마무리

01. 한글 맞춤법

개념 1. 총칙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리대로 적기: (1)대로 표기함.

어법에 맞도록 적기: (2)을 살려서 적음. (1)과 (3)가 다름.

개념 2. 된소리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3.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개념 3. 두음법칙

단어 첫머리에 ㄴ이나 ㄹ이 오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ㄴ이 오지 못하는 경우 :

한자음 ‘니 녀 뇨 뉴’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이, 여, 요, 유’로 적는다.

• ㄹ이 오지 못하는 경우 :

한자음 ‘랴, 리, 려, 료, 류, 례’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이, 여, 요, 유, 예’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개념 4. 사이시옷

1단계: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인가?

2단계: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구성 중 하나인가?

3단계: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가? OR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가?

OR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가?

개념 5. 준말

-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ㄱ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 소리로 적는다.

예) 간편하게→간편케, 다정하다→다정타, 연구하도록→연구토록, 정결하다→정결타,
가하다→가타, 흔하다→흔타

- 다만,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거북하지→거북지, 생각하건대→생각건대, 깨끗하지 않다→깨끗지 않다,
못하지 않다→못지 않다

01. 한글 맞춤법

개념 1. 총칙

(1) 발음 (2) 원형 (3) 표기

02. 정확한 문장 표현

개념 1. 틀린 문장으로 자주 나오는 유형

1. 문장성분 갖춰쓰기 문제

- 주어가 생략된 문장
-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
- 부사어가 생략된 문장
- 불필요한 문장 성분이 있는 경우
 - 1) 단어의 중복이 있는 경우
 - 2) 의미의 중복이 있는 경우

2. 문장 성분간의 호응 문제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
- 조사와 서술어의 호응

3. 문장의 접속 관계

4. 부정문의 중의성 문제

5. 수식어의 중의성 문제

6. 불필요한 사동표현 문제

7. 이중 피동 문제

8. 잘못된 높임법 문제

03. 외래어 표기법

-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04. 로마자 표기법

- 1. 기본 원칙 :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ㅃ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2. 표기 방법

1) 단모음

로마자를 쓰는 언어들에서 ‘a, o, u, i, e’는 [아], [오], [우], [이], [에] 음가를 지니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어’와 ‘으’는 한국어의 특유한 모음으로 ‘어’는 eo로, ‘으’는 eu로 표기한다

단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로마자표기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단, ‘ㅣ’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이중 모음	ㅟ	ㅠ	ㅡ	ㅢ	ㅤ	ㅥ	ㅦ	ㅧ	ㅨ	ㅩ	ㅪ
로마자표기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3. 자음

자음	ㄱ	ㅋ	ㆁ	ㄷ	ㅌ	ㅍ	ㅂ	ㅃ	ㅍ	ㅈ	ㅉ	ㅊ	ㅅ	ㅆ	ㅎ	ㄴ	ㅁ	ㅇ	ㄹ
로마자표기	g.k	kk	k	d.t	tt	t	b.p	pp	p	j	jj	ch	s	ss	h	n	m	ng	rl

-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1) 된소리되기

6

적용 문제

01	한글맞춤법	169
02	정확한 문장 표현	173
03	외래어 표기법	177
04	로마자 표기법	178

2016 수능 B 12

1.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 ㉠ ~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파생어	합성어
㉡만 충족한 경우	㉠	㉡
㉢만 충족한 경우	㉢	㉣
㉡, ㉢ 모두 충족한 경우	㉣	줄자(줄+자) 눈물(눈+물)

- ① ㉠: 이파리(잎+아리), 얼음(얼+음)
- ② ㉡: 마소(말+소), 낮잠(낮+잠)
- ③ ㉢: 웃음(웃+음), 바가지(박+아지)
- ④ ㉣: 옷소매(옷+소매), 밥알(밥+알)
- ⑤ ㉣: 꿈(꾸+ㅁ), 사랑니(사랑+이)

2014년 예비시행 B형 12번

2.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 ㉡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생님의 설명: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에요. ‘구름, 나라, 하늘’ 등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예이지요. 그런데 이 원칙만 따른다면 ‘밥’과 같은 단어는 뒤에 오는 말에 따라 ‘바비(밥+이), 밥또(밥+도), 밤만(밥+만)’처럼 여러 가지로 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형태를 알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지지요. 이 때문에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을 추가한 거예요.

- ① ‘먹어, 먹은’은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② ‘굳이, 같이’는 음운 현상을 반영하지 않고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③ ‘퍼서(푸+어서), 찢다(푸+었다)’는 어간을 원래 형태에서 벗어난 대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④ ‘미덥다, 우습다’는 어간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⑤ ‘노인(老人)과 원로(元老)’는 같은 한자를 ‘노’와 ‘로’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2015년 6월 B형 11번

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도 있지만, 어법에 맞게 적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간혹 이 사실을 모르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틀릴 때가 있다.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발음	
들어서다	드러서다	[드러서다]	……㉠
그렇지	그러치	[그러치]	……㉡
해돋이	해도지	[해도지]	……㉢

- ① ㉠은 연음 현상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② ㉠과 같은 예로 ‘높이다’를 ‘높히다’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③ ㉡은 거센소리되기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④ ㉡과 같은 예로 ‘엷혀’를 ‘얼켜’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⑤ ㉢과 같은 예로 ‘금붙이’를 ‘금부치’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014년 수능 B형 11번

4.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 ① | 길이, 마중 | 무덤, 지붕 |
| ② | 무덤, 지붕 | 뒤뜰, 쌀알 |
| ③ | 뒤뜰, 쌀알 | 무덤, 지붕 |
| ④ | 길이, 무덤 | 뒤뜰, 쌀알 |
| ⑤ | 마중, 지붕 | 길이, 쌀알 |

2011년 수능 12번

5.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제5항

㉠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예 어깨, 잔뜩, 살짝, 듬뿍, 몽땅

㉡ 다만, ‘ㄱ, ㅂ’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수, 법석

제27항

㉢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칼날, 꽃잎, 만사위, 흠이불

- ① ㉠을 보니 모음 뒤나 ‘ㄴ, ㄹ, ㅁ, ㅇ’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어 있군.
- ② ‘납짝’이 아니라 ‘납작’으로 적는 것은 ㉡의 ‘법석’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짹짹하다’가 아니라 ‘짹짹하다’로 적는 것은 ㉡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군.
- ④ ‘물뽕’이 아니라 ‘물병’으로 적는 것은 ㉢의 ‘칼날’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깍뚜기’가 아니라 ‘깍두기’로 적는 것은 ㉢의 ‘만사위’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2016년 4월 12

6.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① '다듬이'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② '마개'를 '막애'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③ '삼밭이'를 '삼바리'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④ '귀머거리'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⑤ '땃개'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2013년 9월 11번

7. <보기>는 준말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와 그 예시이다.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기>

◦ 'ㅌ, ㄷ, ㄱ, ㅌ, ㅍ'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패, 켜, 괴, 귀, 괴'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본형	파이다	_____㉠_____
용례	깊게 파인 구덩이	깊게 _____㉡_____ 구덩이

◦ '내, 켜'뒤에 '어, -았-'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용례	구덩이가 깊게 _____㉢_____	구덩이가 깊게 _____㉣_____

- | | | | |
|---|-----|----|-----|
| | ㉠ | ㉡ | ㉢ |
| ① | 패다 | 팬 | 패었다 |
| ② | 패다 | 팬 | 패였다 |
| ③ | 패다 | 패인 | 패였다 |
| ④ | 패이다 | 팬 | 패었다 |
| ⑤ | 패이다 | 패인 | 패였다 |

2022년 수능 39번

8. <보기>는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이를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제34항 [붙임1] ‘개, कै’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제35항 모음 ‘ㄴ, ㄷ’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엇-’이 어울려 ‘-아/러, /’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제35항 [붙임2] ‘니’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이’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제37항 ‘ㅏ, ㅑ, ㅓ, ㅕ, ㅗ, ㅛ’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애, -이, -이, -이, -이’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① ㉠을 적용하면 ‘(날이) 개었다’와 ‘(나무를) 베어’는 각각 ‘갬다’와 ‘베’로 적을 수 있다.
- ② ㉡을 적용하면 ‘(다리를) 꼬아’와 ‘(죽을) 쑤었다’는 각각 ‘꼬’와 ‘쑤’로 적을 수 있다.
- ③ ㉢을 적용할 때, 어간 ‘(발로) 차-’에 ‘-이’가 붙은 ‘(발에) 차이-’에 ‘-었다’가 붙으면 ‘채었다’로 적을 수 있다.
- ④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별이) 쏘-’에 ‘-이’가 붙은 ‘(별에) 쏘이-’에 ‘-어’가 붙으면 ‘쑤’로 적을 수 있다.
- ⑤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오줌을) 누-’에 ‘-이’가 붙은 ‘(오줌을) 누이-’에 ‘-어’가 붙으면 ‘누어’로 적을 수 있다.

2016 7월 15

9. 다음은 잘못된 문장 표현을 고쳐 쓴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단어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
 예) 나이가 많고 작음은 큰 의미가 없다.
 → 나이가 크고 작음은 큰 의미가 없다. ①

- 조사의 쓰임이 잘못된 경우
 예) 우리는 아버지에 생신을 축하하려고 모였다.
 → 우리는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려고 모였다. ②

- 어미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
 예)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③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못된 경우
 예)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었다.
 →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④

- 문장 성분이 과도하게 생략된 경우
 예) 그녀는 노래와 춤을 추고 있다.
 →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다. ⑤

2016 6월 AB 14

10. <보기 1>의 ㉠~㉣ 중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는 데에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1>

문장을 수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 문장의 필수 성분이 다 갖추어져 있는가?
- ㉡ 조사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 어미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 불필요한 의미 중복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보기2>

수정 전	지난여름 청소년 문화 교류단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은 각 지역에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답사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

↓

수정 후	지난여름 청소년 문화 교류단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 지역의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2016 9월 AB 14

11. <자료>와 같이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사항을 <보기>의 ㉠~㉤에서 고른 것은?

<보기>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 부사어와 연결 어미의 호응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서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 목적어의 누락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궁리하기 시작했다.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탈출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 ㉣ 피동의 중복
 - 그것은 오래전에 불러지던 노래이다.
 - 그것은 오래전에 불리던 노래이다.

<자료>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수록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작성할 수 있다.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지라도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016 3월 15

12. <보기>는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은 문장 유형 중 일부이다. <보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 연결어미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과도한 피동이 된 경우
- 목적어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잘못 생략된 경우

- ① 고등학생이라면 모름지기 그 정도는 다 할 줄 안다.
- ②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다.
- ③ 그 복지 시설은 지금 민간에 위탁 운영되어지고 있다.
- ④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듣는다.
- ⑤ 이것은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생신 선물로 드린 것이다.

2016 3월 고2 15

13. <보기>를 고친 이유에 따라 짝지은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가) 지원이의 꿈은 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
→ 지원이의 꿈은 국어 교사가 되는 것이다.
- (나) 인간은 한편으로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하면서 살아왔다.
→ 인간은 한편으로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을 이용하면서 살아왔다.
- (다) 형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
→ 어떤 사람이든지 형을 만나고 싶어 한다.

문장의 중의성 주어와 서술어간의 불호응 필요한 문장성분 누락

- | | | | |
|---|-----|-----|-----|
| ① | (가) | (나) | (다) |
| ② | (나) | (가) | (다) |
| ③ | (나) | (다) | (가) |
| ④ | (다) | (가) | (나) |
| ⑤ | (다) | (나) | (가) |

2019 6월 고2 11~12

하나의 언어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을 ‘중의성’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1)~(3)과 같이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 있다.

- (1) ㄱ. 손이 크다.
 ㄴ. 차를 사다.
- (2) ㄱ. 예쁜 민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ㄴ. 나는 철수와 영희를 달랬다.
 ㄷ.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강을 더 좋아한다.
- (3) ㄱ. 나는 어제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ㄴ. 포수 세 명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

첫째, ‘어휘적 중의성’은 문장에 사용되는 어휘의 특성에 따라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다의어’나 ‘동음이의어’를 통해서 실현된다. (1ㄱ)은 ‘손’이 ‘신체 부위’나 ‘쏟음’과 같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의어’에 따른 중의성에 해당한다. (1ㄴ)의 ‘차’는 ‘엔진이 달린 탈것[車]’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녹차나 홍차와 같이 ‘마시는 음료[茶]’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1ㄴ)은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에 따른 중의성이 나타난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구조적 중의성’은 어떤 문장이 둘 이상의 통사적 관계를 가진 문장 구조로 분석되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수식 관계’, ‘접속 구문’, ‘비교 구문’ 등을 통해서 실현된다. (2ㄱ)은 ‘수식 관계’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로, ‘예쁜’이 ‘민지’를 수식할 수도 있고 ‘목소리’를 수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다. (2ㄴ)은 ‘접속 구문’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내가 ‘철수와 영희’ 둘 다 달랬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지만, 내가 철수와 함께 ‘영희’를 달랬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다. (2ㄷ)은 ‘비교 구문’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행위의 주체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강을 놓고 그 선호도를 비교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아버지가 행위의 대상인 ‘어머니와 강’을 놓고 그 선호도를 비교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성이 생긴다.

셋째, ‘작용역*의 중의성’은 하나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작용역이 다르게 해석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부정 표현’, ‘수량 표현’ 등을 통해서 실현된다. (3ㄱ)은 ‘부정 표현’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않았다’가 부정하는 것이 ‘나’인지, ‘어제’인지, ‘그녀’인지, ‘만나다’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의적 표현이 되었다. (3ㄴ)은 ‘수량 표현’에 따라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이다. 즉, 포수 세 명이 합쳐서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포수 세 명 각자가 사슴 한 마리씩을 잡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의적 표현은 광고나 유머 등에서 표현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의적 표현은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중의성을 띠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표를 사용하거나, 어순, 단어, 조사 등을 바꾸거나, 단어나 조사를 추가하면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다.

* 작용역: 어떠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14. 밑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표현 의도에 따라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② 동음이의어에 따른 중의성은 한자어 표기를 병행하여 해결할 수 있다.
- ③ 둘 이상의 수식어가 하나의 피수식어를 수식할 때 구조적 중의성이 나타날 수 있다.
- ④ 수량 표현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둘 이상이 되면 작용역의 중의성이 나타날 수 있다.
- ⑤ 비교 구문에서 특정 부분이 행위의 주체도 될 수 있고 행위의 대상도 될 수 있을 때 중의성이 발생한다.

15.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의적인 문장	해소 방법	고친 문장
길이 없다	단어 바꾸기	㉠
착한 주희의 동생을 만났다.	어순 바꾸기	㉡
나는 영호와 민주를 보았다.	심표의 사용	㉢
회원들이 다 오지 않았다.	조사의 추가	㉣
학생들이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한다.	단어의 추가	㉤

- ① ㉠: 도로가 없다.
- ② ㉡: 주희의 착한 동생을 만났다.
- ③ ㉢: 나는, 영호와 민주를 보았다.
- ④ ㉣: 회원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 ⑤ ㉤: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한다.

2019 9월 고2 14

16.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의 중의성은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의성은 문장의 통사구조나 특정 어휘가 갖는 영향 범위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순을 바꿔 주거나, 문장부호나 보조사 ‘은/는’을 사용한다.

[자료]

- ㄱ. 친구가 모두 오지 않았다.
- ㄴ. 그가 울면서 떠나는 그녀를 안아 주었다.
- ㄷ. 나는 사랑스러운 그녀의 강아지를 보았다.

- ① ㄱ은 수량과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함께 사용되어 중의성이 생겼겠군.
- ② ㄴ은 행위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중의성이 생겼겠군.
- ③ ㄷ은 수식을 받는 대상이 불분명하여 중의성이 생겼겠군.
- ④ ㄱ과 ㄴ은 모두 보조사 ‘는’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겠군.
- ⑤ ㄴ과 ㄷ은 모두 어순을 바꾸는 방법을 통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겠군.

2014 3월 고2 교육청 B형 13

17. 다음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과 이와 관련된 외래어 표기법이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참조해야 할 규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질문]

- 프랑스의 수도를 적을 때 ‘파리’로 적어야 할까, ‘빠리’로 적어야 할까?.....㉠
- ‘racket’의 발음 [t]를 받침으로 표기할 때, ‘ㄷ’, ‘ㅅ’, ‘ㅌ’ 중 무엇으로 적어야 할까?.....㉡
- [f]를 표기하기 위한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 | | | |
|---|-----|-----|-----|
| | ㉠ | ㉡ | ㉢ |
| ① | 제1항 | 제3항 | 제2항 |
| ② | 제1항 | 제4항 | 제5항 |
| ③ | 제4항 | 제3항 | 제1항 |
| ④ | 제4항 | 제5항 | 제2항 |
| ⑤ | 제5항 | 제4항 | 제3항 |

2018 7월 15

18. <보기>는 수업의 한 장면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바르게 짚지은 것은?

<보기>

선생님: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요. 이때,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습니다.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으며, ‘ㄹㄹ’은 ‘ll’로 적지요.

그럼 아래의 표기 일람을 참고할 때, ‘독립문’과 ‘대관령’의 로마자 표기는 어떻게 될까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g, k	n	d, t	r, l	m	b, p	ng
ㅅ	ㅈ	ㅊ	ㅌ	ㅍ	ㅍ	
ae	yeo	o	wa	u	i	

독립문

대관령

- | | | |
|---|------------|---------------|
| ① | Dongnimmun | Daegwallyeong |
| ② | Dongnimmun | Daegwalryeong |
| ③ | Dongrimmun | Daegwallyeong |
| ④ | Dongrimmun | Daegwanryeong |
| ⑤ | Donknipmun | Daegwanryeong |

2019년 9월 13번

19.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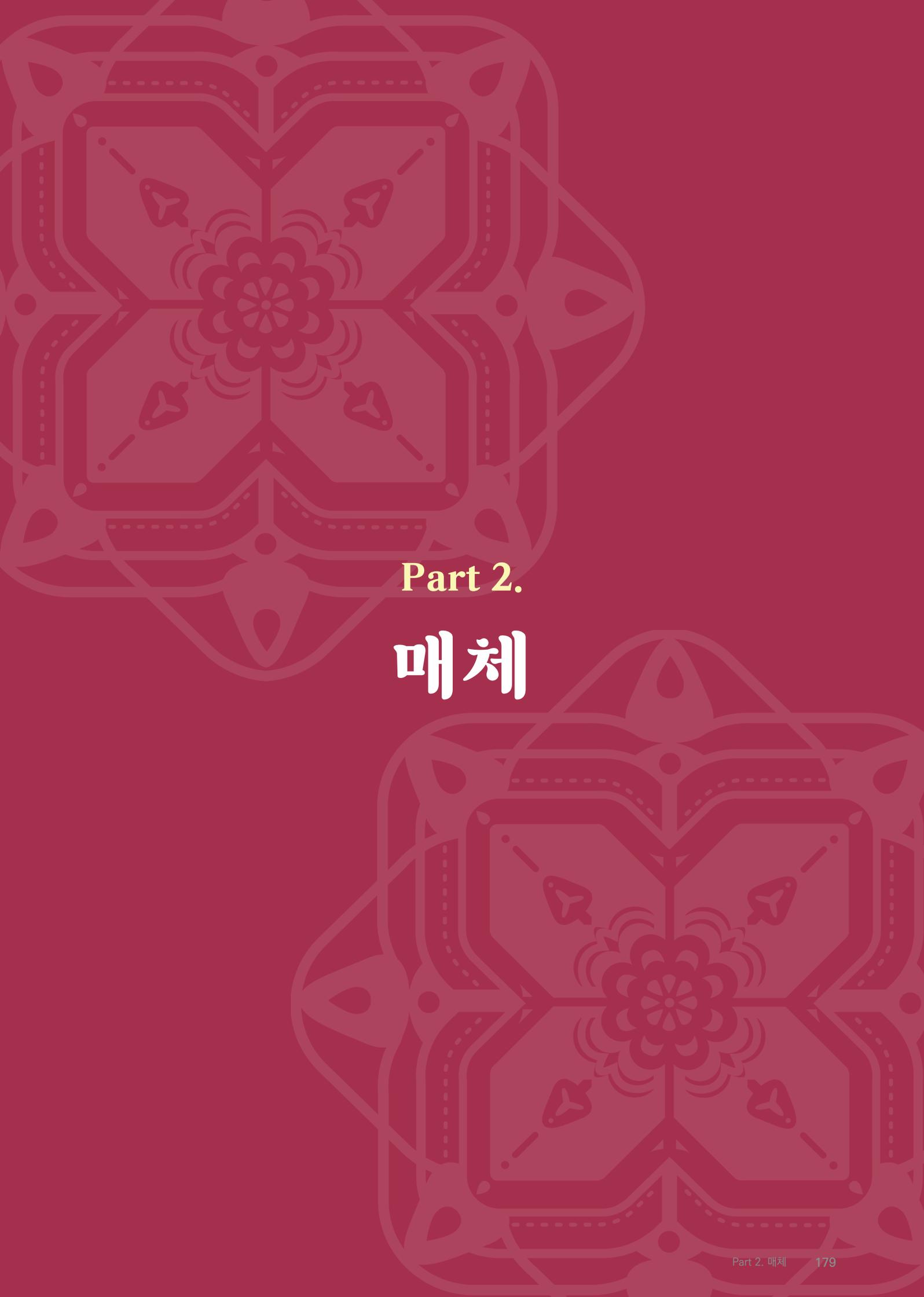
<로마자 표기 한글 대조표>

	자음	ㄱ	ㄷ	ㅂ	ㄸ	ㄴ	ㅁ	ㅇ	ㅅ	ㅈ	ㅊ	ㅌ	ㅍ
표	모음 앞	g	d	b									
기	그 외	k	t	p	tt	n	m	ng	j	ch	t	h	
모음													
표		a	ae	o									
기													

<로마자 표기의 예>

	한글 표기	발음	로마자 표기
㉠	같이	[가치]	gachi
㉡	잡다	[잡따]	japda
㉢	놓지	[노치]	nochi
㉣	맨입	[맨닙]	maennip
㉤	백미	[뱅미]	baengmi

- ①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땀받이[땀바지]’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②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삭제[삭찌]’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③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달아[다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④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한여름[한녀름]’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⑤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밥물[밤물]’에서도 일어나고,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Part 2.

매체

Chapter 1.

꼭 필요한 개념 정리

01 매체의 유형과 매체 언어

02 매체를 바라보는 태도



1 매체의 유형과 매체 언어

Step 1. 개념 강의

개념 1 매체의 유형

1) 대화



얘는 화법과 작문에 나와.



2) 인쇄매체 : 책, 신문, 잡지

⇒ 문자 언어 중심이지만, 시각적 이미지도 활용 가능.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단, 정보 전달 속도는 느린 편.



3) 전자매체 :

- 음성매체 : 라디오 등

⇒ 음성 언어를 기반으로 함. 정보전달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편. 단, 시각 정보 처리는 어려움.



- 영상매체 : 텔레비전, 영화, 유튜브 영상 등

⇒ 음성 매체는 기본이고,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음.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전달 가능. 대량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



- 뉴미디어 : 인터넷 신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웹툰, 게임 내 채팅, 유튜브 댓글, 메타버스 등
⇒ 특징: 현재 가장 발달된 매체. 시공간의 제약이 없음. 대량 전달 방식이 가능하면서, 1:1소통도 가능함.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불명확한 쌍방향적 성격이 있음.



개념 2 매체에서 사용되는 언어

1) 문자

- 2) 시각자료 : 그림, 포스터, 사진, 지도, 그래프 등
- 3) 청각자료 : 대화, 음악, 배경음, 효과음 등
- 3) 시청각자료 : 동영상, 영화, TV 뉴스 등

2 매체를 바라보는 태도

Step 1. 개념 강의

개념 ① 매체 자료의 생산자



1) 배려하는 태도

2) 소통의 목적

예) 정보전달, 설득, 심미적 정서 표현,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야 함.

3) 매체 자료를 소비하는 자의 규모, 나이, 성별, 취향, 배경지식, 관심사 등을 고려해야 함.

4) 매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소통해야함.

예) 면대면 대화인데, 아이패드로 열심히 이모티콘을 그려서 표현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5) 글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생산해야 함.

예)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연예인에게 악플을 달면 안됨. 자료를 왜곡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타 직업을 비난 하면 안됨.

6)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함

개념 ② 매체 자료의 소비자

1) 배려하는 태도

2) 생산자가 글을 쓴 목적에 맞게 판단해야함.

3) 주제적,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

1. 자료의 출처와 생산자

2. 자료를 쓴 사람과 내용간의 이해관계

3. 자료의 공정성 예) 한측의 말만 담은 것은 아닌지

4. 사실인지 진실인지 구별하기

- 사실: 참과 거짓의 영역 예) True or False or I don't know

- 진실: 가치판단의 영역 예) Good or So So or Bad

5. 자료의 사실 여부

6. 자료의 진실 여부

7. 자료의 누락, 왜곡 여부



Chapter 2.

평가원의 출제 법칙

01 유형 분석

02 적용 연습



1 유형 분석

학년도	문제 번호	6월	9월	수능
2024	40	정보 구성 방식 파악하기	매체의 소통 방식 파악하기	정보 구성 방식 파악하기
	41	매체의 소통 방식 파악하기	자료 수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뉴미디어의 특성 파악하기
	42	자료의 구성 계획 파악하기	자료의 구성 계획 파악하기	자료 수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43	언어와 매체 복합	언어와 매체 복합	언어와 매체 복합
	44	정보 구성 방식 파악하기	뉴미디어의 특성 파악하기	매체의 소통 방식 파악하기
	45	뉴미디어의 특성 파악하기	매체의 소통 방식 파악하기	자료의 구성 계획 파악하기
2023	40	정보 구성 방식 파악하기	매체의 특성 파악하기	뉴미디어의 특성 파악하기
	41	언어와 매체 복합	자료 수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언어와 매체 복합
	42	자료 수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언어와 매체 복합	매체의 소통 방식 파악하기
	43	정보 구성 방식 파악하기	매체의 특성 파악하기	뉴미디어의 특성 파악하기
	44	자료의 구성 계획 파악하기	매체의 소통 방식 파악하기	자료의 구성 계획 파악하기
	45	매체의 특성 파악하기	자료의 구성 계획 파악하기	자료 수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2022	40	매체의 특성 파악하기	자료 수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보 구성 계획 파악하기
	41	정보 구성 방식 파악하기	자료의 구성 계획 파악하기	언어와 매체 복합
	42	자료의 구성 계획 파악하기	언어와 매체 복합	자료 수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43	정보 구성 방식 파악하기	정보 구성 방식 파악하기	매체의 특성 파악하기
	44	언어와 매체 복합	매체의 특성 파악하기	정보 구성 방식 파악하기
	45	자료 수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자료의 구성 계획 파악하기	자료의 구성 계획 파악하기

유형	3년간 횟수	해결 방법
자료의 구성 계획 파악하기	10	<p>*일반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지를 사실 판단 부분과 적절성 판단 부분으로 잘라 읽어야 한다. 2. 사실 판단 먼저 한 이후에 적절성 판단을 한다. 3. 사실 판단은 지문과 일대일 대응을 한다. 4. 적절성 판단은 사실을 바탕으로 그 효과를 따져보면 된다. <p>*'언어와 매체 복합' 언어와 똑같이 푼다</p>
언어와 매체 복합	9	
정보 구성 방식 파악하기	9	
자료 수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8	
매체의 특성 파악하기	6	
매체의 소통 방식 파악하기	6	
뉴미디어의 특성 파악하기	5	
정보 구성 계획 파악하기	1	

2

적용 문제

01	2022학년도 6월	186
02	2022학년도 9월	190
03	2022학년도 수능	194
04	2023학년도 6월	198
05	2023학년도 9월	202
06	2023학년도 수능	206
07	2024학년도 6월	208
08	2024학년도 9월	212
09	2024학년도 수능	215

2022학년도 6월

[40 ~ 42]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넷에서 열람한 지역 신문사의 웹 페이지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군민신문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폐교가 지역 관광 거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사진 : ○○초등학교 시설 전경
설을 활용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숙박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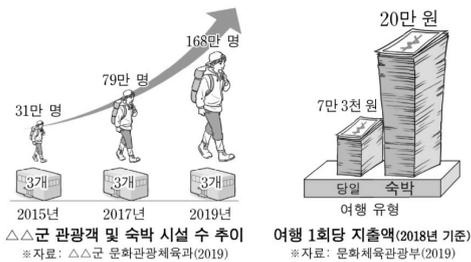
지난 1일 △△군은 폐교된
○○초등학교 시설을 ‘△△
군 특색 숙박 시설’로 조성하

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유희시
설을 활용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숙박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시설은 ☆☆☆마을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건물 내부는 객실 · 식당 · 카페 · 지역 역사관 등으로 꾸미고, 운동장에는 캠핑장 · 물놀이장을 조성한다.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 인접한 ☆☆☆마을은 2015년부터 캐릭터 동산, 어린이 열차 등 체험 관광 시설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지역 관광지로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인근에 숙박 시설이 거의 없어 체류형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A]



이번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경제 전문가 오□□ 박사는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관광에서 여행비 지출이 더 많다”며 “인근 수목원과 벚꽃 축제, 빙어 축제 등 주변 관광지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2. 06:53:01 최초 작성 / 2021.06.03. 08:21:10 수정

👍좋아요(213) 🗨️싫어요(3) ➦ SNS에 공유 📄스크랩

△△군민신문 이<X>기사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증가... 인근 주민들, “유희 시설로 방치되어 골칫거리”

-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지역 명소 ①] ☆☆☆마을... 다섯 가지 매력이 넘치는 어린이 세상

댓글

방랑자: 가족 여행으로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 나들이: 맞아요. 우리 아이가 물놀이를 좋아해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도 즐기고요.

↳ 방랑자: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40. 위 화면을 통해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할 것은?

- ① 기사를 누리 소통망(SNS)에 공유할 수 있으니, 기사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겠군.
- ②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겠군.
- ③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으니,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기사가 문자, 사진 등 복합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시각과 청각을 결합하여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다른 수용자들이 기사를 열람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겠군.

4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기자는 취재한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취재 내용 중 일부를 선별하고 그중 특정 내용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구성한다. 따라서 기사를 분석할 때에는 기사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정보를 배치하는 방식, 시각 자료의 이미지 활용 방식 등 정보가 제시되는 양상도 살펴봐야 한다.

- 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부각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에 이어 시각 자료를 배치한 것이겠군.
- ② 지역 관광객의 증가 추세를 부각하기 위해 △△군 관광객 수 추이를 제시할 때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겠군.
- ③ 체류형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여행 유형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를 이미지로 강조하여 제시한 것이겠군.
- ④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부각하기 위해 관광객 수와 여행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를 나란히 배치한 것이겠군.
- ⑤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기 위해 사업에 우호적인 의견을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겠군.

42.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메모를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행 과제 : 우리 지역 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하기
 바탕 자료 :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인터넷 기사와 댓글
 영상 내용 : 새로 조성될 숙박 시설 소개
 - 첫째 장면(#1) : 기사의 제목을 활용한 영상 제목으로 시작
 - 둘째 장면(#2) : 시설 조성으로 달라질 전후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대비시켜 표현
 - 셋째 장면(#3) : 건물 내부와 외부에 조성될 공간의 구체적 모습을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
 - 넷째 장면(#4) : 지역 관광 거점으로서의 지리적 위치와 이를 통한 기대 효과를 한 화면에 제시
 - 다섯째 장면(#5) : 기사의 댓글을 참고해서 시설을 이용할 방문객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연속적으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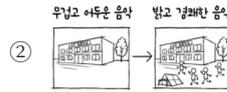
영상 제작 계획

장면 스케치

장면 구상



#1 ○○초등학교의 모습 위에 영상의 제목이 나타나도록 도입 장면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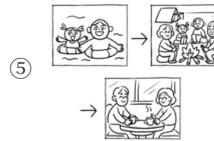
#2 무겁고 어두운 음악을 배경으로 텅 빈 폐교의 모습을 제시한 후,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으로 전환.



#3 숙박 시설에 대한 정보를 건물 내·외부 공간으로 나누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화하여 제시.



#4 숙박 시설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 자원의 위치를 표시하고, 관광자원과의 연계로 기대되는 효과를 자막으로 구성.



#5 가족 단위 관광객이 물놀이장, 캠핑장, 카페 등을 즐겁게 이용하는 모습을 제시, 앞의 그림이 사라지면서 다음 그림이 나타나도록 구성

2022학년도 6월

[43 ~ 45] (가)는 텔레비전 방송 뉴스이고, (나)는 잡지에 실린 인쇄 광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면 1] 진행자 : 더워지는 요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휴대용 선풍기인데요. ㉠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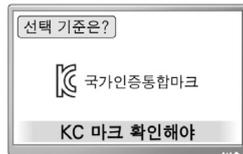
[장면 2] 박 기자 : ㉡ 휴대하기 간편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시원한 바람을 선사해 인기가 높은 휴대용 선풍기.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 종류만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휴대용 선풍기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장면 3] 이△△ : 좋아하는 연예인 이광고하는 제품을 살까 하다가, 이왕이면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맘에 드는 제품을 선택했어요.



[장면 4] 박 기자 :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선풍기 구매 기준을 설문한 결과, 풍력, 배터리 용량과 같은 제품 성능이 1순위였습니다. 이어 디자인, 가격 등 다양한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 그런데 휴대용 선풍기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는 만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면 5] 박 기자 : ㉣ 그러면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KC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KC 마크는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에만 부착됩니다. 간혹 광고로는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므로 실물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보호망의 간격이 촘촘하고 날이 부드러운 재질로 된 제품을 선택해야 손이 끼어 다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면 6] 박 기자 : 휴대용 선풍기 사고가 빈번한 여름철, ㉤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포프

(나)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구성의 주체	(가)는 수용자의 설문 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들이 뉴스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정보의 성격	- (가)는 제품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 (나)는 제품의 주된 소비자층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정보의 양과 질	- (가)는 제품 구매 기준이 다양함을 여러 소비자와의 인터뷰 영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나)에 비해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 (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점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가)에 비해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44. (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청자에게 진행자 자신의 궁금한 점을 묻고 있다.
- ② ㉡: 명사로 문장을 종결함으로써 뉴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있다.
- ③ ㉢: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뉴스의 중심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④ ㉣: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뉴스의 핵심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 뉴스 내용에 따른 제품 선택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45. (가)를 본 학생이 (나)를 활용하여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이미지, 문구 등을 활용한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잡지에 실린 두 개의 인쇄 광고 비교하기

- ① (나)는 바람의 움직임을 연상하게 하는 곡선의 형태로 문구를 배치하여 제품의 쓰임새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 ② ‘자료’는 기존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제품이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구매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자료’는 (나)와 달리 제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이미지와 문구로 표시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자료’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제품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나)는 유명인의 이미지를, ‘자료’는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제품의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

2022학년도 9월

[40 ~ 43] (가)는 인쇄 매체의 기사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만든 카드 뉴스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청소년의 사회 참여, 현주소는 어디인가?

청소년 사회 참여는 청소년이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발표된 ○○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무려 88.3%에 달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에게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있을까? ○○ 기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 참여 활동 기회가 부족하여 참여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이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활동을 확산해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 3학년 김 모 학생은 ㉤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서 아쉬웠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 사회학과 김◇◇ 교수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은 사회성을 향상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관 중심의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이 주도가 된 사회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박▽▽ 기자 -

(나)

카드 1	카드 2
<p>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합니다.</p>  <p>청소년의 약 88%는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참여 경험 있다 21%</p>  <p>참여 경험 없다</p> <p>그러나 실제로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은 21%에 그쳤습니다. 왜일까요?</p>
카드3	카드4
<p>기관</p>  <p>청소년 사회 참여가 확산되기 어려운 이유는 현재의 청소년 사회 참여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p>	<p>기관 중심의 활동</p>  <p>청소년 주도적 활동</p> <p>이에 △△대 사회학과 김◇◇ 교수는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관 중심의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이 주도가 된 사회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p>

40. (가), (나)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다양한 이론을 종합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론에 대한 왜곡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② (나)는 제시된 정보 중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 ③ (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으므로 편파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④ (가)와 (나)는 예상되는 반론에 반박하고 있으므로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⑤ (가)와 (나)는 작성자의 주장이 나열되고 있으므로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1. (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학생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카드 1’에는 (가)의 보고서에 담긴 사회 참여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보여 주기 위해 청소년이 말하는 이미지로 제시해야겠군.
- ② ‘카드 2’에는 (가)의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해 본 청소년의 비율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문제 상황을 드러내야겠군.
- ③ ‘카드 3’에는 (가)의 기관 중심의 사회 참여를 선호하는 청소년의 경향을 드러내기 위해 기관의 이미지를 더 크게 그려야겠군.
- ④ ‘카드 4’에는 (가)의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의 두 가지 유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를 제시해야겠군.
- ⑤ ‘카드 4’에는 (가)의 청소년 사회 참여에 관한 교수 인터뷰 내용 중 활성화의 방향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구로 제시해야겠군.

4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문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글의 화제를 드러내는 제목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부사 ‘무려’를 사용하여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연결 어미 ‘여’를 사용하여 사회 참여 활동 기회에 대한 앞 절의 내용이 뒤 절 내용의 목적에 해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의 대상인 ‘사회적 분위기’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 ⑤ ㉡: 인용 표현을 활용하여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한 학생의 소감을 전달하고 있다.

43. 다음의 ‘카드 뉴스 보완 방향’을 고려할 때, ‘카드 A’, ‘카드 B’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카드 뉴스 보완 방향: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에 활용하기 위해 (나)에 카드 A, B를 추가

카드 A		카드 B	
왜 사회 참여 활동을 하지 않나요?		청소년 사회 참여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의 문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응답 내용	비율(%)	 <p>우리 학교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p> <p>우리 학교 앞 신호등 설치 건의</p>	
사회 참여가 어렵게 느껴져서	63		
⋮	⋮		
우리 학교 학생 중 사회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① (나)에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A’를 활용하여 그 이유를 보여 준다.
- ② (나)에서 청소년 주도의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므로 ‘카드 A’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사회 참여 이유를 제시한다.
- ③ (나)에서 청소년 사회 참여 확산이 어려운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A’를 활용하여 그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생각을 보여 준다.
- ④ (나)에서 사회 참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으므로 ‘카드 B’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주변의 문제를 알려 준다.
- ⑤ (나)에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B’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2022학년도 9월

[44 ~ 45] (가)는 웹툰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한 채팅방에서 나는 대화이고, (나)는 (가)의 회의를 바탕으로 제작한 웹툰이 실린 누리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 08. 01.....

하진: ‘마음을 그려 드려요’ 게시판에 다음 주에 올릴 웹툰에 대한 제작진 회의를 시작할게! 학생들 사연을 받아서 연재하니 우리 웹툰에 관심이 높아졌어! 이번 사연 내용이야.

웹툰을 챙겨 보는 독자입니다.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이라 사연을 올려요. 친구가 시험공부를 도와 달라 했는데, 바쁘니까 알아서 하라고 짜증을 냈거든요. 서운해하는 걸 보고 후회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사이는 더 멀어졌어요. 어떻게 말할지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게 잘 그려 주세요.

우주: 한 달이나 시간이 지난 건 어떻게 드러내지?

주혁: 장면이 세로로 이어지니까, 이걸 고려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어.

하진: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비교하기 좋게 양쪽으로 배치해 보면 어떨까?

우주: 좋아. 친구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건 둘 사이의 간격으로 보여 줄게.

하진: 그러자. 대화는 말풍선에 쓰고, 속마음은 표정이나 몸짓에서 드러나게 해야겠지?

주혁: 응. 그래도 사연을 보낸 학생이 느낀 감정들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해 줘.

하진: 그리고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으니 마지막 부분에 말풍선과 문구를 활용해서 유도해 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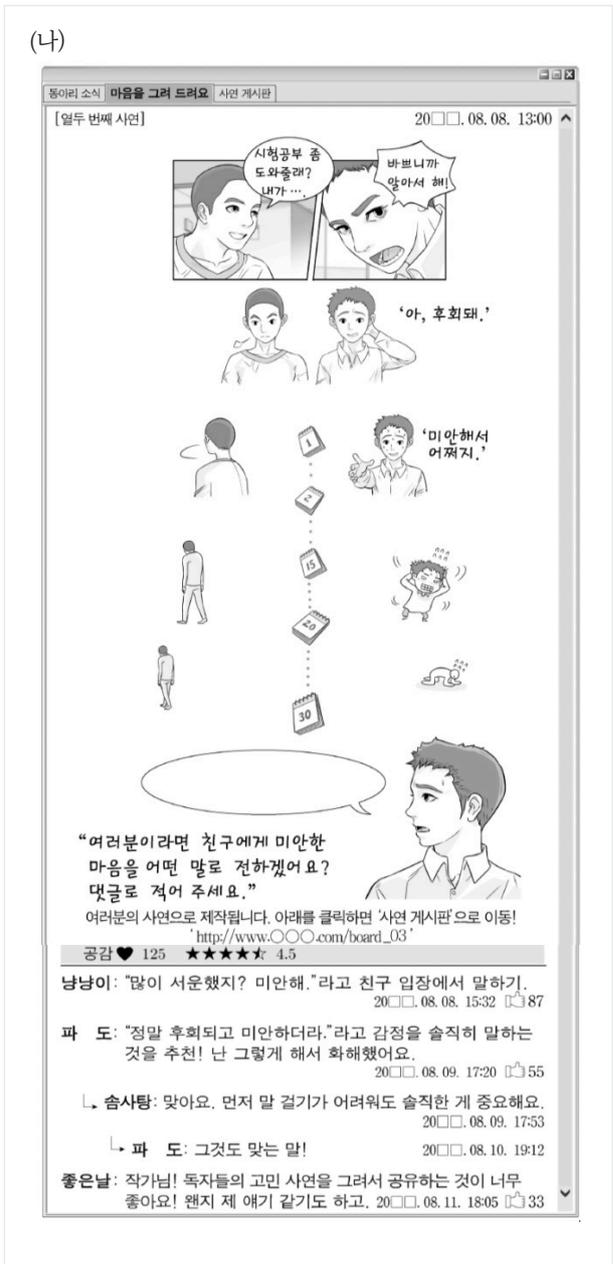
우주: 그래. 회의한 걸 토대로 그려 볼게! 아, 웹툰 끝에 사연 게시판 주소 링크도 올릴게.

.....20□□. 08. 12.....

하진: 댓글 봤어? 친구 입장에서 말해 보라는 의견도 있어.

우주: 별점이 높은 것을 보니 독자들의 평가가 좋네.

주혁: 그러게. 난 ‘좋은날’ 님 댓글 보니 뿌듯했어. 수고했어.



44.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웹툰 제작자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 사연 신청자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웹툰 제작자가 (나)의 댓글이나 별점을 통해 웹툰의 독자가 보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나)는 웹툰의 독자가 댓글로 서로 공감하며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나)는 웹툰의 독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웹툰 제작자가 지정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나)는 웹툰의 독자가 이미지에 담긴 의미에 대해 웹툰 제작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얻고 있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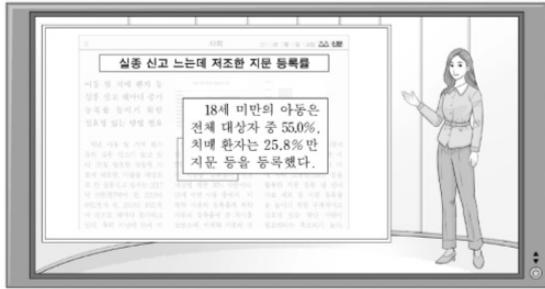
45. (가)의 웹툰 제작 계획을 (나)에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기 위해 장면이 제시되는 방향을 고려하여 숫자를 세로로 배열해 날짜 변화를 표현했다.
- ② 한 인물이 겪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 화면을 세로로 분할하여 인물의 행동 변화를 나란히 보여 주었다.
- ③ 멀어지는 친구 사이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인물들 사이에 여백을 두어 점차 간격이 벌어지게 그렸다.
- ④ 속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으로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도 적어 감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 ⑤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유도하기 위해 말풍선을 의도적으로 비우고 댓글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제시했다.

2022학년도 수능

[40 ~ 43] 다음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한 신문 기사를 다루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 김 모 군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김 군이 돌아온 데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역할이 컸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먼저 △△ 신문, 함께 보시죠.



진행자 : 표제가 '실종 신고 느는데 저조한 지문 등록률'인데 요, 기사 내용 일부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은 55.0%, 치매 환자는 25.8%만 지문 등을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등록률이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가 : △△ 신문에서 언급한 대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지문과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시에 이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문에서는 홍보가 부족해 지문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개인 정보 유출은 민감한 사안이니 정보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전문가 : ㉢ 사전등록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보는 ㉣ 아동이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되고,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래도 등록률을 높이려면 현재보다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 방안이 있어야겠네요. △△ 신문을 더 살펴볼까요? 지문 등을 사전등록하면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전문가 : 지문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기까지 평균 56시간, 등록하면 평균 50여 분 정도 걸립니다.

진행자 : 시간이 많이 단축되네요. 이제 다른 기사들도 살펴볼까요? □□ 신문인데요, 간단히 보면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 신문에는

지문 등 사전등록 스마트폰 앱이 소개되어 있네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신문

'지문 등 사전등록 앱'의 ㉤ '첫 화면'은 메뉴가 그림과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고정된 메뉴 화면을 한눈에 보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 '지문 등록' 메뉴를 누르면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대상자와 보호자의 인적 사항 등을 언제 어디서든 등록할 수 있다.

㉦ '함께 있어요' 메뉴에서는 게시판에 올라온 인적 사항과 사진들을 보면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 '같이 찾아요' 메뉴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글을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다는 것도 가능하다.

㉨ '보호소' 메뉴는 지도 앱과 연동되어 있어서 인근에 있는 보호소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진행자 : ㉩ 필요하신 분들은 앱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시청자 게시판, 화면으로 보시죠.

40. 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가 △△ 신문의 내용보다 □□ 신문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방송에서 어떤 기사에 더 비중을 두었는지 드러내고 있군.
- ② 시의성 있는 화제를 다룬 신문 기사들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군.
- ③ △△ 신문 기사의 일부를 화면에 확대하여 제시함으로써 신문 기사의 특정 부분을 방송에서 선별하여 보여 주고 있군.
- ④ 진행자가 △△ 신문과 ○○ 신문의 기사 내용을 종합함으로써 특정 화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군.
- ⑤ 전문가가 진행자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군.

41.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하십시오체 종결 어미 ‘-니니까’를 통해 시청자를 높이며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를 하고 있다.
- ② ㉡: 접속 부사 ‘그래서’를 통해 앞 문장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보조사 ‘는’을 통해 ‘사전등록 정보’가 문장의 화제임과 동시에 주어로 사용됨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연결 어미 ‘면’을 통해 앞 절의 내용이 ‘사전등록 정보’가 ‘자동 폐기’되는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보조 용언 ‘보다’를 통해 ‘앱’을 사용하는 것이 시험 삼아하는 행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42. 다음은 위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시청자 게시판

시청자 1: 제 주변에서는 많이 등록했던데요. 신문에 나온 등록률 현황은 어디에서 조사한 것인가요?

시청자 2: 방송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의 필요성 위주로 이야기하고 개인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네요.

시청자 3: 미취학 아동만 대상장니 줄 알았는데 중학생도 해당되는군요. 누가 대상자인지 궁금했던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겠어요.

시청자 4: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지만 저처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청자 5: 인터넷에서는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기까지 81시간이 걸린다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① 시청자 1과 2는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등록률에 대한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였다.
- ② 시청자 1과 4는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을 사전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의 양이 충분한지 점검하였다.
- ③ 시청자 2와 5는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장단점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 ④ 시청자 3과 4는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 ⑤ 시청자 3과 5는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효과에 대한 정보가 사실인지 점검하였다.

43. ‘○○ 신문’을 바탕으로 할 때, ㉠ ~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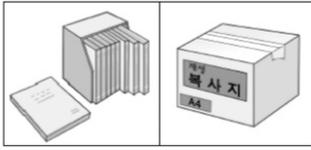
- ① ㉠에서,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대량의 정보를 요약하여 비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아 생산자가 등록된 정보를 수용자가 변형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글과 이미지로 표현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둘 이상의 양식이 결합된 매체 자료에 접근하여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글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서로 다른 앱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매체 자료의 수용자가 생산자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학년도 수능

[44 ~ 45] (가)는 학생의 개인 블로그이고, (나)는 발표를 위해 (가)를 참고하여 만든 스토리보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재생 종이, 왜 사용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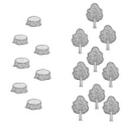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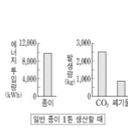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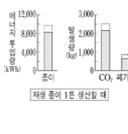
재생 종이를 아시나요? 재생 종이는 폐지를 활용하여 만든 종이인데, 대체로 폐지가 40% 넘게 들어간 종이를 말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재생 종이는 책, 복사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생 종이를 사용하면 숲을 지킬 수 있어요. 20××년 한 해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종이를 만드는 데 2억 2천만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해요. 엄청난 면적의 숲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일반 종이를 복사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지의 45%가 출력한 그날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복사지의 10%만 재생 종이로 바뀌도 1년에 27만 그루의 나무를 지킬 수 있다고 해요.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으면 [이전 글 숲의 힘](#) (클릭)을 참고해 주세요.



또 재생 종이는 일반 종이에 비해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덜 발생해요. 일반 종이 1톤을 생산하면 2,541kg의 이산화탄소(CO2)와 872kg의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같은 양의 재생 종이를 생산하면 이산화탄소는 2,166kg이, 폐기물은 735kg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 종이를 써야 할 때는 재생 종이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나)

	화면 설명	화면	내레이션 및 배경음악
#1	그림이 먼저 나오고 글이 나중에 덧붙여짐.		재생 종이는 폐지를 활용하여 만든 종이입니다. 여기서 폐지는 한번 사용한 종이를 말해요. (배경 음악) 잔잔한 느낌의 음악
#2	잘린 나무 밑동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옆에 나무 그림이 나타남		종이를 만들기 위해 숲이 사라져요. 하지만 복사지의 10%만 재생 종이로 바뀌도 1년에 27만 그루의 나무를 지킬 수 있어요. (배경 음악) 무거운 느낌에서 경쾌한 느낌의 음악으로 바뀜
#3	그래프의 막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감.		일반 종이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에너지의 약 15% 정도 줄어 들어요.
#4	자막이 '재생 종이 1톤 생산할 때'로 바뀌면서 그래프의 막대가 아래로 내려감.		일반 종이 대신 재생 종이를 만들면 투입 에너지와 발생 물질의 양이 약 15% 정도 줄어 들어요.

44. (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생 종이의 활용 사례를 글자의 굵기와 형태를 달리하여 강조했다.
- ② 재생 종이와 관련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소제목을 사용하여 부각했다.
- ③ 종이를 만들기 위해 사라지는 숲의 면적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보여 주었다.
- ④ 사무실에서 버려지는 일반 종이의 양을 글과 사진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제시했다.
- ⑤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룬 다른 게시물을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안내했다.

45. (가)를 참고하여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이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가 보강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종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외에도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도 조사하여 추가해야지.
- ② 정보가 복합 양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재생 종이의 정의를 시각 자료와 문자 언어를 결합한 화면으로 표현하면서 내레이션으로 보완해야지.
- ③ 정보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드러나도록 (가)에서 두 문단으로 제시한 재생 종이 사용의 필요성을 배경 음악과 내레이션을 모두 포함한 각각의 화면 두 개로 구성해야지.
- ④ 정보 간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가)에서 제시한 일반 종이와 재생 종이의 생산으로 발생하는 물질의 양적 차이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는 내레이션을 포함해야지.
- ⑤ 정보가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재생 종이 사용에 따른 나무 보존에 대한 내용을 화면과 내레이션으로 표현하면서 이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여 나타내야지.

2023학년도 6월

40 ~ 43] (가)는 텔레비전 뉴스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교내에 게시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만든 포스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생활 속 유용한 경제 뉴스를 알려 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콧, 김 기자. ㉠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알려 주신다면요?

기자 : 네. 한국〇〇공단에서 실시하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제도 실시 후 석 달 만에 가입자 십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려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았단 뜻이겠지요. ㉢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이 포인트를 받으려면 누리집에 가입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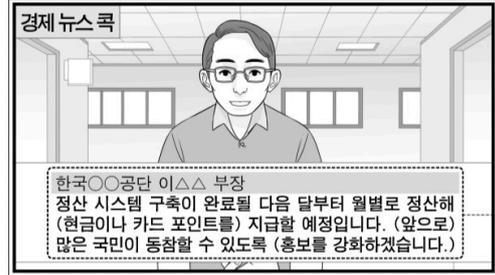


누리집에 가입해서 각종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연간 최대 칠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으로 받으면 백 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일회 용기 대신 다회 용기를 선택하면 천 원, 세제나 화장품 살 때 빈 통을 가져가 다시 채우면 이천 원, 무공해차를 대여하면 오천 원이 적립됩니다. ㉣ 한국〇〇공단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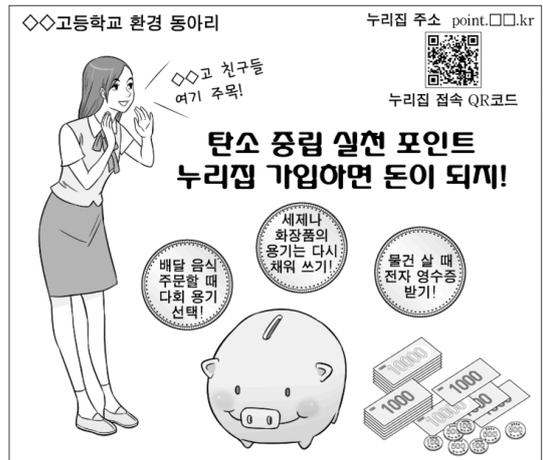
관계자 : 정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다음 달부터 월별로 정산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자 : 기존의 탄소 포인트 제도와 더불어 이 제도가 국민들의 탄소 줄이기 생활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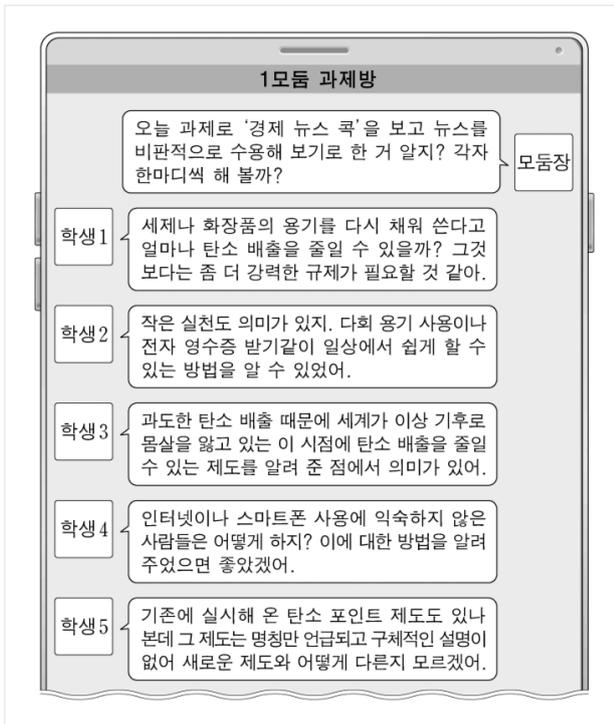
40.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보도의 주요 제재를 부각하였다.
- ② ㉡은 기자의 발화 내용을 의문형으로 요약 진술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③ ㉢은 기자의 발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여 정보의 구체성을 강화하였다.
- ④ ㉣은 관계자의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 ⑤ ㉤은 이후에 방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보조 용언 '있다'를 사용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표현하였다.
- ② ㉡: 보조사 '도'를 사용해 제도의 장단점을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 ③ ㉢: 감탄사 '자'를 사용해 시청자의 해당 누리집 가입을 재촉하려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 ④ ㉣: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해 제도 시행 관련 정보를 관계자가 언급할 것이라는 추측을 표현하였다.
- ⑤ ㉤: 의존 명사 '만큼'을 사용해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점이 이어지는 내용의 근거임을 표현하였다.

42. (가)를 시청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대화방의 내용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학생 1은 보도에서 제시한 실천 항목의 효과에 주목해 제도의 실효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② 학생 2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 주목해 제도의 실천 용이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③ 학생 3은 제도의 시행이 현재의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보도의 시의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④ 학생 4는 누리집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주목해 제도의 실현 가능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⑤ 학생 5는 기존 제도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 보도 내용의 충분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43. (나)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제시된 제도의 실천 항목 중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제시하였군.
- ② (가)에 제시된 누리집 주소와 함께 QR코드를 제시하여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추가하였군.
- ③ (가)에 제시된 제도의 개인적 혜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돈과 저금통의 이미지를 활용하였군.
- ④ (가)에 제시된 가입자 증가 현상 이외에 증가 원인을 추가하여 제도 가입자가 지닌 환경 의식을 표현하였군.
- ⑤ (가)에 제시된 수용자보다 수용자 범위를 한정하고 생산자를 명시하여 메시지 전달의 주체와 대상을 표현하였군.

2023학년도 6월

[44 ~ 45] 다음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문화 지킴이들, 안녕!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문화 지킴이 방송의 진행자, 역사임당입니다. 오늘은 과거 궁중 연회에서 장식 용도로 사용되었던 조화인 궁중 채화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해 주세요.

[A] **빛세종:** 채화? '화'는 꽃인데 '채'는 어떤 뜻이죠?
 빛세종님, 좋은 질문! 채화의 '채'가 무슨 뜻인지 물으셨네요. 여기서 '채'는 비단을 뜻해요. 궁중 채화를 만드는 재료로 비단을 비롯한 옷감이 주로 쓰였기 때문이죠.

(사진을 보여 주며) 주로 복사꽃, 연꽃, 월계화 등을 만들었어요. 자, 이 중에서 오늘 어떤 꽃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골라 주세요.

[B] **햇살가득:** 월계화가? 월계화 만들어 주세요!
 좋아요! 햇살가득님이 말씀하신 월계화로 결정!

그럼 꽃잎 마름질부터 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단을 두 겹으로 겹쳐서 이렇게 꽃잎 모양으로 잘라 줍니다. 꽃잎을 자를 때 가위는 그대로 두고 비단만 움직이며 잘라야 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비단만 움직여서. 그래야 곡선은 곱게 나오면서 가위 자국이 안 남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크기의 꽃잎을 여러 장 만드어요. 자, 다음은 뜨거운 인두에 밀랍을 묻힌 후, 마름질한 꽃잎에 대고 이렇게 살짝 눌러 주세요. 보셨나요? 녹인 밀랍을 찍어서 꽃잎에 입혀 주면 이렇게 부피감이 생기죠.

[C] **꿈꼬미:** 방금 그거 다시 보여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꿈꼬미님! 자, 다시 갑니다. 뜨거운 인두에 밀랍을 묻혀서 꽃잎 하나하나에, 이렇게, 누르기. 아시겠죠? 필요한 꽃잎 숫자만큼 반복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걸 계속하면 정말 지루하겠죠? (미리 준비해 둔 꽃잎들을 꺼내며) 짜잔! 그래서 꽃잎을 이만큼 미리 만들어 뒀지요! 이제 작은 꽃잎부터 큰 꽃잎 순서로 겹겹이 붙여 주면 완성! 다들 박수! 참고로 궁중 채화 전시회가 다음 주에 ○○시에서 열릴 예정이니 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은맘: ○○시에 사는데, 전시회 지난주에 이미 시작했어요.

[D] 아이랑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ㅎㅎㅎ
 아, 전시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아은맘님 감사! 자, 이제 마칠 시간이예요. 혼자서 설명하고 시범까지 보이려니 미흡한 점이 많았겠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E] **영롱이:** 저 오늘 진짜 우울했는데 ㅠ 언니 방송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 오늘부터 언니 팬 할래요. 사랑해요 ♥
 와, 영롱이님께서 제 팬이 되어 주신다니 정말 힘이 납니다. (손가락 하트를 만들며) 저도 사랑해요!

다음 시간에는 궁중 채화를 장식하는 나비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문화 지킴이, 역사임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44. 위 방송에 반영된 기획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접속자 이탈을 막으려면 흥미를 유지해야 하니, 꽃잎을 미리 준비해 반복적인 과정을 생략해야겠군.
- ② 소규모 개인 방송으로 자원에 한계가 있으니, 제작진을 출연시켜 인두로 밀랍을 묻히는 과정을 함께해야겠군.
- ③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편집을 할 수 없으니, 마름질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양해를 구해야겠군.
- ④ 텔레비전 방송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매체이니, 방송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고정 시청자 등록을 부탁해야겠군.
- ⑤ 방송 도중 접속한 사람은 이전 내용을 볼 수 없으니, 마무리 인사 전에 채화 만드는 과정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야겠군.

45. <보기>를 바탕으로, [A] ~ [E]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용자의 특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영상과 채팅의 결합을 통해 방송 내용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수용자는 방송 중 채팅을 통해 이어질 방송의 내용과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미 제시된 방송의 내용을 추가, 보충, 정정하게 하는 등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생산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 ① [A]: '빛세종'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 내용을 보충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 ② [B]: '햇살가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밝힘으로써 진행자가 생산할 내용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 ③ [C]: '꿈꼬미'는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의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④ [D]: '아은맘'은 제시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진행자가 오류를 인지하고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 ⑤ [E]: '영롱이'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진행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2023학년도 9월

[40 ~ 42] (가)는 학습 활동이고, (나)는 학생이 (가)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한 전자책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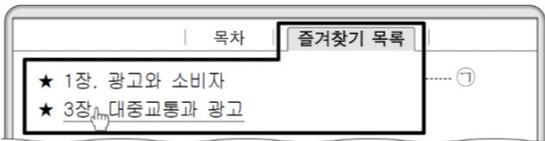
(가)

[학습 활동] 다음 상황을 바탕으로, ○○구청 관계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광고 방안을 발표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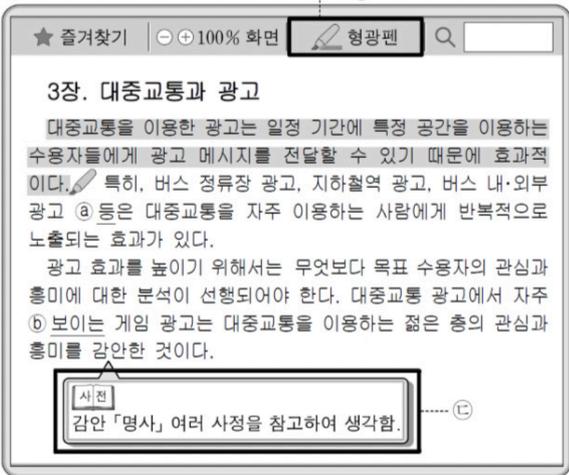
○○구청에서 ‘청소년 문화 한마당’을 기획하면서, ○○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중교통 광고의 효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를 활용하여 광고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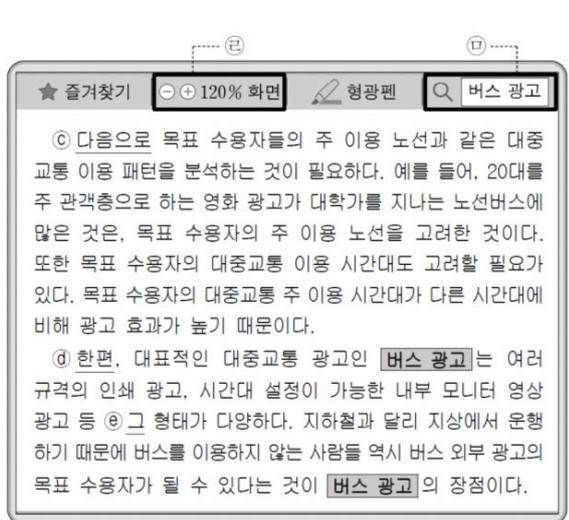
[화면 1]



[화면 2]



[화면 3]



40. <보기>는 (나)의 전자책을 활용한 학생의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전자책은 중요한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종이 책과 비슷했어. 하지만 다시 봐야 할 내용을 선택해 별도의 목록으로 만들거나 어구를 검색해 원하는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종이 책과 달랐어. 책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아본 결과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내용을 빠르게 이해했어. 또 화면 배율을 조정해 글자 크기를 조절하니 읽기에 편했어.

- ① ㉠에 1,3장이 포함된 것은 학생이 해당 장의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군.
- ② ㉡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가 효과적인 이유를 언급한 부분에 강조 표시가 된 것은 학생이 해당 문장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군.
- ③ ㉢의 '감안'에 대한 사전 찾기 결과는 [화면 2]에서 본문과 함께 제시되어 학생의 글 읽기에 도움을 주었군.
- ④ ㉣을 통해 [화면 3]의 글자 크기가 [화면 2]보다 커진 것은 학생의 읽기 편의성을 높여 주었군.
- ⑤ ㉤의 결과가 [화면 3]에 표시된 것은 학생이 '버스 광고'를 쉽게 찾아 버스 광고의 제작 기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군.

41. 다음은 학생이 (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를 바탕으로 작성한 메모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메모 1 : ‘청소년 문화 한마당’에 ○○구 고등학생들이 좋아할 공연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음을 광고에서 강조하면 효과적이겠다.
- 메모 2 :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버스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구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10번이나 12번 버스에 광고를 게시하면 효과적이겠다.
- 메모 3 :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 버스 내부의 모니터 영상 광고를 이용하고, 도보 통학 학생들에게도 홍보하기 위해 버스 외부의 옆면과 뒷면에도 광고를 게시하면 효과적이겠다.

- ① ‘메모 1’에서, 광고에서 부각할 내용을 선정한 것은 (나)에 제시된 목표 수용자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할 요소를 고려한 것이겠군.
- ② ‘메모 2’에서, 정류장 광고와 버스 내외부 광고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은 (나)에 제시된 반복 노출 효과의 유무라는 기준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③ ‘메모 2’에서, 버스 노선 중에서 특정 노선을 선택한 것은 (나)에 제시된 영화 광고의 예처럼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④ ‘메모 3’에서, 광고 게시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는 광고 형태를 제안하려는 것은 (나)에 제시된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라는 기준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⑤ ‘메모 3’에서, 버스 옆면과 뒷면 광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나)에 제시된 버스 외부 광고의 장점을 고려한 것이겠군.

4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의 종류가 여럿임을 명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② ㉡: 젊은 층의 게임 광고 수용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③ ㉢: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가 더 존재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④ ㉣: 목표 수용자 분석과는 다른 내용으로 전환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⑤ ㉥: 앞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대신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2023학년도 9월

[43 ~ 45] (가)는 교내 방송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들은 학생들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는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방송을 듣고 계신 ○○고 여러분, 매주 수요일 마지막 순서는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이지요. 어제까지 많은 사연이 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잔잔한 배경 음악) “3학년 1반 이민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 운동장에서 다쳤을 때 우리 반 지혜가 응급 처치를 해 줬어요. 우리 반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곧 전학을 가요.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을 담아 □□의 노래 <다시 만날 우리들>을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신청곡 들려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나)

상우: 민지야, 사연 잘 들었어. 지혜가 전학 가기 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선물하면 어때? 제목은 ‘잊지 말아요’.

민지: 멋진데! 지금 보미랑 과제 때문에 다른 대화방에서 얘기 중인데, 보미도 같이 하고 싶대! 초대해도 돼?

상우: 응.

보미 님이 '지혜를 위한 영상 제작 방'에 입장했습니다.

상우: 우리 셋이 계속 얘기 나눠야 하니까 대화방 목록에서 찾기 쉽게 방 이름을 붙였어. 보미야, 어서 와.

보미: 응. ^^ ㉠ 민지한테 얘기 다 들었어. 상우야, 어떤 장면을 찍을 거야?

상우: 지혜가 학교에 얽힌 추억을 기억할 수 있게 학교의 여러 공간을 담으면 좋겠어. 민지야, 네가 출연하면 어때?

민지: ㉡



상우: 그럼 첫 장면으로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걸어가는 네 모습을 찍 이어서 찍을게. 네가 교문과 운동장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혜랑 얘기하듯이 말해.

민지: 알겠어.

상우: 그 다음에 교실로 올라가서 지혜가 즐겨 보던 운동장을 찍자. 지혜가 5층에서 운동장 바라보는 걸 좋아했거든.

보미: 그럼 운동장에 ♥를 크게 그리고, 민지가 사연으로 신청했던 노래의 제목을 그 안에 적어 놓자.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드러날 것 같아.

상우: 오, 그렇게 찍자.

민지: ㉢ 아까 학교에 얽힌 추억을 지혜가 기억하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운동장에서는 지혜가 날 도와줬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혜한테 얘기하듯이 말하면 되겠지?

상우: 좋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장면을 넣자. 영상 제목과 어울리게 ‘함께한 순간들 잊지 마.’라고 말할까?

보미: 그래, 우리가 세 글자씩 말하고, 화면에는 그 말이 한 문장으로 보이도록 하면 어때? 자막은 내가 넣을게.

상우: 응. 근데 민지야, 생각해 보니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꽤 머니까 내가 운동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빼고 찍자. 교문과 운동장에서 각각 찍고 편집해서 이어 붙이자.

민지: 알겠어. ㉣ 대화 내용을 다시 보니까 장면 구상이나 각자 역할은 얘기했는데 촬영 날짜는 안 정했네.

상우: ㉤ 그럼 아래 투표함에 날짜를 몇 개 올릴 테니까 각자가 능한 날짜를 선택해 줘.

투표 제목: 촬영 날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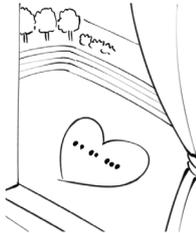
43. (가), (나)에 드러나 있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나)와 달리 대화 목적에 따라 또 다른 온라인 대화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 ④ (나)에서는 (가)와 달리 음성 언어에 음향을 결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정보 생산자가 정보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정보 제시 순서를 바꾸고 있다.

44. ㉠ ~ ㉤에 드러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새롭게 대화에 참여한 ‘보미’는 공유된 맥락을 기반으로 ‘상우’에게 질문하고 있다.
- ② ㉡: 동의의 뜻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여 ‘상우’의 제안을 수락하고 있다.
- ③ ㉢: ‘상우’의 이전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면서 영상 제작에 관한 그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④ ㉣: 진행된 대화 내용을 점검하여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⑤ ㉤: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촬영 날짜를 선택하기 위한 의사 결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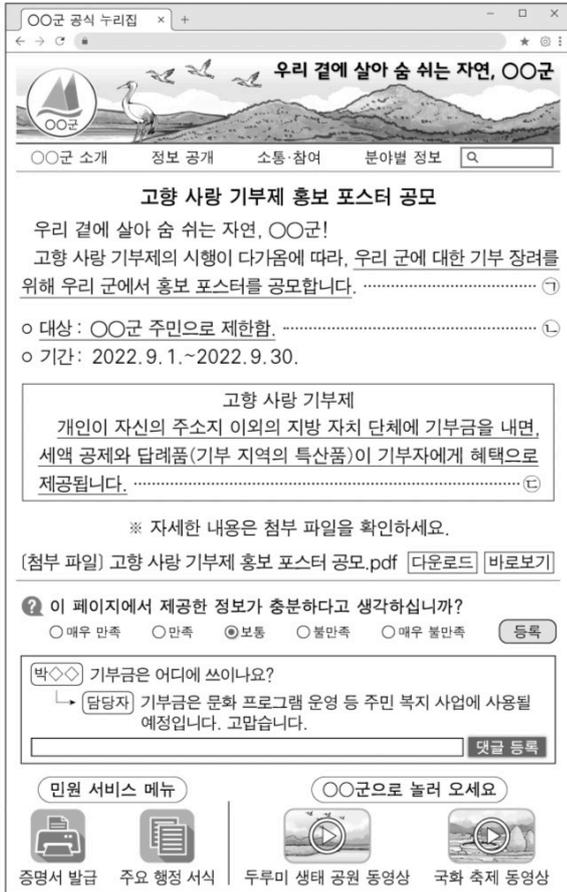
45.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영상 제작 계획	장면 스케치
<p>① 교문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끊지 않고 촬영하여 지혜가 여러 공간에 얽힌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연출해야겠어.</p>	
<p>② 학교 공간을 촬영할 때, 민지가 지혜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드러내야겠어.</p>	
<p>④ 운동장에 그린 하트 모양의 그림에 ‘다시 만날 우리들’이라는 글자가 적힌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겠어.</p>	<p>함께한 순간들 잊지 마.</p> 

2023학년도 수능

[40 ~ 43] (가)는 ○○군 공식 누리집 화면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들의 온라인 화상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

해운 : 이제 화상 회의 시작하자. 내 말 잘 들리지?
 설아 : 해운아,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이크 좀 확인해 줘?
 해운 : 어? 내 마이크 음량을 키워 볼게. 이제 잘 들리지?
 설아 : 응. 근데 오늘 나연이는 참석 못 한대. 내가 회의를 녹화해서 나중에 보내 주려고 해. 동의하지?
 해운, 종서, 수영 : 응, 그래.
 채팅 : 설아 님이 회의 녹화를 시작합니다.
 해운 : 오늘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기로 했잖아. 우리 ○○군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 봤니?
 종서 : 미안해. 나는 아직 못 봤어.
 수영 : 음, 직접 말로 설명하려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첨부 파일 보내 줄게. 파일에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까 읽으면서 들어.
 종서 : 고마워.
 채팅 : 수영 님이 종서 님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파일명 :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공모.pdf

해운 : 정부, 기부자, ○○군, ○○군 주민으로 구분해서 고향 사랑 기부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나타낸 거야.
 수영 : 좋은데, 포스터에 정부까지 그려 넣으면 너무 복잡할 거 같으니까, 나머지 셋으로만 구성하자.
 설아 : 그리고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기부자가 부각되도록 기부자를 가운데에 두자.
 수영 : 화살표를 곡선으로 해서 하트 모양으로 하면 기부자가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걸 포스터에 드러낼 수 있을 거 같아.
 해운 : 좋아. 그런데 포스터에 정부가 없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은 어떻게 나타내지?
 종서 : 음, 고민해 보자. 그리고 첨부 파일을 읽어 보니 기부자의 현재 주소지가 아니면 어디든 기부할 수 있대. 우리 지역에 기부하게 하려면 답례품을 알려 줘야 할 거 같은데?
 해운 : 답례품 정보가 있는 누리집 주소 불러 줄게. 디, 에이, 엠... 아, 그냥 채팅 창에 링크로 올리는 게 편하겠다.
 채팅 : [해운] <https://damnyepum.□□□□.go.kr>
 [종서] 고마워.
 종서 : 찾아보니 인삼이 우리 지역 답례품이네. 이걸 그려 넣자.
 해운 : 그리고 우리 지역은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니까, ○○군을 두루미 캐릭터로 나타내 보자.
 수영 : 응, 좋아. 그러면 아까 말했던 세액 공제는 두루미가 말을 전해 주듯 설명하면 되겠다.
 해운 : 좋아.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만들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무리하자.

40.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누리집 이용자가 작성한 질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
- ② 지역에 대한 만족도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군.
- ③ 민원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여 증명서나 행정 서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군.
- ④ 누리집 상단에 홍보 문구와 풍경 그림을 제시하여 지역이 부각하고자 하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군.
- ⑤ 지역의 관광 명소와 축제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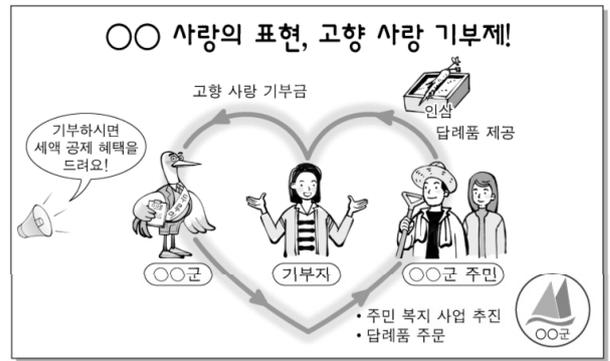
41.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여 포스터를 공모하는 주체가 단 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종결 어미 '니다'를 사용하여 ○○군 기부에 동참한 기부자를 공손하게 높이고 있다.
- ③ ㉢은 명사형 어미 'ㅁ'을 사용하여 포스터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 항목을 간결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연결 어미 '면'을 사용하여 기부 대상 지역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은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42. (나)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해운'은 음성 언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였다.
- ② '해운'은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그래픽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 ③ '수영'은 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회의 중에 참고할 수 있는 파일을 '종서'에게 전송하였다.
- ④ '설아'는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나연'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였다.
- ⑤ '설아'는 특정 참여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참여자의 음량을 조절하였다.

43. (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할 때, 포스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설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부자를 중심에 배치했다.
- ② '수영'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부 행위에 담긴 긍정적인 마음을 연상시키는 기호의 모양을 사용했다.
- ③ '종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에 기부했을 때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을 그려 넣었다.
- ④ '해운'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이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군을 두루미 캐릭터로 표현했다.
- ⑤ '수영'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가 내용을 직접 알려 주듯이 말풍선을 제시했다.

2023학년도 수능

[44 ~ 45] 다음은 온라인 카페 화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 1] ([게시판]에서 '1인 미디어 방송'을 클릭한 화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7	1인 미디어 방송의 발전과 시청자의 태도	재원	22. 09. 13.
16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사유: 욕설과 비속어 사용)		22. 09. 13.
15	여행 관련 1인 미디어 방송 사례	민수	22. 09. 12.

[화면 2] ([화면 1]에서 17번 게시물을 클릭한 화면)

1인 미디어 방송의 발전과 시청자의 태도
작성자: 재원

최근 많은 사람들이 1인 미디어 방송 제작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 매체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는 1인 미디어 방송들이 등장하고 있다. 내가 즐겨 보는 여행 관련 1인 미디어 방송 역시 밀림을 혼자 돌아다니다가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참신함이 돋보인다.

1인 미디어 방송은 여러 가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제공하여 시청자의 욕구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나처럼 여행 탐험가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 어디서도 얻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요즘 1인 미디어 방송 가운데 신뢰성이 부족한 정보를 담은 방송이 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이 드러나는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에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주체적 태도가 중요하다.

↳ 민수 나도 그 방송 봤어. 내가 모르던 낯선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많이 나와서 좋았어. 그런데 갑자기 특정 상표를 언급하며 칭찬할 때에는 상업성이 짙어 보이더라. 그런 상업적인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 혜원 어떤 1인 미디어 방송인은 특정 성분이 건강에 좋다고 강조했는데, 알고 보니 성분의 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니었어. 방송에 나오는 정보라도 믿을 수 있는지 잘 따져 봐야 해.

↳ 영진 1인 미디어 방송들은 소재가 한정적이고 다 비슷비슷하지. 그리고 내가 보는 1인 미디어 방송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다루는데도, 고정 시청자 수가 적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늘지도 않더라. 그래서 1인 미디어 방송이 발전해도 사회적 파급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해.

↳ 지수 난 1인 미디어 방송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의 발자취 따라가기' 방송이 인기를 많이 끌어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잖아.

댓글 등록

44. <보기>를 바탕으로 [화면 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매체통' 동아리 카페 활동 규칙

개설 목적 : '매체통' 동아리원들이 다양한 매체 자료 비평 활동을 통해 매체 자료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규칙 1. 동아리 활동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매체 자료 비평을 위한 글만 작성하고 각 게시판의 성격에 맞게 올린다.

3.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① ㉠을 보니, '개설 목적'을 고려하여 동아리 성격이 드러나도록 카페의 활동 주체와 활동 내용을 제시하였군.
- ② ㉡을 보니, '규칙 2'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 유형에 따라 게시판을 항목별로 나누어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군.
- ③ ㉢을 보니, '규칙 1'을 고려하여 동아리 활동 계획을 상기할 수 있도록 비평 활동 결과의 제출 기한을 제시하였군.
- ④ ㉣을 보니, '규칙 2'를 고려하여 사건 보도 기사를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 링크를 제시하였군.
- ⑤ ㉤을 보니, '규칙 3'을 고려하여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이 동아리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게시물을 삭제하였군.

45. [화면 2]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원'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 ② '혜원'은 증명되지 않은 정보를 접했던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③ '재원'과 '민수'는 모두, 1인 미디어 방송의 상업적 의도를 알아차린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④ '재원'은 '영진'과 달리, 자신이 본 여행 관련 1인 미디어 방송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의 소재가 다양하다고 판단하였다.
- ⑤ '영진'은 '지수'와 달리, 고정 시청자 수가 늘지 않는 1인 미디어 방송 사례를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4학년도 6월

[40 ~ 43] (가)는 보이는 라디오의 본방송이고, (나)는 이 방송을 들은 학생의 메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 매주 수요일,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과 함께’를 시작합니다. 앱이나 문자로 언제든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는 실시간 댓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도 여행가 안○○ 님을 모셨습니다.

여행가 :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진행자 : 지난주부터 등대 스탬프 여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그중 ‘재미있는 등대’라는 주제를 소개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여행가 : 네, 오늘은 ‘풍요의 등대’입니다. 서해안에 위치한 16개 등대와 □□ 생물 자원관을 돌아보면서 풍요로운 해산물도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입니다.

진행자 : 이제부터 ‘풍요의 등대’에 속한 등대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곳이 있나요?

여행가 : 저는 천사의 섬이라는 모티브를 살려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 등대가 가장 좋았습니다. 등대에 설치된 LED 조명이 켜지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곳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먹는 전복 라면은 정말 맛있죠.

진행자 : 정말 맛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실시간 문자로 지난주에 안내했던 등대 스탬프 여행의 순서를 물으시네요. 예정된 건 아니지만 다시 안내해 주시겠어요?

여행가 : ㉢ 우선 모바일 여권과 종이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모바일 여권은 앱을 이용하시면 되고, 종이 여권은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대들을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고 사진을 촬영하시는 겁니다. 사진을 다 모으시면 누리집에서 완주 인증을 하시는 거죠.

진행자 : ㉣ 실시간 댓글로 6789 님께서 스탬프 여행의 주의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여행가 : ㉤ 네, 앞에서 말씀드린 완주 인증은 날짜가 기록된 사진으로만 가능합니다. 처음엔 스탬프로 완주 인증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바뀐 거죠. 하지만 스탬프를 찍기 원하는 여행자들이 많아 여전히 스탬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등대나 기쁨향 등대처럼 등대 주변에 스탬프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행자 : 스탬프가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 잠시만요, 나머지 등대를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2부에서 계속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풍요의 등대’의 완주 기념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행가 : (테이블에 오르골을 올리며) 바로 이 등대 오르골입니다.

진행자 : 실시간 댓글 창에 오르골이 귀엽다는 반응이 많네요.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실제 모양이 궁금하시죠? 작고 예쁜 등대가 나무 상자 안에 있고, 오른쪽에 태엽을 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뵈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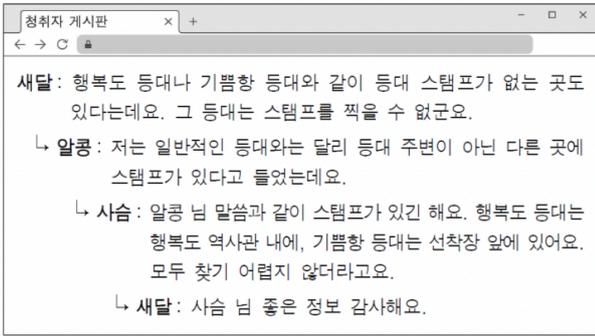
(나)

등대 스탬프 여행을 여행 지리 수업 시간에 발표해야겠어. ㉠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에 대한 슬라이드는 여행가의 말을 정리하되 여행의 순서가 잘 나타날 수 있게 표현하고,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야지. ㉡ ‘△△ 등대’에 대한 슬라이드는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고, 슬라이드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어야지.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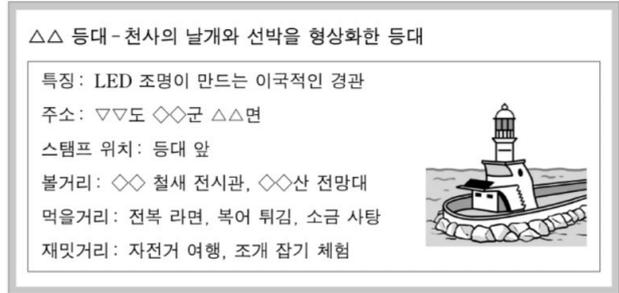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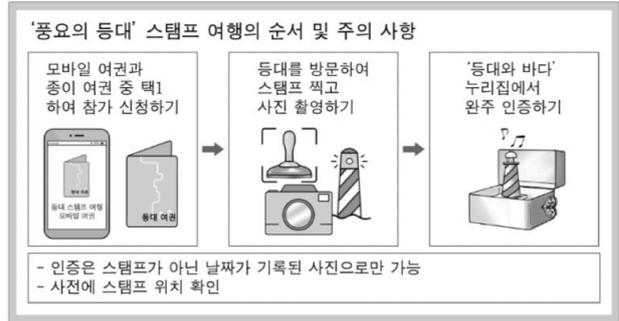
- ① 수용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므로 지난주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② 본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앞부분의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한다.
- ③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방송에서 전달하려는 정보를 선택하여 조절한다.
- ④ 청각적 정보만 접할 수 있는 수용자가 있으므로 방송 중에 제공한 시각적 정보를 음성 언어로 풀어서 설명한다.
- ⑤ 수용자들이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시간 댓글과 문자를 바탕으로 이어질 정보를 조정한다.

41. 다음은 (가)가 끝난 후의 청취자 게시판이다. 참여자들의 소통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의 잘못된 이해가 '알콩'과 '사슴'의 댓글에 의해 수정되고 있다.
- ② 방송 내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새달'과 '알콩'의 공통된 생각에 '사슴'이 동조하고 있다.
- ③ 방송을 듣고 '새달'이 느낀 감정을 '알콩' 및 '사슴'과 공유하여 정서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방송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새달'과 '알콩'의 서로 다른 생각이 '사슴'에 의해 절충되고 있다.
- ⑤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과 '알콩'의 긍정적 감정이 '사슴'의 댓글로 인해 부정적 감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42. 다음은 (나)에 따라 제작한 발표 자료이다. 제작 과정에서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여행가의 말을 정리하기로 한 ㉠은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을 모아 하나의 슬라이드로 구성하자.
- ② 여행의 순서를 나타내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 순서를 구분하고 차례가 드러나게 화살표를 사용하자.
- ③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소개한 여행의 순서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그림 자료로 보여 주자.
- ④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언급한 먹을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자.
- ⑤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기로 한 ㉤은 여행가의 말을 가져와 슬라이드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달자.

43. ㉠~㉤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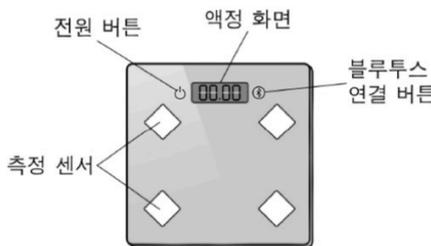
- ① ㉠: 종결 어미 ‘-비니다’를 사용하여, 방송을 듣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높이고 있다.
- ② ㉡: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여행가를 높이고 있다.
- ③ ㉢: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여권 선택의 주체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 ④ ㉣: ‘있으시다’를 사용하여, 궁금증이 있는 주체인 ‘6789 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⑤ ㉤: ‘말씀’을 사용하여, 화자인 여행가의 말을 높이고 있다.

2024학년도 6월

[44 ~ 45] (가)는 전자 문서로 된 사용 설명서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나눈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1. 기기 구성 정보



2. 기기 연결 방법

1단계 [체중계] 전원 버튼을 눌러 체중계를 작동하세요.

2단계 [체중계]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3단계 [휴대 전화] 설정-블루투스-기기 찾기를 선택하세요.

4단계 [휴대 전화] '연결 가능한 기기 목록'에서 ○○ 체중계를 선택하세요.

5단계 [휴대 전화] ○○ 체중계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세요.

6단계 [휴대 전화] 앱에서 기록을 선택한 후 성별, 키 등 사용자 정보를 기록하세요(기록한 정보는 개인 데이터 분석에 활용).

3. 기기 기능 안내(자세한 안내는 해당 기능을 클릭)

몸무게 측정 개인 데이터 분석 자동 누적 기록 기타 기능

4. 기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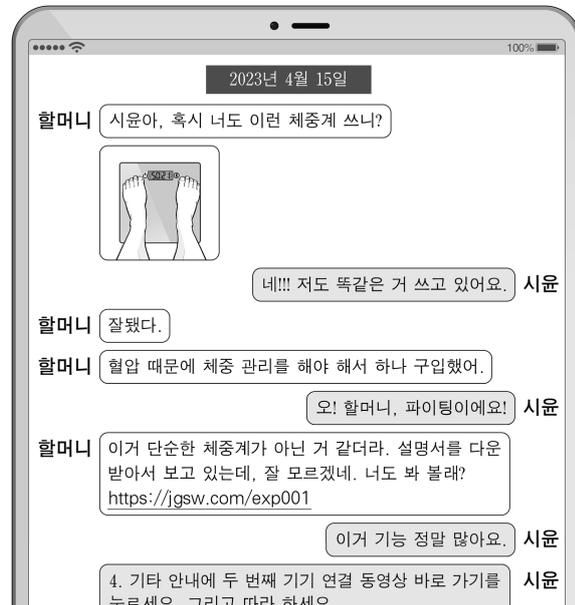
1) 앱 설치 바로 가기 : <https://jgsw.com/app>

2) 기기 연결 동영상 바로 가기 : <https://jgsw.com/set>

3) 사용 설명서 다운로드 : <https://jgsw.com/exp001>

사용 설명서 정보 : 한국어 버전 2.1(2022. 10. 수정)

(나)



2023년 4월 15일

할머니 시윤아, 혹시 너도 이런 체중계 쓰나?

네!!! 저도 똑같은 거 쓰고 있어요. 시윤

할머니 잘됐다.

할머니 혈압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해야 해서 하나 구입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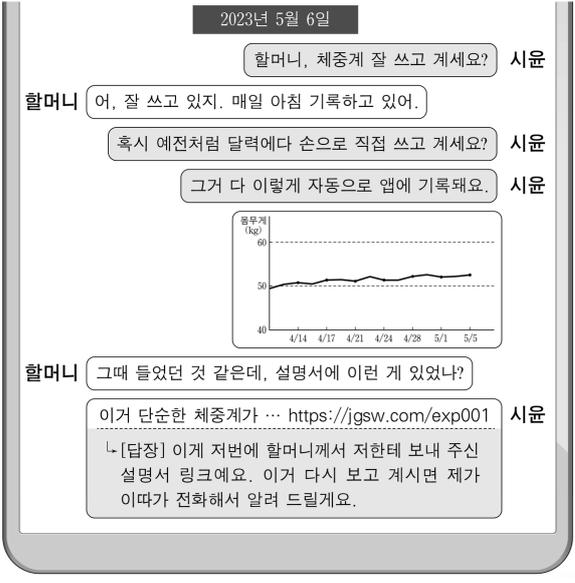
오! 할머니, 파이팅이에요! 시윤

할머니 이거 단순한 체중계가 아닌 거 같더라. 설명서를 다운 받아서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 너도 봐 볼래?

<https://jgsw.com/exp001>

이거 기능 정말 많아요. 시윤

4. 기타 안내에 두 번째 기기 연결 동영상 바로 가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따라 하세요. 시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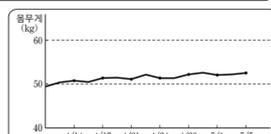
2023년 5월 6일

할머니, 체중계 잘 쓰고 계세요? 시윤

할머니 어, 잘 쓰고 있지. 매일 아침 기록하고 있어.

혹시 예전처럼 달력에다 손으로 직접 쓰고 계세요? 시윤

그거 다 이렇게 자동으로 앱에 기록돼요. 시윤



할머니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설명서에 이런 게 있었나?

이거 단순한 체중계가 ... <https://jgsw.com/exp001> 시윤

↳ [답장] 이게 저번에 할머니께서 저한테 보내 주신 설명서 링크예요. 이거 다시 보고 계시면 제가 이따가 전화해서 알려 드릴게요.

44. (가)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기 구성 정보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전달했다.
- ② 기기를 휴대 전화와 연결하는 방법을 조작 순서에 맞추어 안 내했다.
- ③ 기기 연결 방법에서 앱에 기록할 정보는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르게 표시했다.
- ④ 기기 기능 안내에서는 안내받을 수 있는 기능의 항목을 나열하여 배치했다.
- ⑤ 사용 설명서의 버전 정보를 수정 시점과 함께 제공했다.

45.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내용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선별하여 유통할 수 있군.
- ② (나)의 사용자들이 서로 교환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의 수정 과정을 점검할 수 있군.
- ③ (가)는 (나)와 달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질문하여 요청할 수 있군.
- ④ (나)는 (가)와 달리 사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외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군.
- ⑤ (가)와 (나)는 모두 정보를 교류한 이력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불러와 상대방에게 이전 내용을 환기할 수 있군.

2024학년도 9월

[40 ~ 43] (가)는 학생회 소식을 알리는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이를 본 학생이 누리 소통망에 올린 게시물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지켰다, 공약!’ 세 번째 시간이지요. 현재 접속자 수가 253명인데요, 두 번째 방송보다 100명 더 입장했네요. ㉠ 오늘은 학습실 사용 원칙을 정하겠다는 공약에 관해 학생회장이 출연해 직접 알리기로 했습니다. 학생회장 : 네, ㉡ 우리 학교 학습실은 개별 및 조별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자재를 쓸 수 있어서 인기가 많죠. 근데 자리가 많지 않고 특별한 원칙 없이 사용하다 보니 불편함이 많았죠. 실시간 대화 창 볼까요?

㉢ 동주 : 맞아, 자리 말고 오노라 종례에 늦을 뻔한 적도 있는데. [A] 다른 학년하고 같이 쓰려니 눈치도 보였고. 동주 학생과 같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시겠죠? 그래서 학생회가 나섰습니다.

□□고 학생회 소식

1. 학습실 사용 시 학년 구분이 필요한가?

구분	필요하다	필요없다	모르겠다	합계	전교생
응답 수(명)	512	10	14	536	617

2. 학년 구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은가?

구분	합계	3학년	2학년	1학년
요일별 구분(명)	256	174	68	14
시간별 구분(명)	256	14	96	146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회 내부 회의 통해 사용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 다예 : 설문 조사에 근거해 원칙을 마련하려고 한 것 보니까, 학생회가 마련한 원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아. 학생회, 힘내세요! [B] ㉥ 재호 : 다들 학년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년별로 선호하는 방법은 다른 게 신기해. 이유가 뭘까? 다예 학생, 감사합니다.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습실 사용은 학생회에 신청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학습실 사용은 학년별로 구분하되 3학년은 월·목, 2학년은 화·수, 1학년은 금요일에 사용합니다. [C] ㉦ 현지 : 저는 1학년인데요, 금요일엔 일찍 집에 가고 싶은데, 금요일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좀 그래요. ㉧ 연수 : 학생회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요, 설문 결과만으로 풀어내기 어려운 원칙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진행자 : 그럼 ㉠ 언제부터 새로운 사용 원칙에 따라 학습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학생회장 : ㉡ 네, 다음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이번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저희 학생회 공식 카페로 보내 주시면, 참고하여 대의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카페 주소를 참고해 주세요!

진행자 : □□고 학생들, 다음에 만나요!

(나)

예지 268명 읽음

구분	합계	3학년	2학년	1학년
요일별 구분(명)	256	174	68	14
시간별 구분(명)	256	14	96	146

□□고 친구들 방송 봤어요? 제가 캡처해 둔 화면을 보면 학생회가 ‘요일별 구분’을 선택한 이유가 의아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내부 회의의 과정과 내용이 방송에 나오지 않아 궁금해할 친구도 있을 거고요. 내부 회의뿐 아니라 설문 조사를 통해 학년별로 사용할 요일을 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생회장이 어떤 친구의 말에 반응한 건 좋았지만, 다른 친구가 궁금해하는 내용에는 답을 하지 않은 건 아쉬웠어요.

학생회 공식 카페 가기 (클릭 : 학생회에 전할 의견은 여기로) 댓글 창 열었으니 학습실 사용 원칙에 대해 의견 나눠요.

99 댓글

유신 2학년도 월요일에 쓰고 싶어요. 21:37

태민 나도. 21:51

40.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방송의 시작에 학교명을 언급하며, 소식을 들을 수 용자를 밝히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접속자 수를 언급하며, 두 번째 방송과의 접속자 수 차이를 알려 주고 있다.
- ③ 학생회장은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학생회장은 발화와 관련한 보충 자료로 표를 제시하며, 수용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학생회장은 자신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 화면을 설명하며, 수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강조하고 있다.

41. [A] ~ [C]에서 알 수 있는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동주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학생회장의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② [B]: 다예는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학생회의 결정이 타당할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 ③ [B]: 재호는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학생회의 설문 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④ [C]: 현지는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발언 내용의 논리적 오류를 점검하였다.
- ⑤ [C]: 연수는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학생회가 마련한 원칙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42. 다음은 (나)를 작성하기 위한 메모이다. ㉠ ~ ㉢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방송에서 학생회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네. 일단 ㉠ 학생회장이 방송에서 보인 아쉬운 점과 사용 원칙 마련에 ㉡ 친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해야지. 또 ㉢ 친구들이 학생회에 의견을 보내거나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야지.

- ① ㉠: ‘요일별 구분’을 원칙으로 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미흡했다는 점을 언급하기 위해, 저장한 방송 화면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 ② ㉠: 실시간 대화 창에서 학생회를 응원하는 말에는 호응하며 답을 들려주었지만 질문에는 답변이 없었던 모습을 이야기하였다.
- ③ ㉡: 내부 회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년별 사용 요일 결정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④ ㉢: 자막으로 제공된 주소는 바로 연결하기가 어려우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학생회 공식 카페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였다.
- ⑤ ㉢: 학생회가 선정한 학습실 사용자들이 사용 원칙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학생회에 보낼 수 있도록 댓글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4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부사 ‘직접’을 사용하여, 학생회장이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어미 ‘어서’를 사용하여, 학습실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 어미 ‘겠’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학습실 사용의 불편에 공감할 것이라는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보조사 ‘부터’를 사용하여, 이 질문은 학습실 사용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묻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어미 ‘면’을 사용하여, 사용 원칙이 적용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2024학년도 9월

[44 ~ 45] (가)는 ○○도서관 앱의 첫 화면이고, (나)는 이 앱을 사용한 학생이 도서관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과 사서의 답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도서관 앱 이용과 관련해 요청 사항과 질문이 있어요.
 답변 상태 : 완료 작성자 : 김** 작성일 : 2023.08.11. 09:45 조회 수 53
 안녕하세요. ○○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입니다. 도서관 앱 이용과 관련해 요청 사항과 질문이 있습니다.
 첫 화면에 휴관 안내 설명이 있긴 한데 휴관 날짜를 함께 안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지 사항에서 ‘+ 더 보기’를 누르지 않고도 공지 사항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서를 살펴보다가 관심 도서로 저장하는 기능도 앱에 추가되면 좋겠어요. 인터넷 서점 앱에 있는 기능인데 도서관 앱에서도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추천 도서’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또 ‘인기 도서’는 월별 통계인지, 연도별 통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삭제 📝 수정 🗑️ 인쇄 📖 목록으로

답변 : 도서관 앱 이용과 관련해 요청 사항과 질문이 있어요.
 작성자 : 박** 작성일 : 2023.08.11. 15:53
 안녕하세요. ○○ 도서관 사서입니다.
 먼저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휴관 안내에 대한 요청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날짜도 함께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지 사항 목록이 늘어나면 앱의 특성상 첫 화면이 너무 길어져 이용에 불편을 드릴 것 같아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으니 양해바랍니다. 또 관심 도서 기능은 도서 이미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를 눌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앱의 ‘추천 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도서관 정보나루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 도서관 사서들이 의논하여 선정합니다. ‘인기 도서’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누적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또 ‘인기 도서’의 ‘+ 더 보기’를 누르면, 기간, 연령,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순위에 따라 배열된 도서 목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나)와 달리 게시물의 조회 수가 화면에 표시된다.
- ② (가)에서는 (나)와 달리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 ③ (가)에서는 (나)와 달리 도서 이용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제공된다.
- ④ (나)에서는 (가)와 달리 도서 대출 상태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다.
- ⑤ (나)에서는 (가)와 달리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45. ㉠ ~ ㉣과 관련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은 정보의 구체성을 고려하여 ㉠에 추가 정보를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② 사서는 앱 화면의 구성을 고려하여 ㉡에서 보이는 정보의 양을 늘리지 않겠다고 학생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 ③ 사서는 정보 선정에 활용된 자료를 고려하여 ㉢의 선정 방식을 알려 주고 있다.
- ④ 학생은 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⑤ 사서는 정보의 추가 제공을 고려하여 ㉣을 여러 조건으로 정렬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안내하고 있다.

2024학년도 수능

[40 ~ 43] (가)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고, (나)는 동아리 누리집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상식’ 열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여 년간 대학에서 어문 규범을 가르쳐 오신 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오늘 짜장면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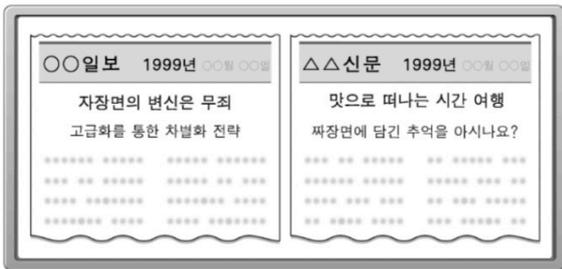
전문가 : 우리가 맛있게 먹는 짜장면이, 한때는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진행자 : ㉠ 아, 예전에 그런 내용을 본 적 있어요.

전문가 : 네, 전에는 자장면만 표준어였죠. ㉡ 짜장면은 2011년 8월 31일에서야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표준어로 인정되기 전에도 짜장면이 흔히 쓰이지 않았나요?

전문가 : 그렇습니다. 과거의 신문 기사를 보시죠.



진행자 : 음, 화면을 보니 같은 해에 나온 기사인데도 자장면과 짜장면이 둘 다 쓰이고 있네요?

전문가 : 네, 보시는 자료 이외에 다른 신문 기사에도 짜장면이라는 표기가 나타납니다. 비교적 어문 규범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신문에서 짜장면을 사용할 정도로, 일상에서 짜장면이 널리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렵에 복수 표준어 선정을 위해 실시한 발음 실태 조사에서도, 비표준어였던 짜장면이 표준어인 자장면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이 사용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 ㉢ 그렇다면 어문 규범이 언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군요.

전문가 : 당시 언중들이 일상에서는 어문 규범과 달리 짜장면을 흔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진행자 : 그러면 사람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반영하여 짜장면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거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문가 : 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짜장면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왔고 자장이라 표기하면서도 짜장으로 발음해 온 언어 현

실을 반영하여 짜장면이 자장면의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럼 짜장면처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도 현재는 표준어가 아니어도 언젠가 표준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이 있겠군요.

전문가 : 맞습니다. ㉣ 표준어가 아닌 말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다 보면 표준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진행자 : ㉤ 말씀을 듣고 보니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나름의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오늘은 우리말에 대한 상식을 하나 더 배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 : 고맙습니다.

진행자 : 오늘 방송은 공식 누리집에서 언제든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 오겠습니다.

(나)

언어 탐구 동아리 x +

[단비]님, 안녕하세요! 내 정보 나가기

언어 탐구 동아리 공지 사항 활동 자료 **생각 나눔** 사진첩

생각 나눔

글 제목 (댓글 수)	작성자	작성일
'오늘, 상식' 방송을 보고 (3)	단비	2023. 10. 12.
'언어와 인간'을 읽고 (8)	준서	2023. 10. 05.
'언어학과 광고' 강연을 듣고 (13)	아림	2023. 09. 21.

< 1 2 3 4 > 글쓰기

'오늘, 상식' 방송을 보고 작성자: 단비

오랜만에 '생각 나눔'에 글 남겨요. '오늘, 상식'을 봤는데, 짜장면이 복수 표준어가 된 이유에 대해 어문 규범을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 믿음이 갔어요. 제가 본 이 내용이 동아리 부원들의 어문 규범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링크를 걸어 둘게요.

'오늘, 상식' 10회 차 다시 보기 클릭

좋아요 누리 소통망 공유 삭제하기 수정하기 인쇄하기

종아요(19) 댓글(3)

- 아림 나도 재밌게 봤어. 발음 실태 조사에 대해 듣고 당시 사람들도 짜장면을 자장면보다 훨씬 많이 썼다는 것도 알았고, 그런데 조사 기관이 언급되지 않아서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 준서 나도 그 방송 봤는데,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됐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 성호 나는 방송에서 다룬 과거 신문 기사를 통해 자장면과 짜장면이 함께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 근데 신문에서 짜장면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일상에서 널리 쓰였다고 해도 괜찮을까?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문가’는 시청자에게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상황에서 방송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방송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 ② ‘전문가’는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제시한 정보를 정리하여 전달하였다.
- ③ ‘전문가’는 방송의 첫머리에 ‘진행자’와 문답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 ④ ‘진행자’는 방송 내용이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을 언급하며 방송 내용을 재확인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을 안내하였다.
- ⑤ ‘진행자’는 방송의 취지를 밝히며 방송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였다.

4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게시물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 ② 게시물에 반응할 수 있는 공감 표시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 ③ 게시물을 누리 소통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 ④ 게시물을 작성하여 올릴 수 있는 범주가 항목별로 설정되어 있다.
- ⑤ 게시물에는 다른 누리집에 있는 정보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42. (가)에 대해 (나)의 학생들이 보인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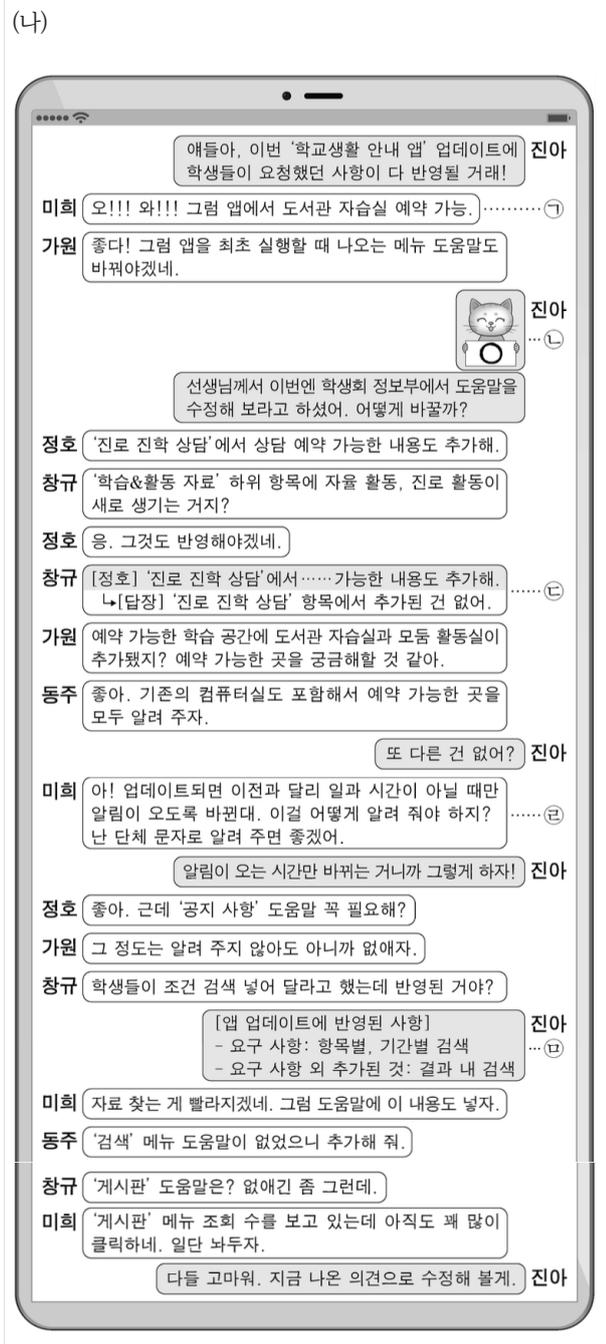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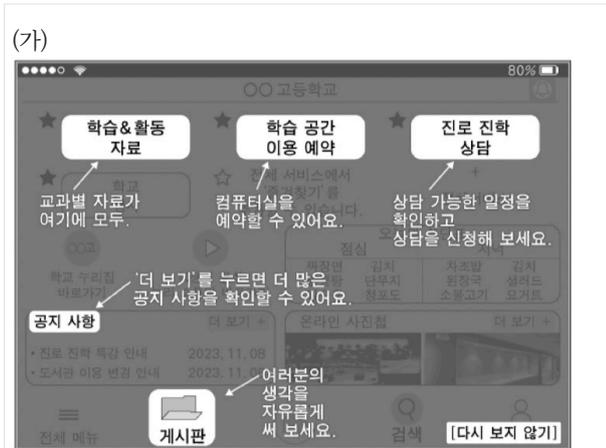
- ① ‘단비’는 정보 전달자의 전문성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다룬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② ‘단비’는 짜장면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이유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③ ‘아림’은 발음 실태 조사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제시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④ ‘준서’는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됐던 사실에 주목하여 그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⑤ ‘성호’는 과거의 신문 기사를 다룬 내용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다루는 정보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관형사형 어미 ‘-ㄴ’을 사용하여, ‘전문가’의 직전 발화와 관련된 ‘진행자’ 자신의 과거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행위의 대상인 짜장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③ ㉢: 보조 용언 ‘못하다’를 사용하여, 어문 규범이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일이 지속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ㄴ 수 있다’를 사용하여, 표준어가 아닌 말이 표준어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고 보다’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특정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난 후임을 드러내고 있다.

2024학년도 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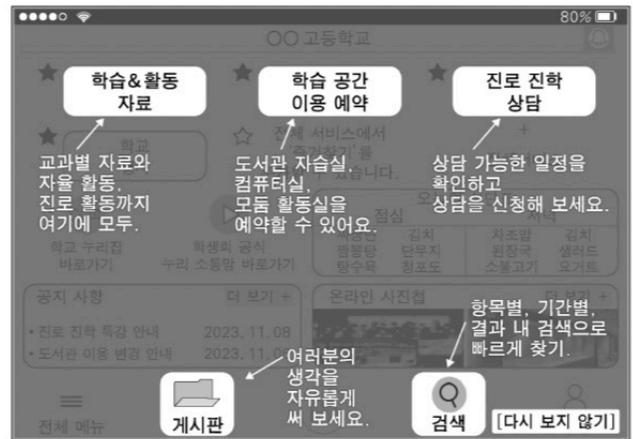
[44 ~ 45] (가)는 ‘학교생활 안내 앱’을 최초 실행할 때의 화면이고, (나)는 학생회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44. ㉠ ~ ㉥에 드러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느낌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였다.
- ②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에 동의 를 표현하였다.
- ③ ㉢: 대화 내용을 복사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였다.
- ④ ㉣: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변경된 알림 전송 시간대 를 안내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⑤ ㉤: 줄을 바꾸는 방식으로 글을 입력하여, 변동 사항을 구분 하여 안내하였다.

45.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가)를 아래와 같이 수정했다고 할 때, 수정한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학습&활동 자료’에 대한 도움말은 메뉴 항목의 변화에 대한 ‘창규’와 ‘정호’의 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 ② ‘학습 공간 이용 예약’에 대한 도움말은 이용 예약이 가능한 공간 추가에 대한 ‘가원’과 ‘동주’의 대화를 반영하여 수정되었다.
- ③ ‘공지 사항’에 대한 도움말은 메뉴 도움말의 필요성에 대한 ‘정호’와 ‘가원’의 대화를 반영하여 삭제되었다.
- ④ ‘게시판’에 대한 도움말은 메뉴 이용 빈도에 대한 ‘창규’와 ‘미희’의 대화를 반영하여 그대로 유지되었다.
- ⑤ ‘검색’에 대한 도움말은 검색 자료의 변화에 대한 ‘미희’와 ‘동주’의 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똘들이기 빠른 정답

Part 1. 언어

형태론

48p	1 ④	2 ④	3 ②	4 ④		
50p	5 ①	6 ⑤	7 ⑤	8 ④	9 ⑤	10 ②
		11 ④	12 ⑤	13 ②	14 ②	15 ④	16 ③
		17 ④	18 ④	19 ②	20 ④	21 ①	22 ⑤
57p	23 ⑤	24 ④	25 ⑤	26 ⑤	27 ②	28 ⑤
		29 ④	30 ①	31 ①	32 ④	33 ④	34 ⑤
		35 ②	36 ①	37 ⑤	38 ③	39 ②	
64p	40 ②	41 ④	42 ①	43 ②	44 ⑤	45 ②
		46 ⑤	47 ②	48 ④	49 ②		

문장론

92p	1 ②	2 ⑤	3 ①	4 ③	5 ⑤	6 ③
		7 ①	8 ③	9 ⑤	10 ④	11 ③	12 ①
		13 ④	14 ②	15 ⑤	16 ④	17 ④	18 ①
		19 ④	20 ①	21 ⑤			
100p	22 ⑤	23 ⑤	24 ④	25 ①	26 ②	
102p	27 ②	28 ③	29 ③	30 ③		
104p	31 ①	32 ⑤	33 ①	34 ④		
106p	35 ④	36 ⑤	37 ⑤	38 ①		

음운론

123p	1 ③	2 ④	3 ③	4 ④	5 ③	
126p	6 ④	7 ⑤	8 ①	9 ③	10 ⑤	11 ③
		12 ④	13 ④	14 ④	15 ④	16 ②	17 ①
		18 ①	19 ④	20 ⑤	21 ①	22 ①	23 ①

국어사

143p	1 ①	2 ③	3 ⑤	4 ⑤		
145p	5 ②	6 ③	7 ①	8 ④	9 ④	10 ①
		11 ①					
149p	12 ⑤	13 ④	14 ①	15 ②	16 ⑤	

그 외

169p	1 ④	2 ③	3 ②	4 ②	5 ⑤	6 ④
		7 ①	8 ⑤				
173p	9 ①	10 ④	11 ③	12 ①	13 ④	14 ③
		15 ⑤	16 ④				
177p	17 ③					
178p	18 ①	19 ④				

Part 2. 매체

2022학년도 6월

186p	40 ③	42 ④	42 ③	43 ②	44 ①	45 ⑤
------	------	------	------	------	------	------	------

2022학년도 9월

190p	40 ②	42 ③	42 ③	43 ⑤	44 ⑤	45 ②
------	------	------	------	------	------	------	------

2022학년도 수능

194p	40 ④	42 ③	42 ④	43 ④	44 ⑤	45 ③
------	------	------	------	------	------	------	------

2023학년도 6월

198p	40 ②	42 ⑤	42 ④	43 ④	44 ①	45 ③
------	------	------	------	------	------	------	------

2023학년도 9월

202p	40 ③	42 ②	42 ②	43 ①	44 ③	45 ①
------	------	------	------	------	------	------	------

2023학년도 수능

206p	40 ②	42 ①	42 ③	43 ⑤	44 ④	45 ③
------	------	------	------	------	------	------	------

2024학년도 6월

208p	40 ②	42 ①	42 ⑤	43 ⑤	44 ③	45 ①
------	------	------	------	------	------	------	------

2024학년도 9월

212p	40 ⑤	42 ②	42 ⑤	43 ①	44 ③	45 ④
------	------	------	------	------	------	------	------

2024학년도 수능

215p	40 ②	42 ①	42 ⑤	43 ③	44 ③	45 ⑤
------	------	------	------	------	------	------	------

이미지 저작권 표기

1. Sound engine.. (작가 vector4stock | 출처 Freepik)

"이미지: https://www.freepik.com/free-vector/sound-engineer-concept-music-production-industry-sound-recording-with-studio-equipment-creator-soundtrack-vector-illustration-cartoon-style_27037320.htm#fromView=search&page=1&position=3&uuid=7bfb-4a4f-465b-ab0d-dd5cc2ed9dc7"

2. Free vector musician online service.. (작가 vector4stock | 출처 Freepik)

"이미지: https://www.freepik.com/free-vector/musician-online-service-platform-music-artist-playing-instruments-young-performer-making-music-with-equipment-video-tutorial-vector-flat-illustration_29174962.htm#query=%EC%98%81%EC%83%81%20%EC%86%8C%EB%B9%84%EC%9E%90&position=1&from_view=author&uuid=b1601bf4-b5eb-451e-a78a-3e781ddc3a95"

3. Hand drawn flat people talking (작가 freepik | 출처 Freepik)

"이미지: https://www.freepik.com/free-vector/hand-drawn-flat-people-talking_17404021.htm#fromView=search&page=1&position=4&uuid=f7bf1175-6ede-4c7f-9fd3-6031cf9763fd"

4. Business designs collection (작가 photoroyalty | 출처 Freepik)

"이미지: https://www.freepik.com/free-vector/business-designs-collection_1064390.htm#fromView=search&page=1&position=13&uuid=2c9baed8-1b24-4742-832f-5e82c440bf25"

5. Radio and television icons collectio (작가 macrovector | 출처 Freepik)

"이미지: https://www.freepik.com/free-vector/radio-television-icons-collectio_1035781.htm#fromView=search&page=1&position=4&uuid=6fc844ee-c23c-4460-8bbf-0d567ab6a561"D+%ED%98%84%EB%AF%B8%EA%B2%BD&page=1&position=3&origin=search&related_id=13676586"

본 교재의 저작권은 한방국어에 있습니다.

한방국어의 사전 허락 없이 본 교재를 복제, 변형하여 판매, 배포, 전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21. 한방국어 Co. All rights reserved.

수업 문의 : 010-9759-5798

메일 : wg_eu4337@naver.com

